목회적 돌봄을 통한 건강한 교회전략

A STRATEGY FOR THE WHOLISTIC CHURCH THROUGH THE PASTORAL CARING

By

Beak, Seon Yong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Los Angeles

2011

This is certify that the
Demonstration Project entitled

목회적 돌봄을 통한 건강한 교회전략
A STRATEGY FOR THE WHOLISTIC CHURCH THROUGH THE PASTORAL CARING

presented by

Beak, Seon Yong

has been accepted towards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Academic Dean's Signature

Associate Director for Korean D. Min Program's Signature

January 2011

ABSTRACT

A STRATEGY FOR THE WHOLISTIC CHURCH

THROUGH THE PASTORAL CARING

In this thesis, study is focused on prospecting strategies for pastoral care to build healthy churches. It requires accurate projection for upcoming social changes, which also will certainly bring changes within the Korean immigrant community. Currently many churches are concerned with social participation and pastoral care but are reluctant to actualize within ministry context. It is not just a matter of finance but a lack of experience and the knowledge to practice them. Thus this paper strives to define the concept of pastoral care. In chapter 2, we will do theological study on the definition of healthy church and pastoral care. Then we will see how both topics are closely related to one another from the aspect of pastoral ministry.

In chapter 3, titled "Pastoral Care and Healthy Church", I have reviewed a brief history of pastoral care in an immigrant church. Also I have summarized reasons for pastoral care and different ways for pastoral care to enhance a healthy church. Even if one knows the definition, reasons, methods and the affects of pastoral care, to carry them out effectively is another matter. It take much study to be able to realize specific and proper pastoral care in the future immigrant society, because immigrant society is not a stagnant entity but continues to vary its aspects.

This chapter four deals with prospects of future society in general and immigrant society in relation to those prospects. Based on the prospects, I have

projected a future church and pastoral care programs that will be relevant to changing future society. I have presented models for each social behavioral, social relational issues. Since the future society will have a larger elderly population, I have suggested several pastoral care programs that will be relevant and effective to the elderly in the church. In conclusion, I have given suggestions for the direction where pastoral care should proceed.

Research issues dealt in this study are pastoral care issues we must face in the 21st century church. Two thousand years of church history proves that the church was the center of many social services. Reinhold Niebuhr wrote in his book "The Contribution of Religion to Social Works", that the church is the mother of social services and the church lost its initiative because of the division within it. This means that the church abandoned its duty to secular entities. Thus the church's role as the mother of social works had been limited and has become only a supplement to public social service agencies.

Immigrant church partnered with suffering immigrants in their lives. Immigrant churches became the hosts for Korean schools, child care centers, elderly homes, and handicapped welfare centers. In the 70's immigrant churches became government delegated agencies for public social works. Currently, about two third of social agencies are managed by faith based organizations including many churches. Each church has also developed independent social programs that are designed to tackle social issues like unemployment, teen mothers, homeless, troubled youth, and other social problems, taking action with love and fellowship. In spite of such efforts, churches were criticized for not doing enough. Immigrant churches have had historical growth as they have focused on evangelism and nurturing believers. However their efforts for social service were relatively limited.

Thus churches have focused on individual church growth and are not enthusiastic about their neighbors. Churches are stagnating as people became critical of the role of churches in the society.

We are already over a decade into the 21st century. We do not know what will happen in the next 100 years. We do not even know if we will exist at all.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churches to make the future. If the churches fail to prepare for the coming future, and have no purpose or plans, then it is impossible for us to have a bright future.

The 21st century church must keep hoping to save as many souls as possible. This study has focused its goal to project the churches' future in the aspect of 21st century welfare pastoral ministry. as it will bring changes. Welfare pastoral ministry is the call for the future church. It is critical to make the church relevant to the changing context. Jesus had given us a model for welfare pastoring, as he demonstrates his care for the weak, the sick and the demon possessed. He had visited the imprisoned, given food to the hungry and thirsty, and had performed wonders. He has given us the model and mode for the welfare pastoral care. This is still relevant to our modern society. Churches are obligated to follow Jesus' welfare ministry model to realize His Kingdom in the coming future. Even if we may have many good organizations outside the church working to promote welfare, churches should take the major role. The church is the front line force to fight for the Kingdom of God. Churches must continue to educate its people to learn Jesus' fellowship and good works. Churches must also send people out into the world for ministry. As long as we have churches effectively engaging themselves in welfare ministry, the future of welfare ministry is very bright.

ACKNOWLEDGEMENTS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며 나의 달려갈 길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면에서 학문적 열정을 가질수 있도록 격려하며 학문적 방법과 종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논문을 힘껏 지도해 주신 백창근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외에도 논문을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지도해 주신 Russell, Keith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영적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보다 발전된 목회를 위해 학문적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과 기도로 지원해주신 남가주 명성교회 성도들과 당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논문을 쓰는동안 라파선교회와 도움선교회, 실버사역자들의 기도와 헌신에 감사를 드리고 동역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선교의 동력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의 동역의 수고가 있었기에 힘껏 연구에 집중할수 있었음을 논자는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배후에서 기도하며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랑하는 아내 백은화와 하나님의 존귀한 선물인, 그리고 나의 신앙의 초석이 되어주시고 변함없이 영적 울타리의 역할을 감당해주시는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쁨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많은 소그룹 리더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 5월 California Los Angeles에서

백 선용

CONTENTS

I. 서론

1. 연구 동기와 목적

본 논문에서는 미래사회의 변화와 그리고 이민한인사회의 변화의 추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교회의 목회적 돌봄을 통한 건강한 교회전략에 대한 구상과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현재 많은 교회들이 사회사업이나 목회적 돌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일에 개입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 단순히 필요한 경비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그 문제를 막연히 생각했다가 실재로 시작하려고 하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목회적 돌봄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 2장에서는 목회적 돌봄과 건강한 교회에 대한 사전적, 신학적 고찰을 통한 목회적 돌봄을 통한 건강한 교회의 개념을 서술한 후 목회적 돌봄의 특성인 건강한 교회의 의미와 주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3장의 제목인 목회적 돌봄과 건강한 교회에서는 과거 이민교회의 목회적 돌봄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정리해 보았고, 교회가 목회적 돌봄을 해야하는 이유와 그 이유에 근거하여 건강한 교회를 이행하는 방법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목회적 돌봄이 건강한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보았다. 목회적 돌봄의 개념과 특징이 정리되고, 목회적 돌봄이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와 이행하는 방법들을 알고 목회적 돌봄이 교회에 미치는 결과를 알았다고 해서 그것을 다가오는 미래사회와 이민사회에서 구체화 시키기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이민 미래사회와 이민 미래의 교회는 지금과 또다른 모습으로 변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4장에서는 미래사회는 어떻게 변화되고, 또한 이민사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예측, 연구하면서 변화된 미래사회에 맞는 미래교회의 모습과 미래교회에서 실시되어야 할 바람직한 목회적 돌봄의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보았다. 즉 사회행동적 대인사회적(상호관계적)·문제발생별 복지형태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정리함으로

보다 쉽게 정리하여 보았다. 특별히 미래사회는 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볼만한 노인들을 위한 목회적 돌봄의 프로그램을 몇 가지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제까지 연구한 것을 정리하면서 목회적 돌봄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2. Summary of the Problems 문제제기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문제의 영역은 다가오는 21세기에 대처할 교회의 목회적 돌봄에 관한 것이다. 기독교 이천년의 역사는 교회가 사회사업의 모체가 되어 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그의 저서 「사회사업에 대한 기독교의 공헌」에서 교회는 사회사업을 낳은 어머니였으나 교회내의 불일치로 사회사업을 세속 사회로 넘겨주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회가 사회사업의 어머니였지만 그 책임을 포기함으로 사회사업이 교회 밖의 일처럼 바뀌었다는 것이다. 즉, 교회가 사회복지의 주체였으나 사회복지가 세속화되어 감에 따라 그 주도적 역할이 축소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공복지의 역할을 보완하는 역할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1]

이민 교회는 이민와서 불완전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온 교민들의 삶의 현장에 동참하여 왔다. 즉, 이민교회는 한글학교를 세우고, 한글교육을 가르쳤으며, 육아원, 양로원, 장애인복지기관을 설립하는 등의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는 이민교회는 공공사회복지기관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미주 내 사회복지 기관의 2/3정도를 기독교와 관련된 단체나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을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개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실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실업자 문제, 미혼모 문제, 노숙자와 홈리스 문제, 비행청소년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가 있는 곳에 기독교인의 사랑과 봉사의 손길이 뻗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민교회가 사회복지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그리고 친교라는 교회의 다섯 가지 사명 중에서 사회봉사의 사명을 소홀히 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 이러한 비판은 이민교회가 전도와 교육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치중하여 현대 교회사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양적 성장을 이룩한 데 비하여 사회봉사의 사명을 수행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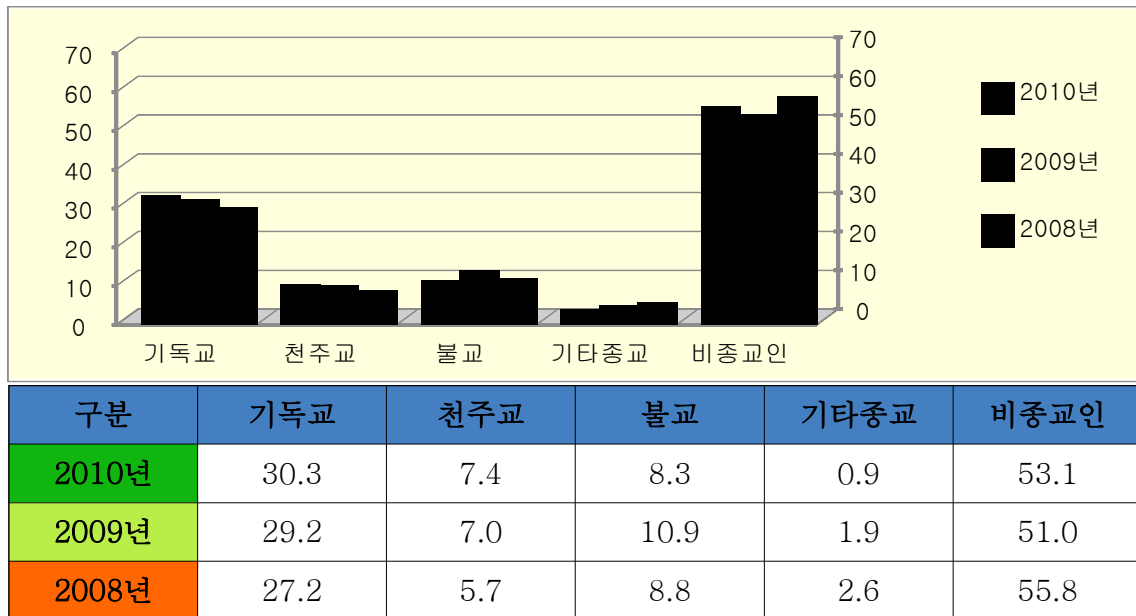
[1]김기원, *교회의 사회적 기능*, 한국기독교 사회복지회편: 기독교와 사회복지 (서울: 예안, 1995),13-26.

[2]유의웅, *지역사회봉사 목회사례*, 이삼열 편,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방법: 기독교사회봉사 목회자 훈련교재."(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사회부, 1993),69

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데서 비롯된 지적이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개교회 중심의 성장에만 관심을 둔 나머지 사회에 대한 책임은 다하지 못하고, 그리고 변화된 국민들의 욕구와 생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개신교회는 지금 성장이 거의 멈추어 버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2011년 1월8일, 크리스챤 뉴스위크가 발표한 한국 교민의 종교실태와 종교의식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종교 인구수에 있어서 기독교인이 불교인을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크리스챤 뉴스위크지는 「2010년 9월 14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전역을 전국의 18세 이상의 남녀 1천6백31명에 개별 전화통화한 면접조사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교인은 46.95%로 집계됐으며, 가장 많이 믿고 있는 종교는 개신교(20.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3]

< 표1 > 한국교포들의 종교분포

구분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종교	비종교인
2010년	30.3	7.4	8.3	0.9	53.1
2009년	29.2	7.0	10.9	1.9	51.0
2008년	27.2	5.7	8.8	2.6	55.8

또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참 진리추구 보다는 교세확장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 79.6%였으며, 또한 종교 본래의 뜻을 상실

[3]크리스챤 뉴스위크, “*한국 교민의 종교실태와 종교의식에 대한 조사.*” 2011. 1.8, 1.

하고 있다(72.2%), 삶의 의미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62.9%)라고 밝혀 종교단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 종교인과 종교를 갖지 않은 비종교인 간의 부정적인 평가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종교 단체들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4] 종교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종교다원화 사회에서는 어느 특정한 종교가 전 국민의 25%를 넘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만일 이 말이 맞는다면 한국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의 수는 지금 이미 그 최대치에 가까운 수치인 것이다. 이러한 통계는 선교정책과 목회적 관심에 심각한 변화를 주고 있다. 이러한 종교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이민교회는 지금부터라도'수(數)'라고 하는 양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질(質)'의 개념으로 목회적 패러다임이 변형되어야 한다. 또한 미래사회로의 변형에 따른 목회적 변형 또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회의 자구적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혁의 때에 한국이민교회는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 경제와 세계경제의 공황에 가까운 어려운 시기에 이에 따라 교민들은 턱없이 오른 물가고와 실직, 그리고 봉급 감소 등의 이중고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런 어려움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교회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며, 이러한 때 교회에서 그들에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함으로 사회사업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이다.

이제 한국 이민교회는 이전까지의 자기중심적 교회에서 타자에게 관심을 돌리는 교회로 변형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새로운 변형의 시도가운데 가장 뚜렷한 면이 사회봉사에 대한 목회자와 교회의 관심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교하는 개념도 재정립되어 이전까지 선교가 개인의 영혼을 중심으로 개교회를 위한 전도 내지는 교회성장이라는 제한적인 개념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개인을 포함한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봉사의 개념으로 진보되어야 한다.

21세기의 교회가 당면한 과제는 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한 기여이고, 받는 교회에서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교회가 사회사업을 낳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

[4] *경향신문*, http://www.khan.co.kr/rss (accessed July 2, 2011)

이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교회와 목회는 교민의 고통과 함께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될 21세기는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돌출 될 것이다. 문명이기의 자동화로 생활이 매우 편리해질 것이고, 생산량의 증가로 의·식·주 모든 생활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제품들의 품질 향상으로 생활의 많은 부분이 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기계화, 자동화는 시간적 여유를 마련해 줌으로써 여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전문업과 서비스업의 확대와 분화는 직업에서의 소외감을 감소시킬 것이고, 정보산업의 발달과 교통수단의 발달은 전세계를 완전히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유전공학, 의학기술의 발달과 충분한 영양공급은 건강을 크게 향상시키고 평균수명을 연장시킬 것이다.[5]

그러나 이 다가올 미래의 변화와 넓이와 깊이, 그리고 속도가 가지고 있는 도전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교회가 다가올 미래사회의 변동에 맞추어 대처하지 못하고 자기 만족적인 안일주의에 그대로 빠져 있게 된다면 결국 교회는 새로운 시대의 도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급속한 쇠퇴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

3. Introduction to Setting 배경소개

1) 교회가 위치한 지역 상황

로스앤젤레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남부에 있는 도시이다. 미국 전체에서는 둘째, 서부 지역에서는 첫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자, 미국에서 한국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종종 'L.A.(엘 에이)' 로 줄여 발음되며, '천사의 도시'(The City of Angels)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나성(羅城)'이라고도 부른다. 추정 인구는 약 380만 명이며, 면적 1290.6 평방 킬로미터이다.

1781년에 프란시스코파 수도사들이 건설한 뒤 오랫동안 작은 시골이었으나, 19

[5]유의웅, *현대교회와 사회봉사*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19.

세기 후반에 대륙횡단 철도가 개통되고, 게다가 석유가 발견됨에 이르러 급속히 발전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자 영화산업이 진출하고, 제2차 세계대전중에 항공기 공업을 비롯한 근대공업이 입지하여 전후에는 동부의 뉴욕과 어깨를 견주는 서부의 경제활동의 중심으로서 약진하였고, 교외 지역을 포함하면 이제 시카고를 제쳐놓고 전미국 제2의 도시가 된다. 지중해성 기후에 속하여 봄에서 늦은 가을까지는 비가 오지 않고 건조하며 공기가 맑으며, 겨울도 따뜻하여 건강에 좋다. 시가지는 평면적으로 뻗어 있는데, 그 면적의 절반을 도로와 주차장이 차지한 '자동차시대의 도시'로서도 유명하며, 하이웨이가 종횡으로 달린다.

본교회가 위치한 L.A.한인타운은 미국 내 최대의 한인 밀집 지역이다. 1962년 한국에서 이민법이 제정되고, 1965년 미국 내의 이민법이 개정되어 가족관계와 직업 기술이민으로 한인이 이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지대(地代)가 저렴하고 접근하기가 유리한 올림픽가(街)에 한인의 상업 서비스 자영업체와 주택이 분포하기 시작하였다.

많은 한인 식품점, 세탁소, 의류제조 및 봉제업체를 포함한 각종 제조업체와 상업 서비스업체뿐만 아니라, 한국 총영사관과 문화원을 비롯한 정부·공공기관, 봉사기관, 종교단체, 방송 및 신문사, 의료기관 등이 분포하고 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30, 40대로 장성한 이민 1.5세들이 의사·변호사·무역·보험·공인회계사 등으로 많이 진출하면서 업종면에서 전문화·다양화 경향을 보였다. 한인의 자영업 운영률은 23%로 타 아시아민족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으며 주 전체 평균인 7.8%보다 3배 가량 높다. 크리스찬 투데이가 미국내 도시별 한인교회 수를 분석한 결과 LA가 1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 한인교회 수의 7.8%에 해당한다. 크리스찬 투데이가 발간한 2008년 교회주소록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는 모두 1238개의 한인교회가 있으며 이중 23%인 288개가 LA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LA권 한인교회의 66%인 191개가 한인타운 권역에 집중되어 있어 한인교회의 '쏠림'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한인들이 밀집 거주하는데다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한인타운이 창립교회나 중소형 교회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6]

본 교회가 위치한 곳은 LA의 한인 타운 중심부로서 이민 온 한인들이 손쉽게

---

[6]크리스찬투데이, *미국한인교회현황*, www.christiantoday.us/sub. 5 Jan, 2011.

잡을 구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이다. LA 한인타운은 공립학교로서 6개의 고등학교와 9개의 중학교 16개의 초등학교가 있고 LA 커뮤니티 칼리지와 12개의 칼리지가 인접한 지역으로 공립학교의 30%정도가 한인 학생들이다. 한인거주자 70만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추산하고 있으며[7] 한인교회 역시 3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추산 통계 되어[8] 교회마다 교인들의 확장에 혈안이 되어있고 몇 개의 대형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가 30명 미만의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교회를 신앙과 믿음보다는 이민와서 손쉽게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많다.

2) 역사적 배경및 상황

남가주 명성교회는 1997년 정 해진 목사님 사택(10021 Collett Ave. North Hills, CA 91343)에서 임 도자 집사님 가족과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 명칭은 미문교회라고 하였다. 1998년에는 Western Ave에 교회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기로 하였고 1998년 1월 새소망교회와 연합하여 미국 교회를 임대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교회 명칭을 브니엘교회로 변경하였다.(제50회 서 노회 결의)

1998년에는 정 해진 목사님께서 브니엘교회 위임목사로 위임식을 갖고 8월에 브니엘교회(정 해진 목사)와 부흥교회(김 봉훈 목사)가 통합하여 남가주명성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 해진 목사를 당회장으로 결의하였다. 1999년에 김봉훈 목사님께서 천안대학교 부임하면서 송별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2000년 1월에 111 S. Mariposa Ave에 교회 건물을 구입하면서 2월에 교회 건물을 전반적으로 보수 공사를 시작하여 9월에 공사를 마치고 입당예배 및 장로 1인과 안수집사 3인과 권사 5인의 임직식을 가졌다. 2003년 11월에는 본교회 담임목사님인 정해진 목사님이 미주한인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감사대축제 상임대회장을 맡으셨다. 본교회는 장년 100여명이 출석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주로 중장년층으로 구성되어

---

[7]중앙일보, *중앙일보 미주판*, Saturday, September 17, 2005. Section-A.

[8]크리스찬선데이, *크리스챤선데이 미주판.* Oct. 27. Section 3.

있다. 매주일에는 아침 8시 30분에 1부와 오전 11시에 2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 1시에 찬양예배를 드리고 있다. 주중에는 수요예배와 토요일 새벽예배를 드리고 있다. 사역자는 담임목사님외에 부목사 5인과 선교사 3인과 전도사 3인이 있다. 교회내 소그룹에는 다섯 개의 선교회모임과 5개 구역모임이 있으며 10개의 교회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모임들이 활성하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교회는 월별로 헌신예배를 기획 담당하고 있다. 구역모임은 두 달에 한 번씩 오후 찬양예배 시간에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매주일 식사를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준비하면서 교회사역에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I. 신학적 질문(Theological Basis)

1. 목회적 돌봄을 통한 건강한 교회의 전략

본 장에서는 목회적 돌봄을 통한 건강한 교회의 이론적 배경을 신학적, 성서적, 정의적, 역사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교회론적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서 목회적 돌봄을 통한 건강한 교회의 변혁은 21세기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대안이 아니라 성경에 뿌리를 두고 교회사적으로 실천되어왔던 것이며, 성경적 교회론을 가장 잘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한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특징에도 가장 적합한 구조임을 밝혀 보고자 한다.

1) 목회적 돌봄이란 무엇인가?

(1) 목회란 무엇인가?

목회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 지탱할 수 있도록 보전하고 경영하는 일에 사람이 동참하는 통합적인 작업이다. 여기서 주제는 생명이다. 이 생명을 우리가 창조하는 일은 못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믿으며 그것을 존중하고 살리고 지탱할 수 있도록 보전하고 경영하는 일에 동참하여야 할 부르심을 받고 작업하려는 것을 목회로 이해한다.

목회가 생명에 관한 작업인 한 생명이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의 환경에 관련된 것이다. 여기서 목회가 사람이 가진 생명을 살리고 지탱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것이라고 할 때 목회는 생명을 위협하고 해를 끼치며 어렵게 만들려는 것들을 치유하고 그것들로부터 보호하며 거기에 관련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문제가 되려는 것들을 해결하며 예방적 의미의 보호와 더불어 생명 보전 작업을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 필요하면 환경을 변화시키는 작업도 포함한다. 또 목회는 생명을 보전하는 작업을 위해 안내하고 도움을 주는 일까지도 포함한다.

목회는 이제 단순히 말의 선포와 실천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간을 수용해야 하고, 장소를 극복하는 시간을 불가피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는다.[9]

거대한 인간의 교류, 속도감의 증대 그리고 정보의 발달 등으로 현재와 같은 목회구조는 사라지고 새로운 목회구조가 출연할 것이다. 즉 현대와 같은 구역을 중심으로 한 심방 조직으로는 미래 사회에 적합하지 못할 것이다. 방대한 지역을 복잡한 교통상황에서 심방이라는 목회구조로 관리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미래 사회는 이동성과 여행이 극도로 발달하여 교회는 지역성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회 구조에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새로운 목회구조를 요청하게 된다.[10]

목회는 이제 담(wall)으로 둘러싸여 있는 교회의 울타리 안이나 교구로 한계를 정하지는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목회는 삶의 모든 영역에 연결되는 다중 차원적이며(multi-dimensional), 연결을 필요로 하며, 다양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 작업이라고 하겠다. 지리적으로 가깝게 있거나 멀리 있거나, 연결망 연결로 생기는 새로운 공간을 포함하는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까지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생명을 살리고 지탱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확실한 것은 목회가 생명을 살리고 지탱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작업을 계속하여야 하고 그것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목회가 목회인 한 그것의 본래적 사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목회는 생명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고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 작업에 필요한 서비스와 그것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전문성, 가치, 윤리 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11]

(2) 돌봄이란?

돌봄은 사전적으로 보면 “행복, 만족할 생활환경”[12]으로 정의되고 있다. 한 사

---

[9]맹용길, *복지목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11-12.

[10]이성희, *미래사회와 미래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271.

[11]맹용길, ibid., 13.

[12]이기문, *동아 새국어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89), 981.

회사업 사전에서는 사회복지를 “반적으로 인지된 사회문제를 예방하거나 완화시키며, 그러한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거나 또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복리를 개선코자 노력하는 민간과 정부기관들의 광범위한 조직적 활동”이라고 정의했다.[13] 여기서 말하는 복지는 사회복지와 매우 흡사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면 사회복지라는 말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사회복지란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적, 민간적인 모든 사회적 노력을 말한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나 철학이며, 또한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회, 국가공동체가 함께 노력한다는 공동책임의 철학을 말한다. 인간의 행복추구 그리고 이를 위한 공동체적 책임은 곧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다. 이미 언급된 바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사랑을 통한 행복권, 그리고 봉사를 통한 공동체적 노력이 사회복지사상의 핵심이라면 이러한 사상은 곧 성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14]

(3) 목회적 돌봄이란 무엇인가?

돌봄목회는 처음부터 신학을 기초로 하여 신앙 기반, 가치 기반, 지식 기반, 기술 기반을 갖고 인류의 미래를 밝게 하고 희망차게 만들어 가며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궁극적 복지를 갖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15] 돌봄목회가 돌봄의 개념에서 사회복지의 개념을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돌봄목회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살리고 지탱하는 일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성장, 다른 사람과 관계하고 상호 작용하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가정을 이루며 보호하고 지탱하며, 거기에 관련된 결혼, 이혼, 재결혼 등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생명을 살리고 돌보며 치유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에 반대되는 죽음, 빈곤문제, 범죄 행위, 폭력, 정신 건강 서비스, 사회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문화의 문제, 라이프 스타일, 지역 사회 건설, 국가적 복지 정책, 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 등 다양하고 폭넓은 문제들이 포함된

---

[13]장인협,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11.

[14]박종삼, *사회사업의 시각에서 본 교회의 봉사활동*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2), 178.

[15]맹용길, *복지목회론*, Ibid., 5.

다.

그렇지만 돌봄이 목회에 관련되어 돌봄목회를 고려하는 한 확실히 사회사업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 혹시 그것이 사회사업과 연계된다 하더라도 사회사업 자체는 아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돌봄목회는 초점을 분명히 하여야 하고 그 자체를 특성화하고 차별화 하여 왜 돌봄목회를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16]

1) 돌봄목회의 의미

돌봄목회는 첫째로 생명을 보전하는 일의 구체화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믿는 자들이 소금과 빛의 삶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을 때처럼 생명을 보전하는 일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돌봄목회는 생명을 보전하는 일의 실천화이다. 목회는 이론을 정립하는 것으로나 교리화하여 문자화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에만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돌봄목회는 생명을 보전하는 일의 추진화이다. 목회는 이론과 계획과 조사와 같은 작업이 따르더라도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요구된다. 복지목회는 바로 이것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넷째로 돌봄목회는 생명을 보전하는 일의 현실화이다. 현실화는 실천하는데 있어서 당면한 상황을 고려하며 역사적 의미를 나타내게 하며 현실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하겠다. 현실화는 목회를 지금 여기로 끌어오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역사적 맥락에서 미래를 고려하는 넓은 의미도 수용한다.

다섯째로 돌봄목회는 생명을 보전하는 일의 다양화이다. 이 다양화는 자체 안에서의 다중적 준비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외부적 접촉 대상에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시로 받아들이고 자체의 다중적 연계와 다양한 현실을 연계하여 인간의 삶의 현실을 처리해 가려고 하는 것이다.[17]

---

[16]Ibid., 15.

[17]Ibid., 16.

2) 돌봄목회의 주제

돌봄목회가 생명을 보전하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제를 여기서 세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는 생명이며, 둘째는 인간이며, 셋째는 인간복지이다.

(1) 생명

인간은 생명이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말하며 그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목숨으로 나타나는 생명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로 이해되고 있다. 즉 생명 자체, 몸을 가지는 육체적 지탱을 위한 생명, 돌봄목회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욕구를 하는 생명, 여기에 덧붙여 목숨, 혼, 영혼, 마음, 정신 등을 포함하여 막연히 생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들을 분리하여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궁극적인 생명을 영생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이것을 지키게 하는 것을 돌봄목회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요한복음 12:25)

영생은 참 생명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즉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영생은 우리가 목숨이 있을 때에 지킬 수 있으며,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목숨과 영생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2) 인간

인간은 생명을 가진 존재다. 이 존재는 스스로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있게 된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던져진 존재도 아니다. 인간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갖고 태어난 존재이다. 그리고 이 인간이 가지는 인간성도 인간 스스로에게서 찾기 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을 그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다는 데서부터 출발하여 생각하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근원을

찾으며 본래적 인간성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적인 인간성을 찾으려 한다.

이 본래적인 인간성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 그 인간성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데 근거하여 하나님 없이는 생각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생명체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데 근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며 다른 사람들과 생명체적 관계를 가지며 그것을 보전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표현될 수 있는 것이며 후자는 세상에서 생명을 지탱하면서 생명보전의 일을 해가는 모든 삶에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이와 같이 양면적 삶의 표현을 동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분리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의 표현이 하나의 것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수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을 복지목회의 맥락에서 보면 생명을 보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피조물과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3) 인간복지

인간의 생명을 보전하는 모형은 예수님의 삶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나타나며 목회라는 말을 하게 될 때에는 그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예수님이 인간성을 나타내시는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산 것으로 표현되지만 (요한복음1:14) 그것을 목회적 차원에서 표현하는 말은 마가복음 10장 45에서 더욱 확실하게 보완하며 나타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가10:45)

이 말씀은 목회의 주제와 성격을 결정적으로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섬기느냐 이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목회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 예수님은 목회를 하시기 위해 길을 보여 주셨다. 즉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

수님에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목회라는 함의로 나타내 주셨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25:40)

목회는 섬김으로서 지극히 작은 자(욕구가 있는 자) 에게 생명을 보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섬김은 봉사로 번역하게 되었으며 본래 목회라는 말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이 목회의 대상은 작은 자 즉 예수님을 대신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 섬기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대상이다. 목회의 대상은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더불어 살고 생명을 보전한다는 맥락에서 이해되는 존재들로서 육체적 생명과 영생을 포함하는 보완작업을 하게 된다. 여기에 필요한 고난과 죽음을 수반하는 것도 수용해야 한다.[18]

[18]맹용길, "*복지목회의 의미와 가능성 모색.*"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세미나,1995), 5-7.

Ⅲ. 성서적 질문 (Biblical Basis)

1. 돌봄목회와 교회

교회가 왜 돌봄목회를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먼저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엡5:23), 교회는 그의 몸이며(엡1:13),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엡5:30).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여야 한다. 돌봄목회는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지탱할 수 있게 하시고, 지속할 수 있게 하시고, 보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9] 누가복음 10장 25-37절의 선한 사마리아인 의 비유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는 영생 획득에 관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이었다. 예수에 의하면 영생의 길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횡적으로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곧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는 삶이었다. 봉사활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인의 삶이 영생의 길로 예수에 의해 규정된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20] 우리가 돌봄 목회와 예수님을 연결시켜 보면 생명을 살리고, 지탱할 수 있게 하고, 지속할 수 있게 하고, 보전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1].

1) 이민 교회의 돌봄목회 역사 개괄

위와 같이 교회의 돌봄목회가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근거가 있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이 장에서는 먼저, 과거 개신교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해온 봉

---

[19]맹용길, *복지목회론*, 170.

[20]김명룡, *열린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33.

[21]맹용길, Ibid., 170.

사의 모습을 살펴보고 현재의 이민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계속적으로 존재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민 개신교회는 19세기 후반부터 외국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을 통해 사회복지 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선교사들은 초기부터 소외계층에 대한 선교정책을 확고히 수립하여 사회복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초기 선교사들의 사회봉사 활동은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에 역점을 두었다. 한국인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당시 한국사회의 심각한 욕구가 보건과 교육이라고 판단하여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을 택한 것이었다. 심령의 구원을 위해 선교의 한 방편으로 육신의 치료에 힘썼고, 무지를 계몽하여 새로운 세계를 밝혀 줌으로써 선교의 결실을 맺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선교 초기에 있어 한국 정부의 선교금지 정책을 순화시키기 위해서도 효과적이었다.[22]

19세기말 한인사회의 의료수준은 매우 열악하였다. 거의 모든 질병을 마귀의 소행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위해 마귀를 쫓아내기 위한 기도와 제물을 바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와 같은 의료적 암흑 시대에 기독교의 전파와 함께 발달한 서양의술이 도입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초기 한국의 선교사들은 내적 신앙의 체험을 강조하는 경건주의자 혹은 심령주의자들의 신앙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 파송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 선교사들의 신앙 형태는 경건주의적, 부흥회적 유형의 신앙이었다. 즉, 교회와 사회의 접촉 단절을 전제하고 방주적 개념을 기초로 하는 피안적 신앙이었다. 이러한 신앙적 특성으로 인해 사회문제의 원인을 근원적이고 구조적으로 파악하여 접근하기보다는 선교의 일환으로 동정적인 구제사업 혹은 박애사업에 치중하였다.[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에 의한 교육은 국민들에게 일제 치하에서의 민족의식과 민권의식을 갖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 결과 구한말과 일제시대에는 교회가 계몽운동과 애국운동에 적극 관여함으로써 사회운동차원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일제 식민지통치기간 중에는 농촌 개발사업, 농민 계몽사업들이 선교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는데, 농사전문지, 농사학교, 농사강습회, 신용협동조합운동 등을 통하여 선교과제를 실천하였다. 1932년에는 조선기독교협의회 사회신조를 제정하였는데, 이 신조에서는

[22]이만열, *한국기독교와 역사의식* (서울: 지식산업사, 1981), 12.

[23]Ibid., 191-192.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사회의 기초적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신조에서는 아동의 인격존중, 소년 노동의 금지, 여자의 교육 및 지위향상, 노동자의 교육, 노동시간 축소, 최저임금법, 생산소비에 관한 협동조합 설치 등의 구체적 실천방안들을 제시하였다.[24]

해방 후 60년대까지 우리 나라는 정부수립 및 한국전쟁으로 인한 혼란과 빈곤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심각하였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고아, 미망인 등의 요보호자가 급증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으로 고통을 받았으나 체계적인 복지제도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이 기간동안 외국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펼쳐진 고아원과 같은 시설보호, 물자구호 및 민간차원의 자선활동은 당시 한국 사회복지의 핵심을 차지하였다. 이때부터 전쟁 미망인과 고아들을 위한 전문 사회복지기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한국개신교회의 이러한 일련의 사회복지사업들은 전도사업을 간접적으로 촉진하여 교회의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5]

7, 80년대 한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외국의 원조도 점차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외국 선교단체가 맡았던 사회복지적 역할을 한국 정부와 교회가 담당하여야만 하게 되었다. 그러한 와중에서 한국 사회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지역간, 계층간의 소득격차와 상대적 빈곤을 심화시켜 새로운 차원의 사회문제들이 양산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복지제도는 폭증하는 국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교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민간부분의 복지체계도 외국원조의 철수와 함께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교회의 사회복지적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할 시점을 맞게 되었다.

9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 위기의 핵심은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고, 상당수의 교단에서는 감소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의 개신교회가 정체 내지 감소 상태에 빠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카톨릭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카톨릭교회는 한국의 개신교회의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한 80년대에도 고속의 성장을 이룩했다. 왜

---

[2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사회선교 지침.*” 1984. 9. 5. 제 69회 총회.

[25]박영호, *기독교와 사회사업* (서울: 예수교 문서선교회, 1979), 22-48.

그러할까? 한국의 많은 개신교회 지도자들은 소위 복음주의적 교회 성장밖에는 교회 성장의 가능성을 잘 알지 못한다. 전도를 강조하는 복음주의적 교회 성장 방식은 70년대에 대단히 큰 효과를 얻었고, 이 효과 때문에 많은 개신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방법에 심취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성장이 지금 벽에 부딪힌 것이다. 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카톨릭교회의 급진적인 교회 성장은 카톨릭교회의 이웃과 세상에 대한 책임적 행동이 많은 한국의 백성들에게 큰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 신뢰의 한 복판에는 김수환 추기경의 명동성당으로 상징되는 민주화와 사회정의를 위한 카톨릭의 활동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장애인들이나 소외된 이웃과 함께 했던 카톨릭교회의 봉사활동이 그 중심에 존재하고 있다. 교회는 이웃과 세상에 대한 책임성을 잘 감당할 때 그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게되고 성장하게 된다. 카톨릭교회는 1965년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이웃과 세상에 대한 책임성을 많이 강조했는데 이 정신이 전 세계의 카톨릭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이때부터 카톨릭은 전 세계에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다.

교회는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본질적인 과제를 갖고 있다. 이 두 과제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과제이다. 교회가 이 과제에 충실할 때에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 한국의 개신교회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교회의 과제인 또 한편의 중요한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봉사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의 핵심 부분이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성장하지만 동시에 이웃과 세상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할 때에 사회와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26]

2) 교회가 돌봄목회를 해야 하는 이유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서 순종해야 하는 대상이 세상이지만 현실적으로 개체교회 하나 하나가 온 세상과의 공조의 관계를 유지하기란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개교회는 공조해야 하는 대상을 불가불 그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로 그 범위를 한정할 수밖에 없다. 즉 개체 교회권내를 자기교구

[26]김명룡, *열린신학 바른교회론*, 36-37.

로 정하고 그 지역 사회의 모든 기관, 단체 및 주민 생활의 문제들을 교회의 문제로 삼아 그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27]

교회는 또한 독특한 삶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돕고, 그들에게 인간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어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은 긴장으로 인하여 침착을 잃고 만다. 감정적 혼란을 경험하거나, 잘 대처하지 못한다고 해서 정신병적인 것은 아니다. 이 때 교회만이 삶들로 하여금 위기에 의연히 대처하고 이겨내도록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있다. 이러한 도움은 자연적 인간관계를 통하여 주어진다. 다른 도시로 이주한 가족은 교회를 통하여 충고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喪)을 당한 가정은 이 슬픔의 시기에 교회의 위로와 후원을 받는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과부들을 돕는 사업을 벌이는 교회들도 있다. 직장을 잃은 가정, 화재나 홍수로 인하여 가옥을 잃은 가정, 큰 질병을 만난 가정들이 가옥, 음식, 의복 및 기타 도움을 받기도 한다.[28] 특별히 신명기 15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난한자, 고아, 과부, 의지할 데 없는 노인, 인생문제로 방황하는 자 등 여러 부류의 사람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회는 지역 사회에 공헌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서에서도 교회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찾게 된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근방에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과 요셉도 이방나라 애굽에 공헌하여 경제적 위기에서 구하였다. 신약의 초대교회를 위시하여 교부시대, 중세시대, 종교개혁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교회는 항상 지역사회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관심과 반응은 연쇄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심이 없는 곳에 반응도 없기 때문이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와 교회가 공조함에 있어서 교회는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구원사역의 주체이시며 세상은 언제나 객체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 세계 중심적인 존재가 됨으로써만이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다."[29]

---

[27]이장식, *현대교회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4), 415.

[28]H. J. 클라인벨 엮음, *교회와 지역사회,* 오성춘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1994), 74.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회적 관심의 영역에서, 긴장과 위기를 발생시키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에 참여하고, 자금을 내며, 능력 있는 일꾼을 파송하고, 목사와 지도자들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교회는 인종간의 대화 프로그램, 유치원 교육,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소, 알코올중독과 마약중독에 대한 교육, 성교육, 교회 개방, 이주민들의 건강과 교육을 위한 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30]

(1) 교회의 영적 활동과 봉사

한국교회 내에서는 아직도 "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지 사회사업 단체가 아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이 말 속에는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별하는 이원론적 사고가 그 배경에 깔려 있다. 이런 사고 즉 전도는 영적인 것이고 이웃을 돕는 것은 세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별하는 이원론은 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봉사는 교회의 본질적인 과제인 동시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활동이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의하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이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삶이라는 말이다. 성경은 장애인이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결코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사야 58장 6-9절에 의하면 주린 자에게 식물을 나누어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고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책임을 지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봉사는 많은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의 영적 활동의 바깥에 존재하는 부차적인 어떤 활동이 아니다. 봉사는 교회의 영적 활동의 핵심인 동시에 교회의 본질적 과제이다.[31]

(2) 교회의 우선적 행위로서의 봉사.

봉사는 교회가 행해야 할 본질적인 행위인 동시에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행위이다. 성경의 하나님의 보습을 살펴보면, 봉사는 교회의 본질적인 차원을 한 걸음 더

---

[29]핸드릭 크래머, *교회혁신의 신학,* 유동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2), 145.

[30]H. J. 클라인벨, ibid., 75.

[31]김명룡, *열린신학 바른교회론*, 32-33.

넘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과제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신이시오 주이시다... 고아와 과부의 인권을 세워 주시고 떠도는 사람을 사랑하며 그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로다"(신 10:17-18). 고아와 과부와 떠도는 헐벗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랑과 긍휼의 신이 참 신이시고 참된 주님이신 것이다. 헐벗고 배고픈 사람들을 외면하는 신은 가짜 신이고, 또한 이들에게 등을 돌리는 교회도 참된 교회가 아니다.

봉사는 교회가 행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가난한 자의 머리 위에 있고, 가난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역사 속에 급히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약한 자를 티끌에서 올리시고,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끌어내시는"(시 11:7) 분으로 정의되어 있고, "가난한 사람의 송사를 떠맡으시고 어려운 사람 등쳐먹은 자의 목을 조이시는"(잠22:23) 분으로 언급되고 있다.[32]

(3) 제자의 길로서의 봉사.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은 제자도의 핵심이다. 봉사는 교회의 본질적인 과제 일 뿐만 아니라 우선적 과제이고,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의 삶 자체가 봉사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이다. 교회의 삶이 봉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따르는 제자의 교회가 아니다.[33]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요12:25)고 말씀하셨다. 목숨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만 예수님도 귀하게 여기셨다. 목숨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천하와 비교할 만큼 귀한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

[32]Ibid., 34-35.

[33]Ibid., 35.

서 볼 때에 목숨을 버리는 것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아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상으로 항상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3) 교회가 복지목회를 이행하는 방법

맹용길 교수는 그의 책 「복지목회론」에서 교회는 복지목회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체로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교회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서 자체의 방법으로 이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가 직접 이행하지 않고 돈을 주고 위탁하여 이행하게 하는 형태로서 다른 사람이나 단체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필요한 인력을 모아 자원 봉사의 형식으로 복지목회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도와주는 형태이다.[34]

또 하나의 복지목회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이원규 교수는 복지목회를 이행하는 데 두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하나는 교회의 건물을 이용한 사회봉사와 또 하나는 교회 밖 현장활동을 통한 사회봉사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35]

---

[34]맹용길, *복지목회론*, 177.

[35]이원규,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1998), 310-311.

Ⅳ. 정의적 질문(Affective Basis)

1. 돌봄목회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

1) 돌봄목회는 교회 갱신에 좋은 방법이다.

한스 큉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저서에서 교회의 형태는 변해야 한다. 교회가 이론과 편견과 형식의 법규에 잡혔다면 급변하는 세계의 당면문제에 대처할 수 없고, 문제 해결의 계기를 얻을 수 없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혁하여 대응하지 못했을 때 쇠퇴하였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개혁하면서 대처해 나갔을 때 교회가 부흥 성장하였다고 한다. 지역사회봉사 즉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진실히 자라나고, 교회 안에 사정되어 있는 평신도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고, 섬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지역과 함께 하는 교회상이 수립되고 지역사회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갱신에 좋은 방법이다.

2) 돌봄목회는 가장 효과적인 선교방법이다.

지역사회 전체를 선교의 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역사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선교에 가장 큰 장애는 기독교에 대한 불신과 공신력의 실추이다. 이것을 타개하고 효과적으로 선교하는 방법이 바로 지역사회봉사이다. 불신자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로 모일 수 있게 함으로 그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 지역에 가서 교회의 좋은 모습을 선전하는 전도자의 역할까지 한다. 그래서 교회의 소문이 좋아진다. 전도의 문이 열려진다. 지역사회가 교회를 보는 눈이 좋아지고 성도들 중에는 지역 사회봉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나왔거나, 좋은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

3) 돌봄목회는 성도들의 신앙 성숙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 동안 한국교회가 외적인 성장은 가져왔지만 그것 자체가 교회의 성숙이 있느냐 하는 것은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숙한 교회로 계속 성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과제였다. 그러나 교회는 지역사회를 향한 구체적인 봉사의 실천을 통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즉 모이는 교회로서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받기만 하는 교인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이 있는 성도가 되기 때문이다.

4) 돌봄목회는 평신도 자원의 개발이 효과적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는 말씀은 평신도 신학의 근거가 되고 있다. 오늘의 성도들이 수동적인 집합체에서 능동적인 연합체가 되어야 한다. 모든 성도들을 강한 동기부여와 목표 설정부터 함께 참여하고 직무를 분담하여 능력에 따른 은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하므로 교회 안에 사장되어 있는 인력을 개발할 수 있다.

5) 돌봄목회는 교회의 조직활성화에 좋은 방법이다.

모든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의 구원활동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것이지만 그 교회마다 특성이 있다. 교회의 성분이나 교회가 위치한 지리적 사회적 환경에 따라 조직이 다르고 지도자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교회의 특성에 따라서 조직도 달라져야 하고, 지도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교회는 관료주의적이고 카리스마적인 전제형 지도 방법에서 민주적인 조직 운영 방법이 효과적이다. 교회의 구조 형태는 피라미드형 모델보다는 사각형 모델이 더욱 적합하다고 본다. 교회는 많은 교인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마련해 주며 모든 재능은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당회가 잘 되어야 한다.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이들이 조직화됨으로써 교회의 기존 조직이 가진 경직성을 깨뜨리고 활성화하게 된다. 교회의 여러 기구와 조직들이 조직을 위한 조직에서 봉사와 활동을 위한 조직으로 전환된다.

6) 돌봄목회는 지역과 함께 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 동안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 있으면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고, 지역사회 역시 교회에 대하여 무관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서로 경원시하고 대립하고 갈등에 이른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불신과 불화의 관계를 지역사회 봉사를 통하여 명실공히 지역의 센터로서 인식하고 더 이상 남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지역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교회의 지역사회 봉사를 통하여 교회는 참 교회, 성숙한 교회, 발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36]

---

[36]이명선, "*한국교회와 지역사회 봉사.*" (제82회기 총회 사회부 신학생 사회선교훈련 교재) 미간행, 1998, 87-88.

Ⅴ. 역사적 질문(Historical Basis)

1. 21세기 미래사회의 변동과 복지목회의 이행 구상

1) 21세기 미래사회의 변동

인류는 과거와 현재를 연구 분석하여서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보다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하도록 준비해 오고 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계획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많은 단체들의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통하여 목표설정과 계획수립을 잘해야만 한다. 지금은 20세기를 마감하고 제 3의 밀레니엄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다가오는 21세기를 예측하고 분석해서 철저히 대응할 준비를 하여서 21세기에 살아남을 교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로 지향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나이스비트(Naisbitt)는 미래에는 자본보다는 지식과 두뇌가 중요하게 되고 데이터의 정보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고도의 기술이 발달하면서도 감성이 중요해 지고, 권력이 분권화 되면서 다원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37] 이와 비슷하게 엘빈 토플러(Toffler)도 오늘날은 농업혁명의 제1의 파도와 산업혁명의 제2의 파도에 이어 기술과 정보혁명의 제3의 파도가 일고 있으며, 앞으로는 유전자 산업, 전자산업, 정보산업이 사회를 압도할 것이라고 보았다.[38] 또한 21세기에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이 크게 발달할 것이다.[39] 정보, 통신 기술이 크게 발달하게 될 것이고, 반도체 기술이 크게 향상되어 인공지능 컴퓨터가 보편화 될 것이다. 그리고 신소재가 개발되고 첨단 소재가 활용될 것이며, 우주산업이 발달하여 우주개발이 성취될 것이다. 21세기는 과학과

---

[37]John Naisbitt, 서문호 옮김, *제 4의 물결* (서울: 원음사, 1983) John Naisbitt and patricia Abuedene, 김홍기 옮김, 『메가트랜드 2000』(한국경제신문사, 1990), 18-21.

[38]Alvin Toffler, 김태선, 이귀남 옮김, *제3의 파도* (서울: 홍성사, 1987), Toffler, 이부행 옮김,『예견과 전제』(한국경제신문사, 1991), 18-21.

[39]김명자, *현대사회와 과학* (서울: 동아출판사, 1992), 20.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생활이 편리해 지고 정치적, 경제적 여건도 호전되겠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과학이나 정치, 그리고 경제적 여건의 호전이 결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근자에 와서 우리는 세계화라는 말을 귀에 익도록 들어왔다. 1964년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마샬 맥루한(Marshall McLuhan)교수가 그의 저서 『매체의 이해』에서 지구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지구촌이라는 말은 이미 상식화된 용어가 되었고, 여기서 지구화(globalization)의 개념이 발생하게 되었다. 지구화(globalization)란 문자 그대로 지구 전체를 하나의 단일체제로 만들어 가는 과정과 현상을 의미한다. 즉 지구가 하나의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지구화(globalization)는 급속하게 시장경제 개념으로 발전하여 세계 전체가 하나의 시장체제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40]

20세기 말, 전 세계는 탈냉전과 함께 가속적으로 지구화로 탈바꿈하였다.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미국과 소련은, 소련의 붕괴로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생존하게 되었으나 경쟁상대를 잃은 미국도 독자적인 세계 지배의 능력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는 이데올로기의 명분을 상실하고 국익 우선의 경제정책이 최우선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미래라는 시간은 예측을 불허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이며, 탈냉전과 함께 국가 분열로, 세계는 점점 자국 이기주의와 민족 분리주의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원심적 분리와 구심적 통합이 불가피하게 되자, 세계를 하나의 단위로 묶는 여러 경제 블록을 위시한 집단체제들이 우후죽순처럼 형성되고 있다. 탈냉전과 미래 세계는 21세기의 세계가 향하여야 할 방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41] 이러한 분열과 통합의 이중구조, 이데올로기의 종식과 세계로의 방향성 상실이 우리가 목회해야 할 21세기라는 미래 사회이다.[42]

2) 21세기 한국사회의 변동

---

[40]이성희, *미래사회와 미래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1997), 17.

[41]이원설, *21세기 목회환경 변화의 주된 특성,* “목회와 신.”(1995년1월), 50.

[42]이성희, ibid., 18-19.

이와 같은 미래사회의 일반적 변화 외에도 21세기 한국사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독특한 변화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1) 경제적 여건

지금은 우리 경제가 침체되어 있으나 그 동안 쌓아온 성장잠재력과 높은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기업가 정신을 새롭게 되살려 나간다면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43]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물질주의적이고 소비주의적인 가치관은 계속될 것이며 경제구조와 관련되어 사회분화는 계속될 것이며 비윤리적인 가치관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소외 계층이 계속 나타날 것이며 이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이고 상대적 빈곤과 소외가 증대되어 복지 욕구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히 표출될 것이다.[44]

(2) 남북통일

남북통일은 그 시점의 예측이 어렵고 또한 통일의 방식이나 조건이 어떤가에 따라 그 대책이 달라지겠지만, 점진적으로 통일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 아마도 21세기에는 어떤 형태로 인지 모르겠지만 외형적 통일이 완결될 것이다.[45] 그러나 현재 남한과 북한은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의 접근방식과 관리운영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국가 완성을 위한 과도기에는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서로 다른 사회보장제도가 통합됨에 따라 새로운 복지수요가 나타날 것이다. 특히 사회주의체제하에 있던 인구집단의 새로운 체제에 대한 적응, 북한지역주민의 대량실업사태에 따른 사회불안의 극복, 그리고 통일 후의 지역간 편차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수요 등이 새롭게 제기될 것이다.[46]

(3) 가족, 인구구조 및 기능변화

---

[43]이상용,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방향,* "총회 사회부 신학생 사회선교훈련교재."(미간행,1998), 29.

[44]최창무, *21세기 한국사회와 교회 사회복지활동의 사목적 전망,* "카톨릭 사회복지." (1995, 가을), 64.

[45]Ibid., 64.

[46]이상용, op.cit., 31.

가족구조는 점차 다세대 가족이 감소하여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무자녀 맞벌이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소가족화 또는 핵가족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가구의 구성원수 감소와 전체 가구수의 증가로 주택수요의 증대 및 기타 복지수요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인구구조는 출산율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령화 현상이 가속될 것이며 인구증가율의 감소로 2021년에는 인구증가가 정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에 평균수명은 '91년 현재 남자 67.7세, 여자 75.7세에서 2020년에는 남자 75세, 여자 79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추이에 따라 한국의 인구구성의 고령화는 사회, 경제의 각 방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국민생활 전체에 변화를 가져올 요인으로서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

(4) 산업화, 도시화, 지방화 시대

95년에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으로 지역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지역주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형성되면서 지역 특수성이 반영된, 다양한 복지욕구가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지방재정의 취약성 때문에 지역간 복지자원 및 시설의 차이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형평성 문제로 지역복지 욕구가 충족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산업화 및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환경공해, 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복용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의 발생증가에 따라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또한 도시지역에서는 인구의 과밀, 공해문제, 생활문제 등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이 복지수요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47]

분명히 21세기에는 20세기와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21세기의 사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것이다. 한국교회가 진정 한국과 지역사회에 봉사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급변하게 될,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21세기의 미래의 한국 상황을 전제로 하고 복지목회를 통하여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21세기에 대처할 교회의 돌봄목회구상

[47]Ibid., 30-31.

그렇다면 이러한 미래사회의 변화 속에서 미래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될 것인가?

(1) 21세기에 일어날 교회의 변화들

a) '하나님의 나라'에 근거한 교회를 정립, "하나님 나라"운동으로 교파운동이나 개교회주의는 교인들과 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교회의 일치와 통합이 강하게 일어나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b) 선교의 개념의 변화와 함께 선교의 다원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미래사회의 교회는 교회의 선교나 교회자신을 위한 선교, 교회성장을 위한 선교를 지양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나,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포괄적이고 입체적이며 통합적인 선교개념을 정립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개인전도와 사회선교의 통합, 선교와 봉사의 통합, 해외선교와 국내선교의 통합, 다원화사회에서의 특수선교 등으로 다양한 선교방법이 활발해질 것이다.

c)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교회의 디아코니아 사역이 더욱 더 강화될 것이다.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교회가 선교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본질적 사명이 더욱 더 강화될 것이다.

d) 세상이 급변하는 가운데 기성교회의 영성이 황폐해진 후에 제3의 교회에서 영성강화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영성강화 운동은 현대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초문명적인 성격으로 나타나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될 것이다.

e) 평신도와 여성의 역할이 증가될 것이므로, 전형적 목회자와 남성우위의 목회, 일인중심(일원적 목회)의 목회는 어려울 것이다.

f) 개인주의의 발달로 인한 "교회 없는 교인"들의 증가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g) 개인의 공동체성을 강조할 것이며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조직이 경직된 교회, 권위주의적 목회자의 맘모스 교회의 퇴조와 작은 교회들이 교회의 기능을 극대화하게 될 것이다.

h) 제3세계의 성장과 함께 세계교회의 리더쉽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i) 종말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현실 도피적인 현상도 나타날 것이다.

j) 전통적인 가정 붕괴의 증가로 인한 독신가정, 결손가정, 이혼가정이 증가하여 핵가족 제도까지 위기를 맞을 것이다.

k) 생명경시풍조에 대응하는 생명신학운동의 확산이 일어날 것이다.

l) 오순절 계통의 은사운동이 제3세계를 중심으로 크게 일어날 것이다.

m) 종교 다원주의가 보편화되어 갈 것이다.

n)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다.

o) 탈종교화 현상과 무신(無神)주의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p)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운동으로 작은교회를 선호한다.

q) 복음주의 운동이 주류교회 안에서 일어난다.[48]

(2) 미래에 생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돌봄목회

돌봄목회는 미래를 위한 목회이다. 왜냐하면 미래는 돌봄을 향해 가기 때문이다. 사실, 돌봄을 향해 가고, 적어도 돌봄을 향해 가려고 노력한다. 사람들은 더 좋은 삶, 즉 더 살기 좋은 미래를 향해 가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향해 가려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돌봄목회는 미래를 더 좋은 미래로 구상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목회라고 한다. 오늘 우리는 더 좋은 삶의 씨를 뿌리고 잘 성장시켜 더 좋은 삶의 결실을 거두려고 한다. 돌봄목회는 바로 이것을 위해 좋은 씨를 구하여 심고 잘 자라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 실천하며 더 좋은 결실을 하도록 도와준다. [49]

a) 새로운 세기를 위한 교단의 지향

21세기의 변화된 삶의 환경이 가져온 위기적 상황은 우리에게 변화되지 않은 인간의 죄성에 대한 자각과 함께 오늘 이 시점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새로운 선교적 지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

[48]하워드 A 스나이더, *21세기 교회의 전망,* 박이경, 김기찬 역, (서울: 1996), 189-191.

[49]맹용길, *복지목회론*, 287.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복음진리에 기초하여 위로부터의 자기 성찰과 아래로부터의 변화욕구를 수렴하고 포괄하는 중심으로부터의 영적 갱신을 지향한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복음의 능력으로 세기말적인 죽음문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천년을 위한 상생(相生)적 생명(生命)문화를 건설한다.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선교의 목표인 평화에 기여하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하여 먼저 교회 내부에서부터 지역간, 계층간, 집단간의 갈등구조를 극복하는 일치와 화해의 공동체를 지향한다.

넷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에큐메니칼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별, 선교분야별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세계교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므로 구체적인 선교의 현장에서 연대적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에큐메니칼한 교회문화의 정착을 지향한다.

다섯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전인적 복음을 전세계에 전파하고 실전하기 위하여 삶의 현장을 선교현장화하고 전교인을 선교요원화하는 삶과 예배의 통전을 지향한다.

여섯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경제신학과 경제윤리에 입각하여 대안적인 경제체제와 삶의 모델을 개발하고 실천하므로, 자본의 힘에 의하여 인간성과 생명이 유린당하는 이 시대에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신앙의 실천을 지향한다.

일곱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므로 기독교적 자아정체성을 지닌 인간, 더불어 함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인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역사적 책임을 수행하는 인간의 형성을 지향한다.[50]

b) 새로운 세기의 총회와 노회의 역할

총회는 대 사회 및 국가관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선교적 대응을 위해 기독교 전문인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기독교적 대안 모색을 위해 연구하며 사안별

---

[50]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1세기교단발전정책개발위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생명공동체,* (제83회 총회 회의안 및 보고서 별책, 1998), 6-8.

로 해당 연합기관, 교단, 노회, 상임부서 및 위원회와 협력하여 실천적으로 대응한다.

총회는 21세기의 변화하는 상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평가제를 도입하여 매 5년 단위로 교단차원의 종합평가를 실시하므로 시대적 상황과 복음선교 정신에 부합되도록 정책을 수정보완하고, 이에 수반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총회가 되도록 한다.

노회는 총회가 결정한 주요한 정책과 사업을 집행하고, 적합한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미자립교회를 육성할 뿐만 아니라, 특수선교 영역을 확장하여 노회가 위치한 지역을 복음화 하는 선교공동체로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한다.

노회는 사회봉사 선교를 위한 지역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관할지역의 사회봉사 선교를 주도한다.[51]

c) 새로운 세계의 교단정책사업 개관(제1단계 2020년까지)-사회선교

교회가 지금 여기 이 세상 속에서 살아 있는 신앙을 사람의 행동으로 증거하는 행위인 사회선교는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대사회적 책임수행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뜻하며, 이것은 사회봉사와 사회사업, 그리고 사회행동과 사회운동으로 이루어진다. 70년대와 80년대를 거쳐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 사회는 절대빈곤을 극복하고 민주화를 달성하였으나 아직도 갖가지 사회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교회의 책임 있는 응답을 위하여 교회의 사회선교 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a. 교회의 재정구조 갱신과 사회선교기금 조성

증대되는 사회선교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는 최소한 예산의 10% 이상을 사회선교 분야에 배정하고 그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나간다. 아울러 교회는 사회선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선교 기금조성을 위한 운동을 교단의 물적 자원 개발과 연계하여 전개 한다.

b. 교회시설의 개방과 신설(1교회 1봉사관 운동)

교회는 사회선교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시설들을 지

---

[51]Ibid., 9-11.

역사회를 위해 최대한 개방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봉사관을 마련한다.

c. 사회선교를 위한 교회조직의 갱신

사회선교의 사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회와 지교회에 사회선교를 총괄하는 부서나 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선교 담당목사나 실무자를 임명한다. 또한 구역 조직과 남선교회, 여전도회, 청년회 등이 특정한 사회선교의 영역들, 이를테면, 환경선교, 의료선교, 장애인선교, 노인선교 등을 전담하도록 조직을 활성화하고, 긴급한 재난시에 기동성 있게 봉사활동에 나설 수 있는 자원봉사단을 조직한다.

d. 사회선교 교육훈련과 인적 자원의 개발

사회선교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총회 산하 각 신학교에 사회선교와 관련된 과목들을 개설하며, 총회훈련원 주관으로 교회사회복지사 훈련과정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선교지도자 훈련 및 자원봉사자 훈련 등을 실시한다.

e. 사회선교를 위한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사회선교협의회를 강화하고, 사회복지 시설장들의 협의회를 비롯한 사회선교 전문분야별로 협력망을 구축한다. 또한 총회산하 전국교회의 다양한 전문인력 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사회선교 분야별로 조직화한다. 사회선교를 위한 전사회적 협력을 위하여 교회는 건전한 타종교나 시민운동 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적으로 창출해 나간다.

f. 지속적인 사회선교 정책의 개발과 보급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새로운 사회선교의 과제들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하여 총회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연구사업과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발된 정책은 효과적으로 전국교회에 전달되고, 선교현장에서 구체화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총회는 선교현장과 협력하여 보급, 사회선교를 위한 세계교회와의 교류협력, 사회선교 정보자료실 운영,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상담실 운영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52]

---

[52]Ibid., 17-19.

4) 21세기 교회의 돌봄목회 실천방안(프로그램)

교회에서 앞으로 역점을 두고 시행하려고 하는 돌봄목회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새로운 사회문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노인, 장애인, 및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인데 이와 같은 경향은 바람직한 대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지역사회나 사회전체의 복지욕구나 요청에 반드시 부합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민간자원복지단체로서의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①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생계유지 및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것)중에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②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문제나 욕구로서 해결이 시급히 요청되는 것: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오고 표면적으로 잘 알고 있는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 예를 들면 마약문제, 장애인 재활문제, 노인여가활동 문제, 탁아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특수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없지만 훈련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것: 외국에서처럼 교인 중에 사회복지(사회사업)의 교육을 받은 전문가나 또는 특별한 서비스의 전문가가 전적으로 사회봉사사업을 자원하여 전담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정식직원(유급)으로 그러한 사람을 채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나라의 교회에서도 교인중의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거나 유급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우리 나라 교회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교인들이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것: 어떤 사업이 적합한가는 지역사회조사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일회적인 것 보다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일회적인 것(예를 들면 위문방문 같은 것)은 교회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도하면서 전도의 대상으로 삼기 어

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한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도 일회적인 접촉이나 관심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상으로 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나 욕구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물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경우에 따라 특정 개인이나 특정단체에 교회가 사회봉사비용이나 봉사활동을 집중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지역사회나 국가사회의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데에 너무 집착하여 제공하는 물질의 양이 너무 적거나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⑦ 최저한의 생계유지나 일상생활유지의 이상의 욕구인 경우는 가장 공통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 교회가 국민의 기본적인 문제나 욕구가 아닌 그 이상의 공통적인 문제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공통성이 많은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판단은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통하여 발견 할 수 있다.

⑧ 필요한 경우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도 무방한 것: 교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경우에 따라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사회복지는 언제나 무료가 아니다. 교회가 이익을 취하지 않는 한 실비나 또는 비용의 일부를 받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서비스 질도 높일 수 있고 책임성도 강하게 하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자를 신뢰하게 할 수도 있고 서비스 받는 자세도 진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Ⅵ. 사회적, 문화적 질문(Socio-Cultural Context)

본 장에서는 현재 한국교회에서 실천되어 있고, 그리고 미래사회에서 더 확대 되어야할 돌봄목회 프로그램을 정리하여 보았다. 특히, 미래 사회에 교회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행하기 바람직한 돌봄목회 중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미래 교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사회부가 펴낸 「교회사회봉사 총람」(1993)에 나타난 교회 사회봉사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① 아동복지 ② 노인복지 ③ 청소년복지 ④ 장애인복지 ⑤ 부녀자복지의 순으로 많다.

그리고 분야별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어린이 선교원 운영과 탁아사업이 제일 많고,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노인대학과 양로원방문이 제일 많고, 청소년복지 분야에서는 장학사업과 공부방이 제일 많고,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시설방문과 재활교육이 제일 많고, 부녀자복지 분야에서는 미혼모시설 운영과 주부교실이 제일 많고, 공통적 부분에서는 빈민구호, 무료 의료진료, 신용협동조합이 제일 많다.[53]

1) 사회 행동적 프로그램

모든 사람의 마음을 미혹케 하는 사회악을 퇴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건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켐페인(예를 들면 과소비, 퇴폐풍조, 공해추방과 같은)과 소비자 운동, 새생활 공동체 운동, 사고 및 재해 방지를 위한 운동, 도.농간 직거래, 우리 밀 심기 운동, 교육프로그램인 노인학교, 주부교실, 근로자 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들 수 있

---

[53]김동배, *교회 사회봉사 사업의 실태,* "교회 사회봉사 총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편,1994).

다.[54]

2) 대인 사회적(상호관계적) 프로그램

긴급구호자와 노인, 장애인, 결손가정, 미혼모, 재소자와 출감자, 도시빈민, 윤락여성, 알콜 및 마약중독자, 비행청소년, 도박자 등을 위한 각종 상담과 교육, 무료 급식소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55]

놀이방, 공부방, 양로시설, 장애자나 무의탁자들을 위한 소규모 시설, 미혼모의 집, 출감자의 집, 청소년 선도의 집 등을 운영 지원할 수 있다.[56]

3) 문제 발생별 프로그램

21세기는 경제.과학.정보.생활 등의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반면에 그러한 발전과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외되고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미래사회는 더욱 핵가족화 되어갈 것이며, 평균수명은 연장될 것이고, 또한 이혼의 급증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의 일반 사회적 문제는 가족의 해체와 자녀 및 부모(노인)의 봉양과 교육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급속도의 경제성장과 과학과 통신의 발달로 온 세상이 하나가 될 것이며, 심한 무력감에 빠지게 할 것이다. 이외에도 교통의 발달로 온 세상이 하나가 될 것이며, 독립국가는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한 자국의 이익과 경제 논리가 대두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교회는 예견된 사실에 따른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그러한 준비를 한 교회만이 21세기를 주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54]한상호, *본당 사회복지 활동의 방향*", "카톨릭 사회복지." 제3호(한국천주교주교회 사회복지 위원회, 1994), 14-16.

[55]정진모, *한국 천주교회 사회봉사 활동의 발전을 위한 제언*, "사목."(1996.12), 45.

[56]Ibid., 46.

(1) 가족 상담 서비스

과거의 대가족 사회에서는 가족관계의 문제를 중재하고 화해할 수 있는 체계가 가족 안에 있었으나, 부부중심의 핵가족 사회에서는 가족 문제를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체계가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새롭게 가정을 시작하는 젊은 부부들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 갈등, 성격이나 태도의 이해 부족 등으로 자주 마찰을 겪을 수 있다.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교회 내에 가족상담 전문 부서를 설치하여 수시로 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부부성장세미나, 가족치료 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신자 가정들이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57]

(2) 부녀복지 서비스

우선 늘어나는 근로 여성들의 복지를 위하여 영유아보육(탁아)사업이 필요하며, 또한 미혼모와 윤락여성을 위한 상담과 직업안내, 결손가정을 위한 결연사업,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회운동에 단체로 참여하여 여성문제 예방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3) 노인복지서비스

노인문제를 위해서는 노인복지센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시설은 전문 직원의 지도하에 노인들에게 오락, 성인교육, 건강진단과 건강의 상담 서비스, 노인클럽과 사회복지 단체결성, 노인스포츠 보급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노인 단독세대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교회내 자원봉사자를 동원, 파견하여 가사보조, 말벗, 외출지원, 식사배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결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프로그램, 양로원 및 경로당 운영, 노인대학, 노인취업과 부업의 알선, 임종노인의 호스피스, 시설방문과 지원 서비스 등을 생각할 수 있다.

4) 복지 형태별 프로그램

교회에서 앞으로 역점을 두고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은 전반적으로 새로운 사회

---

[57]김성철,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일 고찰*, "기독교사회복지."제2호(1992), 49-50.

문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노인, 장애인 및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일 것인데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3〉과 같다.[58]

〈표3〉 미래 교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돌봄목회 프로그램

대 상	도시지역	농어촌지역
아동 복지	*유아원 및 유치원 운영 *5세 미만 아동의 탁아(보육 서비스) *맞벌이 부부 가정의 국민학교 아동 방과후 지도 및 보호 *공부방 운영 *어린이 도서관 운영 *불우아동 결연	*유아원 및 유치원 운영 *농번기 탁아 서비스 *공부방 운영
청소년 복지	*청소년 생활 상담 *소년소녀가장 가정결연 후원 *독서실,공부방 운영 *성교육 프로그램 *대학예비교실 운영 *캠프 집단지도	*청소년 독서(도서)실 운영 *청소년 건전놀이 및 노래지도
노인 복지	*노인학교(대학) 운영 *교회에서 무료식사 제공 *경로당 운영비 제공 *시설(양로원 및 요양원)운영 *거택보호 노인 결연 후원 *가정봉사원 서비스 *이,미용 서비스 *경로 잔치	*경로 잔치 *이,미용 서비스 *노인학교(대학)운영 *노인 공동사업 *도시교회 노인학교와 자매결연
장애인 복지 여성 일반복지	*시설장애인결연 후원 *여성 교양교육 및 취미교실 *무료진료 및 의료상담 *복지단체 자원봉사 *건전한 집회를 위한 교회개방(결혼식, 주민모임, 만남의 장소 등) *무료 셔틀버스 운행 *정기적 알뜰시장 *법률 및 소비자 상담 *환경보전 운동	*여성 교양강좌 *주민도서실 운영 *농산물 공동 수매 *신용협동조합 *신앙(건전) 영화, 비디오 상영 *소득증대 사업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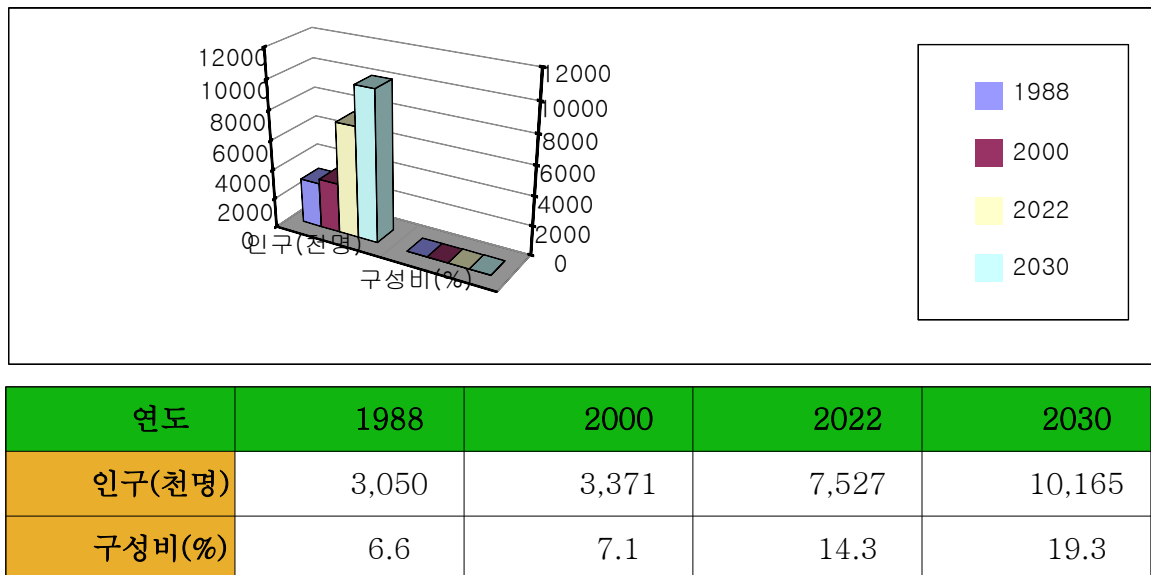
[58] 최성재, *교회 사회봉사 사업의 계획과 실천*, "교회 사회봉사 총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편, 1994).

2. 미래 교회에서 수행해야 할 돌봄목회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는 미래의 교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복지목회프로그램 중 특히 노인복지목회 프로그램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으로 21세기에 들어가면 우리사회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생활개선과 수명의 연장으로 고령노인수가 더욱 크게 증가될 것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으로 사망률이 줄고 수명을 연장시켜 노인인구의 절대 수와 비율의 증가를 가져왔다. 1960년에 불과 52.4세에 불과하던 전국민의 평균수명이 1980년에는 65.8세로 늘어났으며 1995년에는 73.5세까지 늘어난 바 있다. 평균수명은 2000년의 74.9세를 거쳐 2020년에는 78.1세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1998년 현재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6.6%인 305만명이나, 2000년에는 7%를 넘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고, 2022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표 4 > 65세이상 노인인구의 증가 추이

연도	1988	2000	2022	2030
인구(천명)	3,050	3,371	7,527	10,165
구성비(%)	6.6	7.1	14.3	19.3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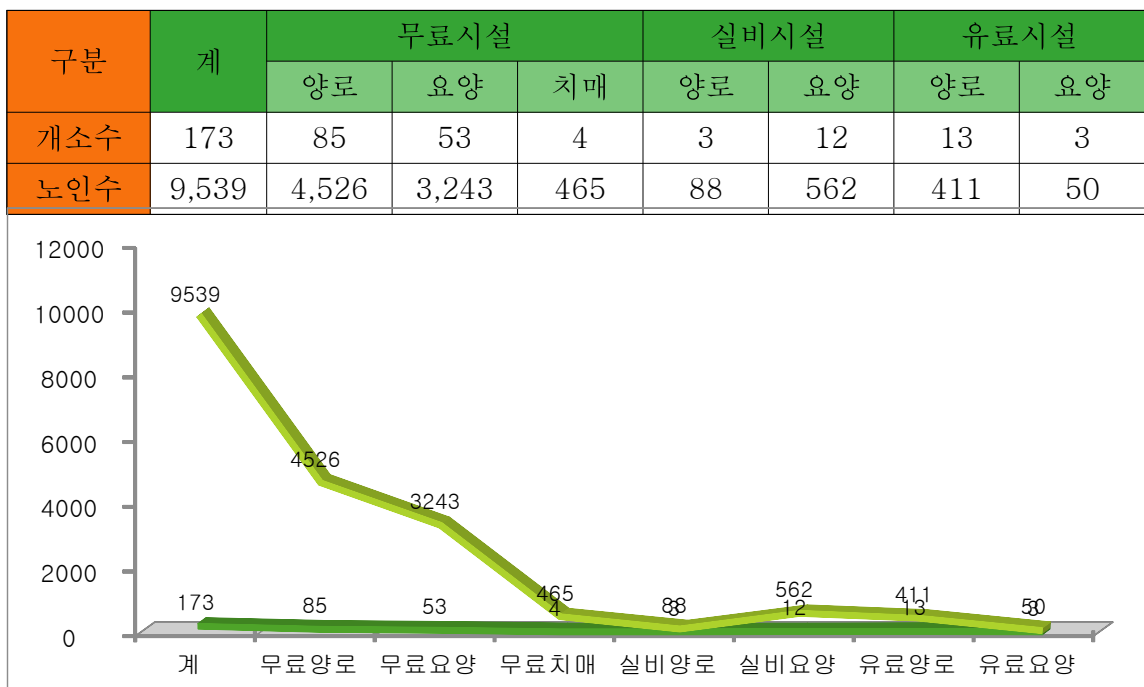
이와 같이 미래사회는 노인의 수명이 길어져 고령의 노인이 많아지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교회에도 노인의 수가 많아지게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여기에 미래사회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수행해야 할 노인을 위한 복지목회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별히 주간보호 프로그램에 관하여는 좀더 다른 복지목회프로그램보다는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먼저 실제 도움선교회를 통하여 양로 사역을 하면서 노인을 위한 양로원 양로호텔, 양로병원등의 프로그램에 직접 인도하며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을 때 느낀바가 각별히 많았기 때문에 양로 사역과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도움 선교회(대표 선병회 목사)는 '구정맞이 양로 대잔치'를 2월2일(토) 오전 10시 터스틴 양로병원에서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백선용 목사의 찬양인도, 선병희 목사의 사회로 시작, 송삼용(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의 기도, 노진걸(훌러튼 장로교회 담임)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2부 순서는 코미디언 출신 이순주 전도사의 진행으로 서동화 서제인 자매의 피아노 바이올린 연주, 오혜숙 권사의 찬양무용, 선제인 자매의 태평무와 부채춤, 이준호 집사의 섹스폰 연주로 진행되어 참여한 모든 노인들에게 한 아름 즐거움을 선사했다.

1) 양로원 목회 프로그램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노인의 지위가 확고하였고 현재 노인의 역할이 없어지고 쓸모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지만 심지어 수년 전 한창 학생데모가 심할 때 노인들이 앞장서서 저지하니까 스스로 물러난 사례도 있다. 우리 나라의 노인 복지 정책은 「선 가정 보호 후 사회 보장」으로 일관되어 왔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시설은 매우 미약하여 수용 인원이 절대 부족한 것은 물론 일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시설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기껏해야 노인정에서 소일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실정이다. 현재 주요한 노인 복지 시설로는 양로원, 요양원, 노인복지회관 정도이다. 1997년 12월말 현재 173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무료시설이나 실비시설에 수용보호되고 있거나 유료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이 9,539명에 이르고 있다.

< 표 5 > 노인복지시설 현황(단위: 개소수, 명)

구분	계	무료시설			실비시설		유료시설	
		양로	요양	치매	양로	요양	양로	요양
개소수	173	85	53	4	3	12	13	3
노인수	9,539	4,526	3,243	465	88	562	411	50

자료: 노인복지시설 도표

1998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30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므로 노인인구 중 0.3%만이 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95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1,823만 명 중 1.7%인 31만 명이 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93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5.1%에 해당하는 노인이 보호받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라고 하겠다.[59] 양로원 목회는 우선 시설 노인들이 모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다. 양로원의 프로그램 중에는 예배, 성경공부, 찬양, 기도를 필수적으로 넣고 대외적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회보도 발간하여 다른 양로원들과 유대를 갖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더 나아가서 교회의 노인들에게

---

[59]보건복지부노인복지과장, *1998 노인복지시책* (보건복지부 국립사회복지연수원 노인복지시설생활지도원반교재, 1998), 4-5.

양로원 생활을 소개해 주고 노후 생활에 대하여 상의하여 보람있는 생활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여 노인 생활을 개선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교회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2) 호스피스 목회

호스피스란 비록 의학적으로 치료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라도 끝까지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하고 남은 삶을 풍성하고 의미 있게 살도록 지지하는 프로그램이다. 호스피스의 활동은 암말기 환자에게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을 조절하고 경감하는 사랑의 보살핌이며, 기계 장치 속에서의 생의 마지막을 외롭게 보내게 하는 대신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정든 환경에서 인간적인 사랑과 친절 속에 살게 하려는 노력이다. 노인들은 배우자나 친한 친구와의 사별에서 오는 고독과 죽음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위기에 직면하기 쉽다. 특히 임종을 예견하는 시한부 환자의 경우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 임종까지의 삶을 포기하려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 시기야말로 생(生)과 사(死)라는 엄숙한 문제의 정점에 서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으로 이 세상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환자의 가족이 다함께 죽음을 엄숙한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죽음은 인생의 최후가 아니라 다음 삶으로 이어지는 삶의 변화의 과정임을 정성을 다하여 도와주어야 한다.[60] 호스피스 프로그램이야말로 미래의 교회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복지목회의 사역이다. 만일 교회가 진심으로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들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요구를 교인을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교육시킨 후 교육 훈련받은 호스피스들을 중심으로 임종을 앞둔 노인들에게 신앙생활을 지도하여 내세를 준비하게 도와주고, 그들의 생애를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3) 재가복지 봉사센타 운영

[60]정지웅외, *기독교와 사회복지* (서울: 도서출판예안, 1995), 185-186.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학생들이나 성도들이 노인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을 이해하고 공경하며 또한 노인들로 하여금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재가복지 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a) 정서적 서비스- 말벗, 신문이나 책 읽어주기, 외출, 산책 돕기, 노래하기, 어깨 주물러 드리기.

。먼저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을 알아보고 그 일을 하는 일을 알아보고 그 일을 한다.

。주로 대화나 신문, 책 등을 읽어 주며 인간적 교류와 접촉을 맺는다.

。외출이나 산책이 필요할 경우 2인 이상이 부축하거나 휠체어나 기타 기구를 이용하여 돕는다.

b) 가사 서비스- 안마, 청소 취사, 세탁, 잔심부름

。고령이면서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많이 활용된다.

。안마나 청소는 조심스럽게 조용히 한다.

。세탁물은 가능하면 집으로 가져가서 세탁 후 다음 방문 기회에 제공한다.

。잔심부름의 경우 그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알고 실시한다.

c) 사회적 서비스- 행정업무 대행, 나들이 동행

。간단한 행정업무는 본인이 직접 해결하고 복잡한 업무는 지도교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나들이 동행시는 노인이나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행하고, 휠체어나 부축 등을 위하여 2인 이상이 짝을 이루어 돕는다.

d) 병간호 서비스- 병원 및 보건소 안내, 병문안

。병원이나 보건소 등을 안내하며 수속한다.

。병원에 입원환자를 문안할 때에는 정숙하고 조심스런 행동을 한다.

。가정 문병일 때에는 간단한 위문품을 준비한다.

e) 대인적 서비스- 목욕, 의복손질, 생일잔치 열기

。가정에 욕실이 있는 경우에는 주 1-2회 정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일잔치는 집으로 초대하여 여는 방법과 가정을 방문하여 여는 방법이 있

다.[61]

3. 데이케어(Day Care) 프로그램(주간보호 프로그램)

데이 케어란 우리 나라 말로 직역하면 주간보호시설, 탁노소, 탁아소 등에 해당한다. 그 의미는 통원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인데 즉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62]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시설이 유아원 즉, 놀이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데이 케어 센타' 또는 '데이 서비스 센타'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등이 데이 케어 센타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

1) 데이 케어 목적

데이 케어의 목적은 가정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허약한 노인이나 장애노인에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생활을 벗어나 자립 생활과 심신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예방 및 원조하여 주는데 있다. 또 하나의 목적은 허약한 노인을 부양하며 한시도 노인 곁을 떠나지 못하는 보호자들의 수고와 노력을 덜어주는 데에 있다.

2) 데이 케어 필요성

데이 케어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단독세대가 증가하고

---

[61]현외성, *중고등학생 자원봉사활동* (서울: 유풍출판사, 1996), 135.

[62]한국노인복지, *노인복지법령*,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1998), 42.

여성의 사회진출과 이에 따른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만성퇴행성 질병ㆍ출장등 일시적으로 노인을 보호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장시시설이 아닌 가정과 중간형태인 일시시설이 필요한데 바로 주간보호시설이다.

3) 예산지원

지원기준-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 일부를 다음 비율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한다.(단, 사업비 부족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구고 40%, 지방비 60%

4) 사업내용

사업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취미ㆍ오락ㆍ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와 장애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등이 있다.

5) 이용방법

우선적으로 사업기관과 이용자간의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노인은 무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식비 등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실비징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비용수납에 있어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에게 수납신고 후 수납이 가능하다.

6) 이용절차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노인의 신원,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파악하여 그 필요성을 검토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요구되는 노인환자에게는 관내 보건소의 가정방문 간호사업과 연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7) 보호기간

원칙적으로 1일(낮 동안 보호)을 기준으로 보호한다.[63]

8) 사업기준

가. 시설의 규모

주간보호시설의 정원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정원 : 5인 이상

② 시설연면적 : 100제곱미터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되, 5인 초과시에는 1인당 5제곱미터이상의 거실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기준

①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일조, 채광, 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거실, 사무실, 욕실, 식당,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화장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거실, 욕실,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외의 시설은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설비시설을 병용할 수 있다.

다. 직원의 배치기준

① 시설의 장(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63]한국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지침* (보건복지부, 1998), 78-79.

② 사회복지사(시설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이용정원이 10인 이하인 시설은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활보조원(이용자 10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되, 치매ㆍ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이용노인 5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④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조무사(시설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⑤ 사무원(이용정원이 10인 이하인 시설은 두지아니할 수 있다)

⑥ 취사부

⑦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

다만, 사회복지시설(수용인원이 10인 미만인 시설을 제외한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ㆍ생활보조원ㆍ무리치료사 및 간호조무사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64]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이나 특별노인요양홈에서 치매노인을 중심으로 한 탁노사업은 제도적으로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시.군.구의 복지행정 수준에 따라 다르다. 또한 행정지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지역에서 주민복지활동으로 민간 탁노소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민간 탁노소는 복지사업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며 한편 국가에서 하는 제도적 보장수준을 높일 수 있는 민간의 저력이기도 하다.

대개 민간 탁노소는 치매 가족이나 자원 봉사자들에 의해 소규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안정된 경영을 위해 시행착오를 경험해 가며 정착되어가고 있다. 현재도 많은 과제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에게 밀착된 복지서비스로써 지역 복지발전에 필요한 요소로 존재하고 있다.

이는 복지 사업이 관료적인데 비해 이용노인과 지역주민, 자원봉사자가 함께 하는 사업으로 정부에 대해 치매노인을 위한 제반사업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에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 탁노의 프로그램은 대개 직원간의 봉사적인 노력과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낮동안 노인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치매노인과 함께 즐겁고 활력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64]사회복지, *노인복지법령집*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1998), 117-119.

그밖에 재활, 생활지도,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웃고 열심히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치매노인이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교류 때문이다. 연령이 틀리고 태어난 곳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밖에 전문인이 개입된 프로그램은 진행하는 사이에 치매노인들이 안정을 얻게 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또한 작업요법을 시행함으로써 배회하던 노인이 앉아서 열심히 작업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가정에서 고독하게 자신의 역할을 찾지 못했던 노인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다. 치매노인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집단적, 개별적, 레크레이션적인 통합된 요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치매노인의 증상시간, 인원 수, 유도 방법 등을 자세히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 탁노소의 하루 스케줄을 소개해 보면 대개 1주일에 월, 화 목 3일 운영하고 있고 직원은 대부분 주부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다. 1일 활동은 아침 8시 30분 경 가족이 노인을 모셔 와서 서로 이야기를 한 후, 혈압, 맥박 등 건강체크를 하며 체중은 2주일에 1번씩 잰다. 그리고 가볍게 라디오 체조를 하면서 노인들의 전체적인 상태를 살펴보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유도한다. 그 동안 다른 봉사자들은 노인들을 위해 씹기 편하고 맛있는 식사와 간식을 준비한다. 이럴 때 노인들이 함께 도와주기도 하고 식탁 정리나 물컵 등을 놓아주기도 한다. 점심식사 후 개인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을 도와주고, 오후에는 대개 산책을 나간다. 간혹 비가 오는 날이면 방석이나 걸레 등을 만들기도 한다. 남자노인들도 있는데 다른 노인들과 같이 활동에 참가하지 못해도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오가는 얘기를 듣는 것을 즐겨한다.[65] 이와 같이 가정에서만 서비스를 받는 자들은 외부와의 접촉이 점점 멀어져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점점 침체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노인들을위하여 교회가 주간보호 목회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교회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시간제 별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불편한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출근이나 가사로 인해 외출이 불가피하여 노인들을 돌볼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노인들을 한나절 또는 일정한 시간 동안 교회의 주간보호시설에 맡기면,

---

[65]이성희, *치매노인의 특성과 보호방법* “노인복지정책연구.” 제1권2호(1996. 8), 205-207.

교회는 이들을 돌보는 동안 신앙적 프로그램이나 사회교육적 프로그램을 실시하므로 교인 양육과 신앙지도라는 또 하나의 열매도 얻게 될 것이다.

Ⅶ. 교회학적 질문(Ecclesiological Basis)

교회의 본질이야말로 소그룹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이다. 따라서 성서에 뿌리를 둔 교회론은 무엇인가? 성서에 뿌리를 둔 교회론과 함께 전인적 소그룹 공동체에 나타난 교회론을 살펴봄으로 이 둘이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 것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1. 새신자 정의

일반적으로 교회에 새로 등록한 사람을 새신자라고 호칭한다. 혹은 초신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원래 새신자라고 하는 말은 생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새신자라고 하면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해당 교회에 등록한 사람도 포함하고 있다. 그런 사람은 사실 새신자, 초신자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태신자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새신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처음 등록한 사람을 말하고 있다.[66]

1) 협의의 정의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이는 영적으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하였느냐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2) 광의의 정의

광의의 새신자란 초신자는 물론 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이유로

[66]Ibid., 10.

인하여 새로이 등록한 전입교인과 교회에 등록한지는 오래 되었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간헐적으로 드러나는 영적 유아상태에 있는 신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67]

2. 새신자에 대한 이해

1) 성서적인 관점

(1) 영적 어린아이

요한복음 3:3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새신자는 완성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68]

(2) 육신에 속한 자

사도 바울은 고전 3:1에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안에서 어린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고 말함으로서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자를 대비함으로 예수 안에서의 어린아이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새신자들을 육신에 속한자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는 고전 2:14의 "육에 속한 사람"과는 완전히 구별된는 말이다. 전자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지만 성령의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이며, 후자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연인[69]을 말하는 것이다.

(3) 신앙을 갖고자 하는자

고전 4:15 "그리스도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를 보면 스승과 같은 관계라기보다 아비의 관계에서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웨이론 비 모어는 새신자를 "구도자"라고 언급했다.[70] 새신자는 그 개념이 신

---

[67]Ibid., 80-81.

[68]게리 쿠네, *개인적 새신자 양육의 원동력*, 정학봉 역(서울:요단출판사,1979), 24.

[69]이상근, *신약주석 고린도전서*,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76), 56.

앙을 찾아서 교회에 나온 구도자로 여길 수 있는 것이다.

2) 목회적인 관점

명성훈 박사는 새신자에 대해서 “새신자 목회의 관건은 얼마나 새신자를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 여기서 새신자란 불신자를 포함하는 목회의 대상그룹이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교회를 이해하기를 원하지 말고 교회가 먼저 세상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개인들간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도 이해 받기보다는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는 먼저 불신자의 속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71]

현대 불신자들의 속성을 조지 헌터는 10가지로 설명[72]하고 있다. ① 기독교에 대하여 무지하다. ② 내세보다는 현세에 관심이 더 많다. ③ 죄책보다는 불안과 의심에 더 시달리고 있다. ④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 ⑤ 자연, 이웃, 직업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복합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⑥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는 신뢰 결핍증이 있다. ⑦ 자신의 자화상에 대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 ⑧ 역사와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한다. ⑨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 ⑩ 구원의 문을 스스로 찾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명성훈은 불신자들의 특징을 5가지로 말하고 있다.[73]

첫째, 그들은 초보적인 것을 원하고, 복잡한 것을 싫어한다.

둘째, 그들은 익명성을 원하며 자신들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한다. 대부분의 새신자들이 얼굴을 얼른 알아차리는 작은 교회보다 큰 무리에 섞여서 자신을 감출 수 있는 중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것은 바로 익명성 때문이다.

셋째, 그들은 생활적인 것을 원한다. 교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것보다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

[70]웨이론 비 모어, *새신자 양육의 원리와 방법*, 98.

[71]명성훈, 교회성장 반드시 됩니다, (서울: 국민일보사, 1995), 53.

[72]Ibid., 33-34.

[73]Ibid., 34-35.

넷째, 그들은 최상의 질을 원한다. 교회의 시설, 수준이나 혹은 활동이 적어도 자신의 생활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그들은 결단을 위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사영리나 쪽복음을 짧은 시간에 소개하고 단숨에 회심을 강요하는 것을 싫어한다. 어느 정도의 탐색과 연구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결단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불신자 혹은 새신자의 특징과 기대치를 이해하여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접근을 시도해야 새신자 목회에 성공할 것이다.

3. 새신자 양육의 당위성

1) 예수님의 명령

새신자에게 절대가치를 두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눅 19:10)고 하셨으며,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20)고 하셨다. 즉 교회에 소속시키는 일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명령에 대한 순종이 되어야 한다.[74]

2) 교회의 본질과 사명

눅15장에는 세가지 비유가 나온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세가지 공통점은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와 찾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즐거워했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모두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이다.

3) 새신자 양육의 중요성

[74]Ibid., 33-37.

게리 W. 쿠네는 새신자 양육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75] 첫째, 새 그리스도인의 취약성 때문이다. 사탄에게 더 쉽게 속는다. 둘째, 새신자는 변화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새신자는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으며 빠르게 신앙이 성장되며 변화될 수 있다. 셋째, 가장 효과적으로 제자들로 만들어 질 수 있다. 넷째, 영적인 번식을 성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새신자는 전도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다. 신자가 되어 시간이 갈수록 불신자 친구가 적어지고 대신에 신자 친구가 많아진다. 그만큼 전도할 대상의 접촉이 적어진다는 말이다. 그러나 새신자일수록 대다수의 친구가 불신자이므로 그만큼 전도할 대상이 많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새신자 중에서도 전도의 은사를 받은 자를 전도 특공대로 훈련하여 활용하면 최대의 전도 가능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4. 새신자 양육의 원리와 방법

새신자 양육은 "전도의 열매인 새신자를 구원의 확신 속에 그리스도와 계속적인 영적 교제를 가지도록 도와주며, 점차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며, 나아가 봉사와 헌신을 통한 영적 재생산의 자리, 즉 제자가 되기까지 양육하는 과정이다.[76]

1) 양육의 목표

첫째, 구원의 확신 - 건강한 교인이란 어떤 교인을 말하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교인을 말한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은 어떤 시험과 유혹에서도 승리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성장점이다.[77] 이것이 가장 먼저 성취해야할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하며 구원의 기초적인 부분을 반복해서 가르쳐야 한다.

---

[75]게리 W. 쿠네, Ibid., 24-26.

[76]이환봉, *새신자 양육을 위한 성경공부*, [월간목회] 1985년 7월호, 82.

[77]이찬영, *새신자 방문요령*, "월간목회," 제 47권, (1980.7), 35.

둘째, 신앙의 성장 -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새신자로 하여금 신앙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이런 도움이 없다면 새신자는 영구적 영적 유아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어 교회의 병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 신앙성장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다. 한 인격이 하나님에게 응답하도록 동기를 갖게 되고 또 기독교의 진리를 실천하게 될 때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를 갖게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에 순종하도록 자질을 계발시켜 주어야 한다.[78]

셋째, 제자 만들기 - 새신자 양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제자가 되게 하는데 있다. 제자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어 전도의 열매를 맺고 그의 열매를 보전하기 위하여 육성하고 그를 번식자로 만드는 자이며 형제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확증시켜 나가는 자로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말한다.

2) 양육의 원리

(1) 선택과 집중의 원리

이 원리는 성경에 두루 나타난다. 예수님의 원리이자 바울의 원리이기도 하다. 예수는 승천하신 후에도 그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훈련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셨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쫒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양육하셨다(막3:14-15). 특별히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적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더 친밀하게 가까이 일하셨다.[79]

(2) 동역과 모범의 원리

예수는 제자들과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생활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생활은 곧 그들의 교과서였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많은 모범을 보

---

[78]게리 W. 쿠네, opcit, 15.

[79]Robert E. Coleman,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홍성철역, *주님의 전도계획,*(서울: 생명의 말씀사,1980), 31-34.

여 주셨는데, 성경을 사용하는 것과 기도에 대한 것은 그 중에서도 특별하였다.[80] 새신자는 누구와 함께 일하며 무엇을 보고 성장하여 가느냐에 따라 신앙의 틀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어떤 육성자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다.

(3) 교훈과 참여의 원리

새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를 만나게 된다. 이 문제의 대부분은 교인들간에 어색한 분위기가 생겨나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한다. 새신자들로 교회에 남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침을 주었다.

예) 형식적인 종교를 수행하는 유대인과 관계하는 방법(마17:24-27), 그리스도에게 순종함과 교제를 거부하는 자들을 다루는 법(마18:12-35), 형제에 대한 무한한 용서(마18:21-22), 기독교인들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법(눅9:51-56) 등.

기독교적인 참여는 사랑의 법칙을 수행해 나가는 능력을 얻게 하는데 있다. 이러한 능력은 공동체(구역), 놀이(축제, 파티, 간증, 찬양), 성경공부 등에 참여를 통해서 얻게 된다.[81] 즉 새신자는 교회의 내적 활동과 외적 활동에 참여를 통해서 성숙한 신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참여에는 시기의 문제가 있다. 시기가 참여의 효과를 좌우한다. 시기가 너무 빠르면 중한 부담감을 느끼게 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하여 좌절시키거나 퇴보시킨다. 너무 소외감을 느끼게 하여 성장에 지장을 가져와 자립하지 못하고 위축당하여 부축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절름발이 신자가 되게 한다.

그러므로 육성자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새신자에게 적절한 참여의 시기와 방법을 분별하여 참여시킴으로 확신을 갖고 헌신하는 신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양육의 내용

---

[80]Ibid., 74-78.

[81]Letty M. Christian Education in Mission, 정웅섭 역, *기독교 교육의 새전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1997). 138-142.

양육의 내용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의 일반적인 교리에 따르기로 함을 원칙으로 하기에 여기서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한다.

(1) 신앙의 출발 -구원의 필요성, 중생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2) 신앙의 성장 -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경, 기도, 봉사,

(3) 교회의 생활 - 교회의 정의,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조직, 교회의 생활

4) 새신자 양육과 회심 - 세계관의 변화

새신자 양육이 다른 양육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양육자의 회심에 있다고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함으로서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즉 거듭남이다. 회심을 경험하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기에 새신자의 회심은 양육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독교적 회심이란 어떤 세계관으로부터 기독교적 세계관으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신자가 단순히 교회에 등록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넘어선다. 그것은 세계관의 변화를 수행하는 전 인격적인 사건이다. 자기가 지금까지 지녀 온 자기 중심적이거나 세상 중심의 세계관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82] 이러한 회심은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복합적인 것이라고 니콜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참된 회심에는 문화전체 - 세계관과 가치와 제도와 풍습 - 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포함된다.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에 위배되는 요소들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회심시켜 복음에 걸맞는 새로운 요소들을 창조해 낸다.”[83]

진희근 교수는 그의 강의에서 세계관의 중심은 신관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계관은 바뀌게 되고 새신자는 하나님을 신앙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였다. 또한 세계관은 급격히 바뀌지 않으며, 단계가 있음을 엥겔의 이

---

[82]김영한, *변화하는 세계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교육자료 16집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25.

[83]니콜스, 브루스 J, A Theology of Gospel and Cultre, 한화룡역, *복음과 문화의 신학*,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7), 102.

론(Engel Model)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각 단계에 따른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84] 그러므로 새신자 양육에 있어서 세계관의 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육과정에 이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5. 새신자부 조직과 운영

새신자를 이해하고 양육하는 것은 제자훈련의 핵심이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행하며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조직과 관리와 운영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새신자 반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직에서의 새로운 전략

(1) 새신자 교육분과 위원회

교회의 교육적 사명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하여 교회의 교육적 활동에 책임을 지는 당회의 협조 기관으로 교육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85] 특히 새신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 내에 새신자 교육분과 위원회를 두고 운영하여야 한다. 새신자 교육 분과 위원은 각 새신자 반을 운영할 평신도 육성자와 교역자로 구성한다.

(2) 심방 육성조직

심방육성은 교역자 1명과 새신자 거주지의 구역장, 새신자를 인도한 전도자로 구성한다. 새신자 교육분과 위원회에서 새신자에 따른 심방육성 교역자를 초빙한다. 심방 육성자들은 4회를 방문하여 교역자는 육성교육을 하며 구역장과 전도자는 구역예배로 새신자를 인도한다. 새신자들은 교회라고 하는 큰 조직보다는 구역의 소그룹에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느낀다.

---

[84]진희근 교수, *전도학강의*, 제1강 회심과 세계관의 변화 중에서.

[85]조동진, *교회행정학*, (서울: 크리스챤 헤럴드사, 1979), 233-235.

(3) 소그룹 조직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유기체이며 생명체이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다면 소그룹은 몸의 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새신자 모임은 소그룹 형태가 적합할 것이다. 로베르타 헤스테네스(Roberta Hestenes)가 정의 하기를 "소그룹이란 그리스도안의 풍성한 삶과 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3명에서 13명 정도의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라고 말한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 속속들이 적용시켜 볼 수 있는 방법은 작은 규모의 소그룹에서 같이 공부하는 것이다.[86]

Synder는 소그룹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87]

a. 모임이 작기 때문에 장소, 시간 등에 융통성이 있다.

b. 개인이 개인을 만나는 차원에서 대화가 이루어진다.

c. 함께 나눔으로 성장할 수 있다.

d. 복음전도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e. 전문적이고 훈련된 지도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f. 교회의 조직과 선교의 핵심적 요소로 적합하다.

그러나 소그룹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고 Sara Little은 말한다.[88]

a. 그룹학습은 각 개인이 스스로 변해 나가는 사람으로 인정해야 한다.

b. 그룹 과정에 대한 강조가 지나칠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

c. 그룹의 중요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할 때 그 효과는 역행된다.

이러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그룹은 성도들이 서로 섬길 수 있는 주된 수단이다. 부차적인 교회모임을 통해서는 우정이 싹트게 되나 깊은 대인관계는 소그룹에서 형성될 수 있다.[89] 교회성장학자인 피터 와그너는 그의 책"교회성장 원리"에서 교회의 성장을 위한 표적으로서'대예배+모임+세포조직=교회'라고 언급하면서 소

---

[86]론 니콜라스, *소그룹운동과 교회성장*, 신재구 역,(서울: 한국기독학생출판부,1995), 16.

[87]Howard A. Synder, *The Problem of wine skins*, (Inter-Varsity Press, 1975), 140-141.

[88]김광률, *장년부 성서학습 연구개선에 관한 연구,*(서울: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0), 28.

[89]론 젠슨. 짐 스티븐슨, *생동하는 교회성장*, 205.

그룹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90]

2) 운영에서의 새로운 전략 [91]

(1) 육성의 단계

a. 전도자가 새신자를 교회로 인도한다. b. 오전 대예배 전에 인적사항을 기록한다.

c. 오전 대예배때 회중에 소개한다. d. 새신자에 대한 심방 양육자를 결정한다. e. 새신자에게 심방 양육자를 소개하며 심방날짜를 약속한다. f. 매주 1번씩 육성심방을 4회에 걸쳐 실시한다. g. 전도자는 주일예배에 새신자와 함께 참석하고 구역장은 구역예배에 인도한다. h. 심방이 끝난 새신자는 새신자 소그룹에 참여시켜 8주간 양육시킨다. I. 이후 평신도 육성그룹에 재조직한다.

(2) 육성자의 자격

a.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요14:15, 21:19). b. 개인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롬1:11, 빌1:7-8). c. 순수한 동기(고전10:3, 살전2:10-11). d. 열린 마음과 참여 의식이 있는 사람. e.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는 의욕이 있는 사람(롬1:11-15, 사6장). f. 양육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는 사람(고전3:6). g. 생활이 일관성이 있는 사람(딤전4:11-12). h. 기도의 사람(빌1:3-5, 골4:12). I.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 j. 그리스도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빌3:12-14).

(3) 육성자의 양육자세

육성자의 양육자세는 게리 W. 쿠네가 말한 새신자 양육의 원동적인 요인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92] a. 인정해 주는 일(골2:5). b. 필요할 때 책망하는 일(골3:16, 히12:11). c.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일. d. 수고의 열매를 기대하는 일(요15;16, 롬 15:14). e.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일(롬1:28-29, 골 2:2-3). f. 격려하는 일(롬

---

[90]피터 와그너, *교회성장원리*, 권달천역, 생명의 말씀사(서울:1980), 166-168.

[91]권수한, *새신자 목회에 관한 연구*, 장신대 신대원 석사학위논문, 1994, 62-65.

[92]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두란노서원, 1985), 302-305.

1;11-12, 살전2:8-12). g. 새신자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일에 비젼을 갖는 일.

영적인 지도자가 훈련 없이 새신자를 양육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양육자는 교육을 통하여 지도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양육자는 교리, 교회사, 상담에 대한 것들을 배워야 할 것이다.

(4) 새신자 양육의 교육과정

새신자양육에 대하여 쿠네는 신앙, 교리, 훈련으로 정하고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93]

1단계 : 구원의 확신

2단계 : 신앙생활의 성장

3단계 : 교회 참석

4단계 : 능력 있는 생활 - 성령 충만

5단계 : 기도생활

6단계 : 순종의 생활

7단계 : 시험을 극복함 - 사단

8단계 :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함

9단계 : 복음적인 간증

10단계 : 승리의 생활

교육이 끝나면 수료식을 거쳐 새신자가 스스로 양육에 대한 기쁨과 성취감을 갖도록 해 주고, 교역자와 구역장, 기관장들과 다과를 나누면서 교제케 함으로 교회생활에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며, 이후 평신도 육성 소그룹에 편성해 준다.

6. 남가주 명성교회 새신자 관리를 통한 교회성장 분석 및 계획

명성훈 목사의'당신의 교회를 진단하라'[94]의 책의 분석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

---

[93] 게리 W. 쿠네, Ibid., 201-202.

[94] 명성훈, *당신의 교회를 진단하라*, (서울:교회성장연구소, 19960), 218-219.

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남가주 명성교회 새신자 관리 실태분석: “당신의 교회를 진단하라”

(1) 남가주 명성교회의 새신자에 대한 태도

. 교회가 새신자와 불신자에게 활짝 열려있는 편이다. 10

. 새신자의 중요성을 수시로 강조한다. 10

. 새신자에게 매력이 있는 예배와 설교를 지향하고 있다. 9

. 의사결정에 있어 새신자의 의견이 반영 될 수도 있다. 7

.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대접받는 교회가 되고 있다. 10

(2) 남가주 명성교회의 새신자를 위한 투자

. 새신자 목회를 위해 전체 예산의 10%이상을 투자한다. 7

. 새신자만을 위한 공간과 시설이 확실하다. 7

. 새신자만을 담당하는 교역자 혹은 전임사역자를 두고 있다. 7

. 담임목사가 새신자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기도한다. 9

. 새신자만을 위한 전용예배를 드리고 있다. 6

(3) 남가주 명성교회 새신자 관리체계

. 새신자 목회 전반을 책임지는 새신자 위원회가 있다. 6

. 환영, 심방. 양육, 관리 등의 전담 부서가 활성화되어 있다. 7

. 새신자에 대한 모든 사항이 문서나 컴퓨터로 검색할 수 있다. 10

. 새신자에게 친구를 만들어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8

. 새신자 양육기간이 끝나면 기존 교회조직으로 연결시킨다. 10

(4) 남가주 명성교회 새신자 양육과정

. 새신자는 반드시 구체적인 양육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9

. 새신자 양육교재와 커리큘럼이 확실하며 효과적이다. 7

. 양육 중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구원의 확신과 은사의 확신이다. 7

. 양육과정을 수시로 평가하여 수정한다. 7

. 양육에서는 교재나 커리큘럼보다 양육자가 중요함을 절감한다. 7

(5) 남가주 명성교회 새신자 양육자

. 일대일로 새신자를 도와 줄 수 있는 양육자가 전체 10%이상이다. 9

. 새신자 양육자를 키워내는 프로그램이 확실하다. 7

. 새신자 양육자는 담임목사가 직접 키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 양육자에 대한 관리와 재교육은 목회의 최우선순위 중의 하나이다. 8

. 양육자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하며 상벌제도로 도전과 자극을 준다. 8

(6) 전도 및 새신자 목회 진단 점수표 및 진단결과 점수 : 199

. 새신자에 대한 태도 : 46

. 새신자에 대한 투자 : 36

. 새신자 관리체계 : 40

. 새신자 양육과정 : 37

. 새신자 양육자 : 40

(7) 진단점수에 따른 분석결과

성장형 마인드를 가지고 새신자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여 보완하고 인내를 가지고 전진해야 한다.

2) 분석에 따른 남가주 명성교회 새신자 사역 장,단점

남가주 명성교회는 현재 새신자들을 위한 영접과 심방, 양육의 모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영접은 전도자와 여전도사들과 교구 권사들이 친절하게 담당하고 있으나 연속성이 부족하다. 새신자 심방은 전담교역자가 교구 권사와 구역장의 도움으로 담당하지만 중량감이 떨어진다. 한주에도 십여명씩 등록하는 새신자를 훈련된 팀이 없이는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양육은 구역장을 활용하는 것 이외에 "기초성경공부반"과"중급성경공부반"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기에, 구체적으로 새신자 목회의 연속성상에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새신자 목회가 더 좋은 모습으로 정착이 되려면, 조직에서는 양육위원회의 구성과 새신자 전담사역자 초빙이 있어야 하며, 운영면에서 새신자 양육에 달란트가 있는 평신도를 선정하여 평신도 사역자로 키우는 것과 양육교재를 통한 효과적인 만남일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담임 목사의 새신자 목회에 대한 목회철학의 변화를 전제 조건으로 해야 할 것이다.

Ⅷ. 미래교회의 새신자 목회 교회전략

다가온 21세기의 문화와 종교의 특징은 '다원화'와 '상대화'일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만큼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며, 새신자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미래의 새신자 목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

1) 새신자의 세계관 변화를 위한 예배

회심이 세계관의 변화를 의미하고, 그 세계관의 중심에 신관이 자리하고 있다면, 회심은 신관의 변화이어야 한다. 특히 샤머니즘을 세계관의 밑바탕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샤머니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민남기 목사는 첫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강조, 둘째, 현실적인 축복은 잠깐 후에 날아가는 헛된 것들, 셋째,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창조된 피조물임을 강조하는 것이 한국식 전도법이라고 주장한다.[95]

그러므로 교회는 새신자를 위한 예배시간을 정하여 교회의 관습과 전통, 신앙에 대한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 세계관 변화를 위한 예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2) 평신도와 함께하는 소그룹 목회

새신자 목회를 위한 전문 사역자를 초빙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교회의 크기에 따라 사정이 다르므로 평신도를 새신자 목회의 파트너로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새신자는 소그룹에 속해 있으면서 양육을 받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므로 소그룹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가 많이 요구된다. 새신자 양육자로서의 달란트가

---

[95]민남기, *한국식 전도법,* (서울: 나침반 출판사, 1997), 211.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새신자 양육원리(선택과 집중의 원리, 동역과 모범의 원리, 교훈과 참여의 원리)에 따라 전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제자화를 향한 양육이 요구되어진다. 새신자는 단순히 교회에 등록한 존재가 아니다. 새신자는 세계관의 변화를 통하여 회심을 경험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교회는 새신자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감격을 경험하도록 도와 주어야 하며, 세계관이 바뀌고,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삶의 방식을 새롭게 하는 양육을 통하여 '제자화'를 향한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는 새신자 목회에 대한 조직과 운영을 새롭게 하고, 새신자를 위한 예배와 소그룹을 이끌어갈 평신도를 육성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교회성장은 새신자 목회를 심방과 성경공부라는 도식에서 벗어나 목회의 한 전문분야로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잘 양육된 새신자는 새로운 새신자를 교회로 이끌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은 이미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을 경주할 때 교회는 성장만 하면 경직되고, 재생산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유기체로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Ⅸ. 미래교회의 대안: 공동체 교회

1. 공동체의 정의

공동체란 단어는 중세 영어 comunete라고 쓰였던 명사인데 comunete는 중세 프랑스어 comunaute에서 온 말이다. comunaute는 라틴어 comunitas에서 유래된 말이며, comunitas는 같은 라틴어의 comunis라는 말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96] comunis는 나누다, 공동의(共同), 일반적인(一般的), 보편적인(普遍的) 등의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comunitas는 공동체(共同體 : comunity), 친교(親交 : fellowship) 등의 비교적 좁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위의 어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란 단어의 의미를 세릴은 헬라어의 koinonia란 단어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데 “친교”, “나눔”, “참여”, “교통”의 뜻을 갖고 있는 koinonia가 곧 공동체라고 보았다.[97]

공동체라는 용어는 포괄적인 단어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어 왔다. 공동체라는 말을 다음의 3가지 방식 가운데 어느 하나의 의미로 쓰고 있다. 먼저 그것은 때에 흔히 감옥이나 종교적 조직체들, 소수 집단들, 동일 직종의 구성원들과 동의어로 쓰이거나 심지어는 군사적 조직들도 공동체로서 언급되어 왔다.

두 번째로 공동체라는 말은 지구의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며 또한 마을이나 읍.도시 혹은 거대도시지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회적이며 지역적인 조직체 단위들을 지시하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공동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시민사회와 대립되는 것으로 쓰여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때로는 가족이고 때로는 마을이며 또는 민족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는 모든 인류가 반드시 경험한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사회생활의 양식으로 된다. 동일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의식을 이루기 위한 삶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 모인 곳을 공동체라 할 수 있다.

---

[96]Webster Seventh New Collegiate Dictionary, 1971년판, s. v. "comunete."

[97]Livis J. Sherill, 만남의 기독교교육, 김재은, 장기옥 공역(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77.

2. 현대사회의 문제와 공동체교회의 필요성

1) 사회 속에서의 문제

현대 사회는 산업사회를 거치며 대량생산체제로 변환되어 왔다. 대량생산체제는 처음엔 인간에게 많은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과 부작용을 인간에게 가져다 주었다. 대량생산체제는 모든 것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 필요에 의해 기술이 발전되고 산업은 점차 자동화가 되어 갔다. 그리고 모든 일은 신속하게 처리되었으며, 자동화와 분업화가 되어 갔다. 이러한 대량생산체제는 몇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대량생산체제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98]

첫 번째는 가속화다. 가속화는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반성이나 자기 비판을 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한다. 사람들은 바쁜 나머지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되고, 자기들의 이웃 사람들에 대하여,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장래에 대하여 심사숙고를 하지 않게 되고, 짐승들처럼 그때그때 충동에 따라 무책임하게 행동하기 쉽다. 인간이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지나친 감정 속에 살게 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두 번째는 기계화다. 기계화는 인간으로부터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주며 마침내 인간으로 하여금 기계에 복종하도록 만든다. 그런가하면 인간도 하나의 기계의 부속품처럼 되어 버리고, 언젠가는 '나'도 낡은 기계의 부속품처럼 버림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과 불안감을 갖게 만든다.

세 번째는 자동화다. 자동화는 인간을 한갓 도구로 만들어 버리며 무사고한 자로 만든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일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의 본질인 비판 능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반성과 자기 억제를 하지 못하게 되며, 짐승보다도 못한 피조물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비합리적인 격정에 쉽게 빠져들며, 폭력을 휘

---

[98] 한림과학원 편, *21세기를 여는 한국인의 가치관,* (서울: 도서출판 소화, 1997), 11-12.

두르게도 되고, 억압되며, 감추어져 있는 여러 충동들이 제멋대로 기승을 부리게 되기도 한다. 자동화는 인간의 고유한 자유의지를 부인하게 된다.

네 번째는 물량화다. 물량화는 모든 사물을 사용가치로서가 아니라 순전히 교환가치로 가늠하는 의식을 인간에게 심어 준다. 그 결과 인간도 수시로 필요에 따라 물건처럼 대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며 인간을 아주 비정하게 만든다. 마침내 인간은 존엄성을 잃게 되고 자기 정체를 상실하게 된다.

다섯 번째는 규격화다. 무생물적인 원자재를 어떤 특정한 모형에 넣고 찍어 내거나 만들어 내는 것처럼 인간도 필요에 따라 어떤 틀 속에 박아 놓고 찍어 내거나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었다. 그 결과 인간도 상품이나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간 경시 풍조를 가져 왔다. 실제 근래에 들어 양과 기타 다른 동물을 복제한 예도 있다. 자신들의 원하는 특성을 강하게 하고 또한 필요없는 부분은 약화시켜 품종을 개량하게 된 시대가 되었다. 특히 관료적인 조직사회에서는 그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기에 무단정치(武斷政治)가 가세하면 인간의 규격화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조장된다.

여섯 번째는 대중화다. 인간증폭을 가져 온 도시화에 부수적으로 생기는 현상이다. 상품의 대중화는 급기야 개인의 창의성이나 지성을 무시하게 만들고, 인간을 의존적으로 만들며, 무비판적으로 살게 만든다. 따라서 대중화는 인간으로 하여금 유행에 민감하게 만들며 되도록 남들처럼 살려고 하게 만든다. 그 결과 인간은 무사려한 자가 되고, 결국에는 자기의 위치와 분수를 잃게 된다.

2) 개인주의적인 사회

가족단위의 결속력이 붕괴되거나 인간상호간의 결속력이 붕괴됨에 따라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개인주의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가족단위의 결속력이 붕괴되거나 인간상호간의 결속력이 붕괴되기 이전에 부모의 지나친 자녀보호주위에 의해 가족과 사회의 결속력은 붕괴되기 시작했다. 한 때 우리의 곁에서 일어난 치마바람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이러한 결속력이 약화되거나 붕괴될 때 개인주의적

인 사고를 갖게 한다.

강원도 춘천지역 중학생 가운데 21%가 `집단괴롭힘'(이지메)에 대해 죄의식을 전혀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지역 중학교 2년생 5백6명을 대상으로 괴롭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유가 있으면 괜찮다'(14%) `강하게 만들어 준다'(4%) `장난삼아 하는 일'(3%) 등 21%가 괴롭힘을 가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으며 `모르겠다'는 응답도 17%나 됐다. 또 학교에서 있었던 괴롭힘의 원형을 묻는 질문에 `본인이 들리게 흉을 보거나 욕을 한다'(43. 3%) `본인이 없는 장소에서 험담을 한다'(37. 4%)등을 꼽아 대부분 정신적 괴롭힘이 많았다. 학생들은 괴롭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26. 9%) `친구를 많이 사귀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한다'(24. 6%) 등의 방법을 가장 많이 제시했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65명)에게 느낌을 묻는 질문에`죽고 싶었다'(29. 1%) `자신이 초라해 보였다'(25. 6%) `전학을 가고 싶었다'(18. 8%)고 응답, 경험자 중 3분의 2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99]

위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근래의 청소년들은 개인주의, 즉 자신만 잘되면 다른 사람이야 어찌됐든 상관없는 집단이기주의나 지나친 개인주의 의식을 심어주게 된다. 이들은 앞으로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청소년이자 우리의 미래이다.

개인주이적 사회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00] 첫째로, 결혼은 안정적이고 헌신적인 제도로서의 그 존엄성을 잃어 버린다. 언약으로써 결혼의 불가침성은 상실되어 간다. 부부관계는 비교적 쉽게 상호간의 아무런 잘못이 없는 개인의 성격차에 의해 자주 깨진다. 둘째로, 여성들이 임신과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을 잃어 버림에 따라서 여성운동이 성행한다. 출생율이 감소한다. 어머니들이 더 이상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기 때문에 탁아시설이나 놀이시설이 부모의 양육을 대신하게 된다. 이는 맞벌이가 증가됨에 따라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로, 일반적으로 부모와 친자관계, 그리고 부모님의 권위에 대한 경시풍조가 생긴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모의 역할은 더욱 어려워진다. 매스컴은

---

[99]국민일보, *춘천지역 청소년 21% '이지메' 죄의식 없어*, 국민일보 1998년 12월 18일자 신문.

[100]Carle C. Zimmerma, *Family and Civilization,* (New York: Harper and Bros., 1947), 761.

옛부터 내려오던 가치관과 전통들을 훼손시킨다.

넷째로, 젊은이들은 부모나, 또 다른 권위있는 사람들을 더욱 더 존경하지 않는다. 청소년 범죄가 급증한다. 사법제도나 교육기관이 그와같은 불의를 방지하지 못한다.

다섯째로, 간통이 인정되고 많은 단체들 내에서 동거가 조장되어지기 까지 한다. 동거생활과 같은 변형된 결혼이 인정된다.

여섯째로, 동성애와 강간, 근친상간, 아동 성추행과 같은 모든 종류의 성도착이 관용의 차원을 넘어 만연하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기계화로 인해 인간성은 상실하고 가족과 인간관계가 붕괴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서로를 불신하며,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이는 가치관과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가 아닌 부정적인 변화로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러기에 사회와 교회는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전환을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동체의 중요성은 동일한 목적과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생활방식에 참여하면서 작은 공동체의 단위인 가족과 인간관계적인 공동체 생활방식으로 인해 인간성과 가치관을 올바로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교회의 본질과 공동체 교회

최근에 들어오면서 교회성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그룹이다. 그리고 리더십을 교회성장의 열쇠로 두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정작 교회성장은 교회론의 정립과 교회론에 대한 관심과 회복운동이 이루어질 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교회성장학자들은 교회의 본래 목적으로 돌아가자는 원칙과 초대교회의 모본을 통해 교회성장 가능성을 설명하게 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을 올바로 의미하고 교회의 기능을 어떻게 정립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기에 교회론적 관점에서 성

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며 공동체적 교회 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신학적 조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이제 그것은 시공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 앞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건과 모든 장소의 하나님의 백성을 포용한다. 교회는 도시나 농촌 가운데서, 그리고 보다 큰 전세계적 배경 가운데서 백성과 공동체가 되는 통일되고 보존적인 리듬 속에서 그 주체성을 찾아 낸다. 백성과 공동체신약성경이 에클레시아로 의미하는 것, 즉 불러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라 불리는 사람들의 구성요소가 된다. 공동체는 한 백성과 한 새로운 종족, 또는 인류로서의 교회라는 것과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뜻하는 교제, 혹은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되며 바로 이러한 사실이 진실되고 심오한 공동체가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여기에서 그 몸의 모습은 공동체라는 사실과 백성이라는 사실 이외에도 어떤 다른 부가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101] 또한 교회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구속사역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류의 대표로 뽑아 그들과 계약을 맺어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맡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역을 위해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의 결과이다.

신약성서에는 두 개의 단어가 교회를 의미한다. 이 두 단어는 모두 70인역에서 유래되었다. 하나는 "에클레시아"이며 이 단어는 '~로부터 불러내다', 또는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라는 뜻을 갖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쉬나고게"(σ υ ν α γ ω γ ή) 로서 '오다', 또는 '함께 오다'라는 뜻을 가진다. 신약성서에서는 쉬나고게를 독점적으로 유대인들의 종교적 회합, 또는 그들이 공적 예배를 위하여 모인 모임이나 건물을 지칭하였다(마 4:23, 계 2:9, 3:9). 에클레시아는 바울서신에 주로 사용되었고, 쉬나고게는 주로 4복음서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교회의 개념은 바울서신에서 비로소 신학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용어가 성전이나 하나님의 백성, 또는 그리스도의 몸이나 몸인 교회의 머리 등으로 나타나면서 그의 특유한 교회론을 전개한

[101]Howard Snyder, *그리스도의 공동체,*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71-72.

다. 바울의 이러한 용어사용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간의 특별한 연결이나 관련성을 드러내고자 함에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교회들의 모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임을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그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의 독특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102]

4. 공동체의 시작

공동체 교회의 시작은 사람들에서부터 시작된다. 공동체가 올바로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공동체를 운영하는 리더의 리더십과 공동체 구성원들이다. 이들이 올바른 공동체적 의식을 확립하지 않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그리 멀리 가지 못하고 와해되거나 분해될 것이라는 사실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효율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소그룹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설교는 그 다음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는 설교하는 일이 공동체 생활을 대체하고 있다. 많은 교인들이 주일 아침에 모여 하는 일은 설교를 듣는 것 뿐인데 그들은 그것을 교제라 한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하는데 그것을 교제라 한다. 그러나 설교는 일방적인 선포의 기능만 발휘되고, 공동체 식사는 교제를 위한 식사가 아닌 성가대를 위한 식사를 조금 더 해서 일부 몇몇의 사역자들과 새신자들이 모여 먹는다. 이것을 사람들은 공동체 교제라 한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서 대규모 집회로 함께 모여 공동 예배 드리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소그룹으로도 모였다. 사실 그들은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매우 좋아해서 날마다 모였다. 그들은 함께 있는 것이 큰 행복이었기 때문에 헤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행 2:46). 훗날 큰 도시에까지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여전히 신자들은 가정 교회로 모이기를 그치지 않았다(롬 16:5, 10-11, 14-15, 고전 16:15, 19). 오늘날 교회가 공동체로서 성장하는 곳은 예외 없이 소그룹을 기초로 하여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 심지어 핍박을

---

[102]문석호, *21C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 (서울: 도서출판 줄과추, 1998), 70-71.

당하며 고통받는 곳에서도 말이다.[103]

New Hope Community 교회는 소그룹을 Tender Loving Care 그룹이라고 부른다. 이 모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며 진실한 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장소이다. 자신도 그대로 받아들여지며, 또한 이 모임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을 받아들이는 장소이다. 마음과 마음으로 친목하는 장소이다. 한사람 `더 받아들임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랑의 모임이다. 그러기에 공동체교회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은 소그룹인 것이다.

소그룹으로 시작할 경우 첫 번째로 성경공부 그룹으로 시작하라. 공동체는 성경공부반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튼튼한 기반을 형성시켜 줄 것이다.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훈련된 지도자가 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는 제자훈련실시이다.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살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공동체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공동체는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제자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공동체 생활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비전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가지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그리고 비전과 목표가 있는 구성원이나 공동체는 무너질 수 없다. 그들에게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 중에가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는 공동체의 재정이다. 그러기에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기금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작은 공동 생활 집을 마련하는 것이다. 고독에 짓눌려서 외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마찬가지로 고독과 소와,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은 따스함과 소속감을 부여해 주는 소그룹일 것이다. 그러기에 교회가 공동체를 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과 작은 평화의 집을 만들어 공동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앞으로의 세계가 사이버와 문화적 변화, 그리고 사회의 단절성은 사람을 부닥치고, 스킨쉽을 그리워하는 사회로 만들 것이다. 사이버 세계를 돌아다니지만 사람을

---

[103]Gilbert Bilezikian, *공동체 101*, 출판부 역(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8), 73-74.

그리워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또한 공동체 교회는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열린 교회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공동체는 이러한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X. 프로젝트의 실행 **Ministry Project**

1. Case Study of Small Group Community Churches

본 장에서는 현재 목회적 돌봄을 특색 있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3개 교회의 사례연구를 통해 목회적 돌봄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연구 방법은 탐방 및 인터뷰, 담임목사의 저서, 세미나, 그 외 교회 홍보 자료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 범위는 조직과 체계, 양육 과정, 목회의 철학, 특징, 모이는 장소, 회수 및 인원수, 모임의 내용등 이며, 마지막으로 목회적 돌봄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로 어떻게 변혁되는 가를 평가해 보았다.

1) Sarang Church

사랑의 교회는 1978년 옥한흠 목사에 의해 개척되어 20주년을 지난 지금 장년 18,000명의 대형교회로 성장한 장로교회이다. 이 교회는 창립 때부터 담임 목사의 철저한 제자훈련의 목회 철학 위에 세워져 전도와 양육, 봉사의 사역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영감 있는 예배중심의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오래 동안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 소그룹에 적절한 토양이 마련되어져 전통교회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역동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랑의 교회는 남, 여1,144개의 다락방으로 나누어져 있다. 대개 10명 안팎의 인원이 매주에 한번씩 순원의 집에서 모인다. 모임의 내용은 예배와 양육(성경공부), 교제, 봉사의 활동을 주로 하며 중보기도와 치유사역도 포함하고 있다. 순장, 부순장 각 1사람과 순원으로 구성되며 순장이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일정한 양육훈련이 준비되어 있다. 먼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 10개월 과정의 제자훈련과 1년 과정의 사역훈련을 마친 다음 목회자에 의해 임명을 받는다.[104] 사랑의 교회는 리더를 위한 양육과정이 체계적이며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

---

[104]옥한흠, *사랑의 교회 현장분석*, 제40기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 (1999. 3. 15-20.) 핸드북, 17-20.

다는 점이 장점이다. 먼저 다락방 리더인 순장을 양육하는 제자 훈련반은 이 교회의 핵심 과정에 속한다. 따라서 반드시 목회자가 직접 인도한다. 교육 내용은 개인의 인격의 성숙을 통해 평신도를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성서적 교회관을 확립하고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을 함께 나눈다. 이것의 핵심은 제자훈련에 맞추어져 있다.

제자 훈련반을 마친 다음에는 1년 과정의 사역 훈련반이 있다. 여기에서는 교회 안에서 교역자의 지도아래 말씀을 가지고 다른 형제를 섬길 수 있는 "작은 목사"를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법과 성경 연구법, 리더쉽 훈련및 소그룹 운영법등 다락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술과 자질을 구비시켜준다. 이 훈련을 통해 훈련생들은 교역자의 분신이 되어 목회자를 돕는 평신도 지도자가 된다. 그러므로 사역훈련을 받으려면 꼭 제자훈련을 마쳐야 하고 어느 정도 말씀 사역에 은사와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순장반은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마치고 다락방을 인도하고 있는 남녀 순장들을 위해 마련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담임목사가 사역현장에서 평신도 지도자로 뛰고 있는 순장들이 영적으로 약해지거나 지적으로 무식해지는 위험을 사전에 막아주고 전교회의 구심력을 항상 강력하게 유지하기 위해 순장반을 운영하고 있다. 합심기도와 영적인 교제, 다락방 교재 예습을 주로 한다. 그 외에도 비정기적으로 유익한 특강을 마련하여 순장의 자질향상에 보탬을 주고 있다.

다락방의 목회 철학은 "평신도 지도자가 목회하는 작은 교회"라는 말속에 압축되어 있다. 소그룹을 통한 평신도 사역의 장이 열려있으며 장로교회이지만 정책 결정이나 집행이 당회보다 순장반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평신도를 깨운다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국내외에서 매년 활발하게 열리고 있으며 많은 목회자들이 이 교회 현장을 직접 보고 참여하기도 한다.

옥한흠 목사는 제자훈련 세미나 핸드북에서 현대 교회가 평신도의 사명을 과소평가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일 군중으로 무력화하고 있는 현실을 가슴아파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앓고 있는 무력증이란 이 지병을 하루 속히 치료할 수 있는 길은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으로 보냄 받은 소명을 가지고 있

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점에서 그는 사도직이 아닌 사도성의 계승을 주장한다. 사도직은 한 개인에게 전수된 것이며 일회적이지만, 사도성은 모든 믿는 자들, 전 교회에 주신 책임이라는 것이다. 사도성의 내용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과 그들의 사역을 계승해 가는 일인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에 증거 하는 말씀과 사역을 말한다.

선교단체에서만 알고 있던 제자훈련을 교회 안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한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의 교회는 한 사람, 한 영혼의 중요함을 알고 변화된 한 사람에 사역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 생명 축제' 라는 영적 대각성 운동은 거의 일년동안 온 성도를 계속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 그 이후 새가족반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며, 여기를 수료한 새신자들은 모두 다락방으로 연결되어 양육과 보호를 받게 된다.

사랑의 교회가 운영하는 다락방모임의 경우 소그룹 교회와 방향은 같을지 모르지만 다락방은 교회의 여러 기관들 가운데 하나인 반면에, 소그룹 공동체 중심의 교회는 소그룹이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다. 다락방은 그 자체로서 교회 전체가 되지 못한다. 문제는 전체 교인이 다락방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다락방에 소속된 교인수가 몇 %이며, 그 가운에서 정기적으로 다락방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몇 %인지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소그룹에 참석하는 사람이 대다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그룹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공동체의 본질회복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본다.

모든 교인들이 소그룹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락방에 나오지 않는 교인들은 목회적 돌봄에서 소외 될 수밖에 없다. 소그룹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락방을 다양화하여 기존의 다락방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여러 종류의 다락방을 만들어 그들을 흡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직능별, 역할별, 시간별, 취미별 등) 무엇보다 사랑의 교회는 철저한 소그룹 공동체 중심의 교회는 아니지만 한국인의 심성과 문화, 그리고 장로교의 전통 속에서 어떻게 평신도 중심의 사역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좋은 모델이라고 본다.

2) Moksan Baptist Church

목산 침례교회(김현철 목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갈망하던 사람들이 성서적 교회론을 함께 공부하면서 1987년에 시작한 교회이다. 현재 한국에서 셀교회의 한 모델로 성장하고 있다. 목산 교회의 특징은 처음부터 셀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성서적 교회론을 모델로 하여 씨름하다가 자연히 셀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다. 김현철 목사는 모든 교회는 셀적이며 셀이 아닌 교회는 없다고 한다. 셀을 교회 성장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교회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의 원리이며 교회의 기본 정신으로 본 것이다.

목산 교회는 셀이라는 전인적 소그룹을 교회 사역의 중심에 두고 있다. 셀모임을 중심으로 사역이 전개되고 정리된다. 목산 교회의 셀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헌신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것은 실제 교회란 같은 생각, 같은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기 때문이다. 세례 받지 못한 초신자, 불신자들에게는 개방되어 있지 않다. 물론 셀 모임에서 전도를 중요한 목표로 삼지만 함께 소속되지는 않는다. 그 대신에 셀원이 아닌 사람들은 주일 성경 공부반에는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셀은 매주 화요일 에서 금요일 중 하루를 되도록 목자의 집에서 모이며, 때에 따라 셀원의 집에서 모이기도 하는데, 최소 3시간 이상 모임을 갖는다. 보통 한 셀은 1-2년을 같이 지내며 그 후에 세포 분열한다. 셀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관계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목자와 양(셀원), 양과 양 사이의 바른 관계가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보는 것이다.

모임의 내용은 식사를 함께 나눈 후에 한 주간의 삶을 나눈다.(간증, 경건의 시간이나 지난 주일 설교에 대한 적용 등) 그 외에도 성경암송, 찬송가 함께 부르기, 죄의 고백, 모니터링, 독서토의, 여러 가지 사역 경험 등 규칙적인 주제가 없이 상황에 따라 나눈다. 그리고 성경공부(사회적 이슈나 토픽을 주제로 삼을 때도 있다)와 중보기도가 있다.

셀의 조직은 5개의 셀이 하나의 소그룹을 이루며 교역자가 담당한다. 그리고

소그룹은 담임목사의 지도를 받게 된다. 특징은 제3소그룹인데 이것은 지교회 개척을 담당하는 소그룹이다. 즉 본 교회와 같은 유전자(목회 철학과 교회정신)을 가진 독립교회를 다른 지역에 개척하는 것이다. 셀의 세포증식과 함께 하나의 교회를 증식한다는 점에서 좋은 예가 된다고 본다. 모든 셀원은 본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고 셀원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청 받는다.

목산 교회에서 셀을 이끌어 가는 정신은 대단히 중요하며 전교인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가르쳐지고 있다.[105]

첫째 전교인의 분담 목회(Shared Ministry)이다. 목회를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신자의 소명으로 본다. 각자의 은사와 재능과 부르심에 따라 목회의 영역과 책임정도와 시간 량이 다를 뿐 모든 신자들이 목회한다는 입장에서는 동일하다. 목사는 다른 교인들의 목회적 사명을 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 교인이 각자의 사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사람으로 본다.

둘째는 땅의 신학이다. 신앙인들은 한 땅이라는 지역성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땅은 바로 공동체를 의미한다. 공동체가 없으면 신앙의 양육과 훈련, 인격의 성숙이 없으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신앙적 전통과 역사의식도 가질 수 없다. 현대 교인들의 특징은 아무 것에도 소속되기 싫어하는 익명의 신앙생활, 뿌리 없이 떠도는 교회 생활을 좋아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신앙의 편리주의, 개인주의, 인간중심의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신앙인은 땅이 없는 식물과 같다. 한 사람이 예수 믿은 신자로서 특정 지역교회의 일원이라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분명한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하며, 후손을 위해 땅의 신학이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와 기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셀원이 변화되고 인격이 성숙되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인간적 훈련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다는 고백이다.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에 의지하지 않고는 나타나지 않는다.

---

[105]김현철, *목산교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서울: 기독교한국침례회 목산교회, 1998), 38.

이러한 점이 교회의 영성을 깊게 하고 전교인을 같은 목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목산 교회 셀의 특징은 불신자들에게 열린 셀이 아니라 닫힌 셀이라는 점이다. 철저한 헌신과 가족적 교제에 있어서는 장점이지만 불신 이웃과 접촉하고 전도하는 부분은 약하다고 본다. 그 약점을 선교부가 있어서 각종 지역선교, 국내선교, 해외선교 등에 다양하게 활동하여 지역교회로서 지역을 섬기는 일을 통해 불신이웃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목산 교회는 시작 때부터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데 초점을 두어 셀이라는 소그룹이 자라기에 적합한 토양이 형성되었다.

3) Houston Seoul Baptidt Church

휴스톤 서울 침례교회는 미국 텍사스 주 휴스톤에 있는 한인교회이며 1993년 최영기 목사가 부임한 이후 '소그룹'이라고 부르는 가정교회로 체질을 바꾸어 크게 성장한 교회이다. 여기서 소그룹은 바로 교회의 기본 단위인 전인적 소그룹 공동체 최영기 목사는 가정교회를 한국적 목회 상황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106]

(1) 모든 가정교회는 개척교회와 같다. (최초에 평신도 가정들이 자체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2) 가정교회는 그 자체가 교회이다.(수 십 개의 가정교회가 모여서 서울 침례교회를 이룬다. 교단과 지역교회와의 관계와 같다)

(3) 구성원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원하는 가정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

(4) 주된 활동은 삶을 나누는 것이다.(성경공부가 아니다)

(5) 대상은 믿는 사람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6) 지역 교회가 하는 사역을 골고루 다 하는, 지역 교회와 같은 교회이다.

---

[106]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두란노: 서울, 2000), 71.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정교회는 기존 교회의 장년주일학교, 구역, 순 모임 같이 교회내의 한 부서나 조직이, 마치 독립적인 개척 교회와 같다는 점이다.

(7) 가정 교회는 다음과 같은 직책으로 구성되어 있다[107].

1)목자 : 목사 역할을 하는 사람. 교회의 필수과목 세 개와 두 개의 1:1 양육 과목을 마치고 인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 아직 목자로서 이수해야 할 과정은 안 마쳤으나 목자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은 대행 목자라 부름

2)예비 목자 : 목원이 15명이 되어 분가할 때 목자가 될 후보자. "생명의 삶"과 "영적 성장의 기본진리"를 마친 사람으로서 인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 명.

3)교사 : "생명의 삶" 과 "영적 성장의 기본진리"를 마친 후 인선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

4)목원 : 상기 직책 외에 가능하면 목원 전체가 직책을 한 가지씩 다 맡아서 사역함. (선교 , 봉사, 출판, 서기, 회계 등)

5)모임 : 각 소그룹(가정 교회)은 대개 금요일에 모임을 갖는 데, 예배, 교육, 친교, 선교/전도 등 일반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한다.

우선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처럼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식사를 나눈다. 식사 후에는 찬양을 하고 짧은 성경공부 시간을 갖는데 2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소그룹 성경공부는 삶의 나눔에 무엇보다 관심을 갖기 때문에 성경공부가 모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자훈련모임이나 예배에 초점이 맞춰진 구역모임과 다르다. 성경공부가 끝나면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 이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의무 적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나 그간의 간증이나 미담 등을 소개한다. 이렇게 나눠진 삶의 이야기들은 곧바로 중보기도로 연결된다. 약 15분간의 중보기도가 끝나면 '선교도전’의 시간이 이어진다. 가정교회가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지 않으면 내향적인 교제만 무성한 '변화산 신드롬'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전도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심방보고도 한다. 휴스턴 서울침례교회의 소그룹은 12명을 초과해서 모이지 않는다. 12명을 넘으면 곧바로 세포분열이 이뤄진다. 이 때를 위해 모든 소그룹은 예비 리더를 세워서 훈련과정을 밟게 한다.

---

[107]휴스톤 서울 침례교회 홈페이지(www.seoulbaptistchurch,org), 교회 안내 참고.

최영기 목사는 전통적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평신도를 활성화 시킬 것인가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마침내 완성된 것이 소그룹이라는 가정교회(소그룹)이었다. 그는 중국의 처소교회에서 많은 도전을 받았다. 소그룹에서 목자는 바로 담임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실제로 최 목사는 성례식 외에 많은 목회적 권한을 그들에게 위임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담임목회자와 목자들 사이에 인격적 신뢰관계가 전제되어 있다. 최 목사가 가정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관계이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는 삶의 변화로, 목원들 간의 관계는 섬김과 나눔으로,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는 동역의 관계로, 불신자와는 사랑의 이웃이며 전도자의 관계로 나타난다. 그래서 소그룹은 지역성이 아니라 관계성을 토대로 묶어져 있다. 또 하나 가정교회에서 강조되는 것은 번식(분가)이다. 최 목사는 소그룹을 시작한 중요한 이유도 전도에 있다고 말한다. 사실 가정교회의 장점이 많지만 가장 효과적인 부분은 불신자 전도에 있다. 먼저 불신 이웃과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친구가 된 후에 복음을 전하고, 소그룹 모임에 나와 친숙해진 후에 교회에 나오도록 권면한다. 이렇게 등록한 새 신자는 담임목사가 책임지고 양육하여 세례 받게 한다. 여기에서 전도와 양육이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XI. 가정교회(소그룹의 한 형태로서)

1. 가정교회에 대한 이해

‘가정교회’라는 용어는 현재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

첫 번째는 완전한 ‘작은 교회’운동으로서 지역교회로부터 분리된 독립된 작은 교회이다. 기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사하는 교회이다. 초대교회의 독립된 가정교회의 모습들이 이러한 형태를 지녔다.

두 번째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 그 형태에 있어서는 구역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기능과 특성을 달리하는 그룹이다. 이 가정교회는 기존의 교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하나의 독립된 가정교회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회를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의 교회답게,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 각자가 부여받은 소명감을 깨달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사역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초대교회의 가정교회 모습들로부터 그 기능적인 장점들을 최대한으로 강조하는 교회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후자이다. 초대교회의 가정교회들이 가장 이상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미 조직과 행정이 커진 현대교회로서,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조건이 다르며 어느 정도 제도의 틀이 잡혀버린 현대교회로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닮기란 불가능 한 일이다. 초대교회만을 고집하여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가정교회의 성도들이 행사하였던 역동적인 기능과 그 정신을 본받아 교회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다. 초대교회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리고 현대교회의 단점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2. 교회의 성서적 배경

헨리 디이슨(Henry C. Thiessen)은 그의 조직신학 강론에서 최초의 믿음 공동체의 출발이 가정이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성경의 최초기 설명에 보아도

조직화된 종교 생활이 있었다는 증거는 찾아 볼 수 없다. 아마도 조직적인 종교생활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면 가정이었을 것이다. 이 가정 속에는 자녀, 손자 때로는 증손자까지 포함되기도 했다. [108]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은 그의 저서 「초대교회 복음전도」(Evangelism in the Early Church)에서 고대의 복음전도의 가장 중요한 방법들 중의 하나는 가정을 이용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109] 가장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가 예루살렘의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집의 다락에서 만난 것을 보면 가정에서의 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전파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것도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는 가정의 사회학적인 중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하였는데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가정에 대한 강조는 이스라엘과 로마 문화에 있어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방주로 인도된 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집이었고, 왕국이 약속 된 것은 다윗과 그의 집이었다. 이는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경륜에 있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정보다 더 건전한 기초는 떠올릴 수 없으며, 가정이야말로 기독교 전진 기지의 중심지였다는 그의 주장은 과언이 아니다.[110]

이처럼 학자들이 최초의 신앙공동체의 출발은 바로 가정이었다는 점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가정의 역할과 그 사회학적 중요성에 대하여 피력하지만 성서 안에서 가정 중심의 믿음 공동체를 찾아보기란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 공동체', 즉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용어가 구약성서 안에도 존재하는가?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는 상반된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교회가 구약시대부터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강림 이후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

[108]Henry C. Thiessen, *조직신학 강론*,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635

[109]마이클 그린, *초대교회 복음전도*,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1994), 382-384

[110]Ibid., 384-386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p)는 족장 시대와 모세 시대에 이미 교회가 있었다고 말한다.[111] 이에 대해 밀라드 에릭슨(Millard Erickson)은 교회가 오순절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112] 이 외에도 교회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헨리 디이슨이 주장한 대로 최초의 조직적인 종교 생활이 가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회의 기원은 구약에서부터 유래하며, 본격적인 모습의 교회는 신약의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부터이다. 본 소고에서는 교회의 본질보다는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과 역동적인 사역의 모습을 초대교회의 가정교회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우선 가정교회에 대하여 다루고자 하는 부분, 가정교회의 성서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 구약 성서 안에 나타난 '교회'라는 단어를 살펴보고, 그 후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인 가정교회의 존재와 모습, 그리고 그 기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구약성서의 교회

구약성서에서는 교회를 말 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한다. '카알'과 '에다'가 그것이다. 먼저 이 낱말들의 의미와 이 낱말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카알'은 모임의 목적을 불문하고 모이는 모임을 의미하였다. 그 어근은 지금은 죽어버린 언어가 되어버린 '칼'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경 이외의 쿰란 문서들에서 여러 종류의 모임이나 집단에 사용되었고 단 1회만 시편 22편23절에 병행적인 용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문맥에 사용되었다.[113]

이 단어는 악한 모의나 행동을 나타낼 수도 있고(창49:6, 시26:5), 공적 모임이나(왕상2:3, 잠5:14, 26:26, 욥30:28), 전쟁(민22:4, 삿20:2)등을 위한 모임 일 수도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용법으로 이 용어는 수많은 나라들의 모임(창35:11), 민족들의 모임(창28:3, 48:4) 또는 죽은 자들의 모임(잠21:16)등을 뜻하기도 하며 예레미아서와 에스라서에서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자들의 모습(렘31:8, 스2:64)에도 이 용어를 사용한다.

[111]Louis Berkhof, *조직신학 하,* 권수경 이상원 옮김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1996), 827

[112]Millare Erickson, *교회론*, 이은수 역 (서울: CLC, 1992), 32

[113]R. 레이드 헤리스 외, *구약원어 신학사전*, 번역 위원회 옮김 (서울: 요단출판사, 1996), 986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재건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바로 '카알'이라 할 수 가 있는 것이다.(스10:12, 14, 느8:2,17)

그러나 '카알'이 특별히 종교적인 목적을 위한 모임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이다. 율법을 수여 받은 호렙산에서의 경험은 총회의 날이었으며(신9:10, 10:4, 18:16), 축제 금식 그리고 예배 등의 모임(대하20:5, 30:25, 느5:13, 욜2:16)등에도 사용되었다. 이런 경우 '카알'은 이스라엘 전체적인 개념보다는 적은 수의 모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70인역 에서는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되었지만 36회만이 '쉬나고게'로 번역이 되었다.

또 다른 하나는 '에다'인데 이는 '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야아드'라는 어근에서 파생되었다. 이 단어는 약속에 의한 회합을 의미하며 KJV에서는 빈번히 '회중'으로 번역이 되었다. 출 12:3에 최초로 나오며 구약 전체를 통해 145회가 나오는데 LXX에서는 127회를 '쉬나고게'로 번역을 하였다. '에다'는 이 명사 자체가 모임의 목적을 함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떼(사14:8), 수소의 무리(시68:30), 의인의 회중(시1:5), 악인들(시22:16), 강포한 자들(시86:14), 경건치 못한 자들(욥15:34) 등의 회중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이 되었다.

이 두 단어는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격히 말하면 동의어는 아니다. 결국 '에다'는 약속에 따라 모이는 모임으로서 이 단어가 이스라엘에 적용될 때에는 소집이 되었든 되지 않았든 이스라엘의 자녀들 혹은 그들을 대표하는 머리들로 형성된 사회 그 자체를 지칭한다. 반면 '카알'은 백성들이 실제로 모인 모임을 말한다.

이종성 박사는 그의 교회론에서 '카알'과 '에다'는 70인역의 처음 부분에서는 다 같이 '쉬나고게'로 번역이 되었으나 나중부분에서는 '카알'은 '에클레시아'로 번역된 반면 '에다'는 '쉬나고게'로 번역하여 신약성서에서는 다르게 사용하도록 길을 열었다고 정리하였다.[114] 결국 '카알'은 이스라엘의 모임 즉 공동체를, '에다'는 그 모이는 장소인 회당을 더욱 강하게 의미했다.

---

[114]이종성, *교회론 I*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2), 20

그렇다고 해서 '카알'이라는 용어가 처음부터 종교적 공동체를 부르기 위하여 사용되지는 않았다. 구약시대 전반에 걸쳐 종교적 공동체를 부르기 위하여 특별히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

2) 신약성서의 교회

(1) 원래의 의미

신약성서에서는 두 개의 단어가 교회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 이 두 단어 모두가 70인 역에서 유래했다. 하나는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인 '에클레시아'인데 이는 '불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쉬나고게'로서 '오다' 또는 '함께 모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회합 또는 그들의 공적 예배를 위하여 모인 건물을 지칭했다(마4:23, 행13:43, 계2:9, 3:9).

'에클레시아'의 접두어인 '에크'는 동사인 '에크칼레오'에서 유래했으며 종종 '백성들의 집단으로부터'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에크'라고 하는 접두어가 '에클레시아'의 성경적 용법과 관련하여 사용 될 때에 교회가 인류로부터 부름을 받은 택함받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되어 지기도 하지만 원래는 '에크'라는 전치사가 헬라 문화권 속에서 시민들이 가정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다. 즉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는 본래가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어디에서나 어떤 모임이든지 모인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115]

로버트 뱅크스도 그의 저서인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에서 '에클레시아'란 단어는 헬라에선 아주 익숙한 용어인데, 이는 기원전 5세기경부터 한 도시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모였던 정기적인 민회를 지칭할 때 이 말이 쓰여졌다고 하였다. 신약성서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의미로 쓰여진 예를 찾아볼 수가 있다. 그 예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일어났다(행19:21-41). 이 용어는 이교도 사회의 비문에서도 발견되었는데 거기서는 '만남'이나 '집회'의 의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것은 이 용어가 본래부터 종교적인(이교들의 용법은 제외하고) 의미를 내포

[115]벌코프, *조직신학 하,* 권수경 이상원옮김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6), 812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116]

유대사회는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 역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 앞에 모인 이스라엘 민족의 총회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하는데 대체적으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신4:10; 9:10, 대하6:3; 12, 시106:32). 간혹 '쉬나고게'란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였지만, 종교적인 성격이 적거나 비종교적인 회합을 나타낼 때 쓰여졌다. 예를 든다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모인 군사들의 무리(삼상17:47, 대상28:14), 혹은 불법을 행하거나 위험스런 군중들의 집회를 지칭할 때(시25:5)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70인 역에서는 모두 100번 정도가 나오는데 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을 말 할 때 쓰여졌다.

어떤 경우에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 모였을 때처럼 온 나라를 지칭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경우는 대표자들만이 모였을 때, 즉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봉헌 할 때처럼(왕상8:1,2) 지파의 두목이나 족장들만의 모임을 지칭할 때에도 쓰여졌다. 김균진 교수도 신약성서의 가장 대표적인 용어인 '에클레시아'의 개념은 원래 세속적이며 정치적인 개념으로서 사람들을 통하여 구성되는 회중(Volksversammlung)을 뜻하는데 신약성서에서는 이 개념을 '하나님의' 혹은 '그리스도의'라는 소유격과 결합하여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로 기술되기도 하였다(행20:28, 고전1:2, 10:32, 11:22, 살전2:14).

이것은 교회가 지닌 특별한 성격으로서 교회는 스스로 모였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모여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다.[117] 이러한 의미를 가진 '에클레시아'의 개념은 포로생활 이후 국가가 파멸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정착하여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면서 히브리 용어인 '카알'이 종교적 의미를 얻게 되었고 특별히 예배를 드리거나 율법을 듣기 위해 모인 유대인의 성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118] 이러한 '카알'의 개념이 70인 역에서 번역되어 '에클레시아'에 부여되었으며 결국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 즉 하나님의

116로버트 뱅크스,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 장동수 옮김 (서울: 여수룬, 1999), 58-59

117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3), 8

118부르스 라이츠만, *교회의 의미와 사명,* 김득중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1), 13

카알과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접목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 문맥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단어가 본래부터 종교적인 의미를 전혀 갖고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그저 단순한 뜻에서 사람들의 모임이나 회합을 의미하고 있어서 헬라에서 사용되었던 것처럼 그 성격이 아주 세속적인 모임들을 나타낼 때 쓰일 수 있는 단어였다.

(2) 바울의 용법

'교회'란 단어는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적어도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아주 초창기부터 이런 공동체들이 한편으로는 유대인들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헬라의 이단 종파들로부터 자신들의 모임을 구별 짓고 있었음을 의미한다.[119]

바울은 이 단어를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인사말에서 맨 처음 사용했다(살전1:1). 그는 여기에서 이 말을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 사이에서 쓰고 있는 식대로 사용하였지만, 의도적으로 자기가 편지를 쓰고 있는 모임을 그 도시의 다른 모임들과 구별을 짓고 있다.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의 부탁에도 그가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의 실제 모임 혹은 정기적으로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을 마음에 두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그 도시의 다른 모임들과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인들의 모임'이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란 말을 첨가함으로서 정기적인 공중회의(민회)와 구별하고 또한 '에클레시아'란 말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구절을 첨가함으로서 매주 모이는 유대인들의 회당 모임과 구별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모양의 구절이 같은 공동체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 또 나온다(살후1:1).

이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 두 편지의 다른 곳에서 복수로 쓰여진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것은 일반적 의미의 '하나님의 여러 교회들'이다. 이것은 그가 사용한 '에클레시아'란 단어가 오늘날 사용되는 것과 같이 보다 큰

---

[119]로버트 뱅크스,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 장동수 옮김 (서울: 여수룬, 1999), 61

단위의 부분으로서 인식되는 수많은 지역 회중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암시한다.

다시 말 하자면 갈라디아서의 인사말에서 나오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갈1:2; 고전16:1), '아시아의 교회들'(고전16:19), '마게도냐 교회들'(고후8:1), '유대에 있는 교회들'(갈1:22)등의 언급들은 우주적인 교회의 개념으로서의 대교구나 혹은 국가적인 획일화된 교회관으로서 바울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비록 그가 종종 '성도들의 교회들', '이방인의 교회들'과 같이 좀더 일반적으로 말 할 때도 있었지만(고전14:34; 롬16:4) '모임'이라는 일차적인 의미는 고린도전서 11~14장에서 분명해진다. 특히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고전11:18), 그리고 '여자가 교회에서'(고전14:35; 14:4, 5, 12, 19, 28)등의 표현들에서 분명해 진다.

오늘날 '교회'라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교회'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모임을 언급하거나, 작은 가정에서 모이는 그룹이든 큰 도시 전체의 교회 공동체든 정기적으로 구성되어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언급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교회'는 구성원인 사람들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데살로니가처럼) 그들이 살고있는 지역에 속한 것도 아니며(갈라디아처럼) 오직 그것이 존재하도록 하신 분(즉 하나님) 혹은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나게 된 분(즉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고전1:1; 고후1:1). 이것은 '에클레시아'란 말이 단순히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종교적인 회합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임을 나타낸다는 것이다.[120]

바울 당시의 지적, 사회적 분위기에 견주어서 그의 '에클레시아'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면, 그의 개념의 포용성 뿐 아니라 그것이 그 시대에 얼마나 적절했는가를 알게된다. 그 당시의 시대상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

첫째로, 헬라와 로마의 지식층 그리고 경건한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우주적인 형제애에 대한 동경. 둘째로, 개인적으로 알 수 있고 친밀해 질 수 있는 장소로서 가정(집)의 중요성. 그리고 셋째로는 자의적이며 종교적인 다양한 모임들의 구성원이 됨으로서 추구할 수 있는 공동체와 그 영원성에 대한 탐구 등이 그것

[120]Ibid., 63-65.

이다. 바울의 '에클레시아'에 대한 개념은 이 세 가지 모두를 포괄한다. 로버트 뱅크스(Robert John Banks)는 바울의 '에클레시아'에 대한 개념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 하였다.[121]

1).그것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비교적 작은 무리로 정규적으로 모이는 자발적인 연합체이다. 유대인의 회당과 이교들 그리고 좀더 배타적이긴 하지만 쿰란 공동체가 이 점을 공유하고 있었다.

2).그것은 가정 단위에 뿌리를 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특성도 가지고 있었다.

3).이 작은 지역 모임들은 초국가적이며 시간에 매여 있지 아니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우주적이며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스스로를 여기도록 배웠다.

오직 바울이 통찰한 '에클레시아'에 대한 개념만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자신들이 헌신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이상을 모두 함축하고 있었다. 바울이 이 세 모델을 조직적으로 연결 시켰다거나 의도적으로 그의 관점을 그 시대가 추구하는 것에 맞추었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의 교회관이 그 당시에 발전한 다른 것들보다 개념적으로 더 부요했고 사회적으로 더 적절했다는 것이다.

이 모두에다가 고대 사회의 모임에 대한 일상적인 용어인 "에클레시아'를 택함으로서, 또한 모임의 장소를 이교들의 장소가 아니라 일상적인 가정을 택함으로서, 바울은 그의 모임들을 일상적인 다른 모임들과 굳이 외적으로 구별하길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3) 신약성서에 나타난 가정교회

지금까지는 가정교회를 이해하기 위하여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 있는 '교회'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쓰여졌으며 그 단어를 바울은 어떻게 그 개념을 발전시켰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제 그 교회의 개념을 토대로 실제로 신약성서 속에 나타나 있는 가정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본다.

---

[121]Ibid., 81-82.

로핑크(Gerhard Lohfink)는 그의 저서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에서 슈툴마허(P. Stohlmacher)의 글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122]

초기 그리스도인 가정 공동체들의 의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바울 자신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살고 가르쳤으며 그런 공동체를 세워 나갔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비단 큰 공동체만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도 고대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속박인, 남자와 여자, 높은 자와 낮은 자, 식자와 무식자 사이의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장벽들이 모두다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맺은 새로운 관계를 위하여 타파되고 또 이 새로운 유대에 의하여 무시되는 장소였다. 따라서 가정 공동체들도 주님의 만찬의 공동거행을 거쳐 하나이요, 여러 모양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화해자들이 공동체로 함께 자라나는 처소였다.

이러한 슈툴 마허의 공동체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로핑크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바울의 모범이나 바울계 공동체의 은사적 구조와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러 모일 때에 아직은 비교적 작고 일견 보잘 것 없는 가정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서로 만났으며, 이것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그 모임이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그 가정에서의 모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로 발전되었는가를 보여준다고 하였다.[123]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증거에서 가정의 역할을 간추려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했다.[124]

초대교회 때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가정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이점이 많았다. 비교적 적은 숫자가 참석하여 참석자들은 실제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깊이 있게 토론 할 수 있었다.

설교자와 청중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없었다. 공공장소나 옥외 모임에서처럼 연사나 야유꾼에게 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저속하게 행동하려는 유혹이 생기지도 않았다. 가정의 완벽한 비형식성, 긴장을 풀고 쉬는 분위기 그리고 또한 이와

---

[122]로핑크,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정한교 옮김 (왜관: 분도 출판사, 1985), 162.

[123]Ibid., 161.

[124]마이클 그린, *초대교회 복음전도,*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8), 382.

함께 병행되는 손님 접대등 이 모든 것이 이런 형태의 복음 전파를 성공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활용되었던 몇몇 가정들을 밝히고 있다. 데살로니가의 야손의 집이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졌으며(행17:5), 고린도 회당 맞은편에 위치하는 디도 유스도의 집도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었다(행18:7). 가이샤라에 있는 빌립의 집은 대단히 접대를 잘하는 집이었던 것처럼 보이며, 거기서는 바울과 그의 동료와 같은 뱃사람들 뿐 아니라 아가보와 같은 유리하는 영도자들도 환영을 받았다(행21:8).

루디아의 집과 빌립보 간수의 집은 전도 중심지로서 사용이 되었고(행16:15; 32-34), 스데바나도 분명히 고린도의 그의 집을 같은 식으로 사용했다.

그의 집사람들은 바울 사도에게 직접 세례를 받았다. 또한 그 후에 그는 자신의 집을 성도를 섬기는 집으로 사용했다.

기독교인들의 가정이 있는 곳마다, 그 가정이 사용되어지는 용도도 다양했다. 사도행전에서만 보아도 그러한 기독교인의 가정이 기도의 장소로(행12:12), 저녁 교제의 장소로(행21:7), 성찬의 장소로(행2:46), 철야기도와 예배와 교훈의 장소로(행20:7), 즉석 복음집회 장소로(행16:32), 기독교의 복음을 듣기위한 계획된 집회 장소로(행10:22), 질문자에게 답하는 장소로(행18:26), 조직된 교훈을 주는 곳(행5:42)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한 개인의 가정이 하나의 교회였으며(고전16:15), 그리스도인들의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금지된 이후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었다. 본 단원에서는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 나오는 가정교회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며 그리고 그 가정교회들의 기능들을 살펴본다.

A. 사도행전에 나타난 가정교회의 형태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는 "어떤 경우에는 가정 에클레시아 곧 개인의 집에서 모인 가정교회를 지칭하기도 한다. 사도시대에는 부유한 혹은 다른 중요한 사람들이 종종 자신들의 집에 속한 큰방을 예배를 위해 제공했다.[125]

이는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가 가정에서 모였다는 것을 암시한다. 초대교회

---

[125]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 하*, 권수경 이상원 옮김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6), 813.

기독교 공동체는 처음에는 가정에서 작은 수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며 선교를 하였다. 대부분의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의 말씀에 근거하여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기존 유대교의 회당 공동체와는 갈등을 빚었고 결국 그들에 의해 회당으로부터 축출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점차로 그들의 가정을 예배와 접대, 가르침과 선교의 센터로 남게 된 것이다.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가정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확장시켜 나갔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다.

행 2: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행 5:42: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행20:20: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위의 사도행전 2장46절과 5장42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가정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사실은 가정 식탁교제(household table fellowship)라는 유대적 양식이 그 중심이 되는 사도행전으로부터 찾아 볼 수가 있다.

특히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보면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가 회당에서 모이기도 하고 집에서 모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교에 의한 분파로 여겨졌을 때에 회당에서의 모임이 가능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들과의 갈등이 깊어짐에 따라 유대교는 기독교 공동체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로마제국도 기도교인들을 핍박하게 되었다.

이에 기독교 공동체는 박해를 피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됨으로서 자연 가정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모였던 곳은 다락방이었으며(행1:13), 그때 120여명의 신도가 모여 유다의 후임자를 선출한 것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행1:15-26). 이것을 보면 그들이 회당이 아닌 서로 간에 모일 수 있는 기존의 어떤 장소, 즉 일반 가정집이었음을 암시해 준다. 누가의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의 기독교 공동체가 한 장

소에서 함께 모인 것이 아님을 또한 알 수 있다.

성령강림의 결과로 믿는 이의 수가 약 3,000명에 달하게 되었고(행2:41) 그러한 회중 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가서 그곳에 모인 신자들을 향해 한 말을 통해 짐작할 수가 있다.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행12:17)” 아무튼 이러한 누가의 기록은 제자들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였으며, 마리아의 집 외에도 다른 장소에서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사도행전 16:31-34에 빌립보 감옥의 무명의 간수가 기록되어 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있는 동안 이 무명의 간수가 베푼 접대를 제공받았다.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처럼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개종을 하였다.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눈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누가에 있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다. 전술하였듯이 이 식탁교제는 초기 기독교 가정교회의 본질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

사도바울의 드로아 사역에서 안식 후 첫 날 떡을 떼며 모여서 강론 할 때에 밤중까지 계속 되었는데 그들은 다락이 있는 집에서 모였음을 알 수 있다. 바울이 밀레노 해변에서 장로들에게 자신은 3년 동안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다(행20:20). 이 외에도 가이사랴의 빌립의 집(행21:8), 예루살렘 나손의 집(행21:16), 고넬료(10:23), 그리스보(행18:8)의 각 가정이 그 경우에 해당한다. 이상 사도행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초대교회 시대에는 사회 정치적인 배경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이 기도와 가르침, 그리고 예배 및 교제를 나누기 위한 정상적인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B. 바울서신에서 볼 수 있는 가정교회의 형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바울은 수신자들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오이코스' 즉 집이란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로버트 뱅크스(Robert John Banks)는 두가지로 추정 하였다.

그 첫 번째가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사는 거처 혹은 그 집안의 어떤 특정한 방이었을 거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들의 책임 하에 있는 권속들이라는 것이다. 만약 전자를 의미한다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가정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 전부 혹은 일부가 모였던 모임 장소였을 것이다.

만약 후자라고 한다면 모임의 구성원은 그들의 권속 전부였을 것인데 그럴 경우는 희박하다고 한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도행전 어디에도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이와 같은 권속을 거느렸다는 기록이 없고 그들이 가진 유대인의 신념에서 볼 때 이런 일은 있음직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126]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는 어떤 특정 도시에서의 그리스도인 무리들의 유형과 그들이 모였던 장소들에 대해서 더 잘 밝혀주고 있다. 고린도전서 14장23절에서 바울은 '온교회'가 함께 모였던 경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의 작은 무리들이 '교회'로 함께 모였음을 암시해 준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여러 무리들이 자기들의 존재 이유를 각각 다른 사도들 즉 베드로, 아볼로, 바울의 사역에 두고 있는데 이것 역시 이와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나와 온 교회 식주인'이라고 표현한 가이오란 사람으로부터 안부를 전하고 있다(롬16:23).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에서는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온 회중을 지칭할 때 쓰여 졌다(출12:6; 민8:9).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때 이것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 전부임이 분명할 것이다. 가이오는 그 도시에서 가장 유력한 인물이었고 그의 가정은 온 그리스도인들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그와 같이 모임을 가지려면 넓은 공간이 필요했고 어느 정도의 재력도 필요했다. 그것은 가이오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 할 수 있었던 것이다.[127] 그래서 (디도 유스도)가이오의 집이 그 지역 전체 기독교 공동체의 모임을

---

[126]로버트 뱅크스,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 장동수 옮김 (서울: 여수룬, 1999), 65-66.

[127]Ibid., 66-67.

위한 장소로 제공되었을 것이다.[128]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야말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귀중한 것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온 교회'라고 하였을 때 '온'이라는 조건은 항상 그들이 한 무리로만 모였다면 불필요하였을 것이다. 이는 여러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온'이라는 조건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즉 이것은 그 도시에 크고 작은 여러 모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로마제국의 수도에 있었던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의 무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에서 더 확실해 진다.

롬16:3: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롬16:5: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배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129]

롬16:10: " …… 아리스도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롬16:11: " …… 나깃수의 권속 중 주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롬16:14: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롬16:15: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상의 구절들은 각기 다른 가정교회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6장15절에서 '모든 성도'라고 표현한 것은 그 구성원에 남녀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여러 공동체들 중에서 이 공동체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하여 이 도시에는 여러 구역의 가정교회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은 초대교회의 기독교인 가정의 좋은 모범으로 아굴

---

[128]대부분의 학자들은 롬16:23의 가이오를 행18:7의 디도 유스도와 동일 인물로서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인물로 보고 있다.(고전1:14).

[129]여기에서 '저의교회'를 표준 새 번역 성경에서는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로 번역을 하고 있다. 고린도 전서 16:19절에 비추어 볼 때 이들 부부는 고린도에서 그들의 집을 신자들에게 가정교회로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그들의 가정은 장막 만드는 바쁜 가정이었다(행18:3). 그들은 장사를 하면서 그들의 기술을 부지런히 썼을 뿐 아니라 기독교 전도를 위해서도 시간을 할당했다. 이 가정은 분명히 예배드리는 가정이었다. 그들의 가정은 관대한 가정이었다.

그들은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유숙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예상되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공동체가 되기까지 그들의 가정을 개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고린도, 에베소, 로마에 있는 그들의 가정에서 교회가 모였다(행 18:26; 딤후4:19; 고전16:19; 롬16:5).[130]

그 외에도 초대교회의 가정교회 주인으로서 루디아, 항구도시 겐느리아의 뵈뵈, 스데바나, 그리스보등을 들 수가 있다. 바울의 후기 글인 빌립보서에서 그는 그곳 성도들에게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예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빌4:15)"라고 상기시키고 있다.

서신에서는 교회가 어디에서 모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으로 추론해 볼 때 처음에는 루디아의 집에서 모였을 것이다. 간단하게 이들 가정교회 주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다.[131]

루디아(행16:14): 바울이 빌립보에서 얻은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주장사였다. 루디아와 같이 유대-헬라의 디아스포라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들은 대부분 일반 서민들 가운데 가장 낮은 계층 출신의 개종자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이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루디아는 신자들을 위한 모임의 장소로 자신의 가정집을 제공 하여 빌립보에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뵈뵈(롬16:1-2): 그녀는 바울을 포함한 많은 신자들의 보호자였거나 후원인 이었다. 로마서 16장2절은 그녀가 가정교회에서 한 역할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 주었고, 나(바울)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아마도 뵈뵈는 가정교회로 모일 때에 어떤 직책을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신자들이 모

---

[130]마이클 그린, *초대교회 복음전도*,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4), 410.

[131]이상명, *가정교회: 현대교회의 갱신을 위한 한 모델* (미주 크리스챤헤럴드), 1998년8월2일자

일 수 있는 장소와 여행자(복음전도자)들을 위하여 숙식을 제공하였을 것이다.

스데바나(고전1:16; 16:15): 스데바나와 그 가족은 바울에 의해 세례 받은 몇 안 되는 가족으로서 바울의 중요한 후원자였다. 고린도전서 16장15절에 보면 스데바나의 헌신과 선행이 그가 속한 공동체에 알려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리스보(행18:8이하): 회당장으로서 바울이 전하여준 복음을 듣고서 온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회당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그의 개종은 다른이들의 개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상으로 바울서신에 나타난 가정교회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기독교 초기 역사속에서 자신의 가정집을 신자들의 모임을 위해 열어놓은 그들은 그들의 재산을 기부하였을 뿐 아니라 공적 직책을 수행하면서 선행을 베푼 이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봉사와 헌신이 없었다면 과연 기독교는 온갖 장애를 극복하고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C. 가정교회의 기능

교회성장은 목회자가 평신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의식을 깨닫게 하여 그들 스스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데 달려있다. 억지로 교회성장을 위하여 어떤 Program을 만들어 평신도들로 하여금 성장을 위한 그 기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런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목회적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들이 역동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평신도들이 그들의 소명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장으로서 가정교회를 소개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정교회란 기성교회가 실시하는 구역예배 이상의 것이다.

새 시대의 새 교회는 교인들을 교회당에 가두어두는 교회를 탈피하여 그들을 현장 목회로 분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가정교회야 말로 인간적

조직 이상의 영적 생명체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가정교회는 바로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에서 우리는 신약교회가 제시하는 건강한 가정교회의 핵심적인 기능을 찾아볼 수가 있다.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가정교회의 핵심적인 기능 다섯 가지를 발견할 수 가 있는데 그것은 예배, 양육과 제자화, 구제와 봉사, 성도의 교제, 그리고 전도와 선교가 그것이다.

1). 예배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인들의 신앙생활이 그들의 예배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이루어 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구태여 복음을 증거 하라고 강조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하였고 또한 그 수준에 있어서도 성숙해 갔던 것이다. John Drane은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매일 모였지만 형식에 매이지 않는 자발적인 예배를 드렸다. 이런 식의 예배는 가정교회로 모였을 때에 매우 자연스러운 방법 이었을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하였다.[132]

로버트 뱅크스(Robert Banks)는 「1세기 교회의 예배모습」에서 당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자발적이었는가를 잘 묘사해 주고 있다. 이 책에서는 브리스길

[132]John Drane, *초대교회의 생활*, 이중수 역 (서울: 두란노 서원, 1992), 77.

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던 한 가정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그들의 모임을 크게 나누어보면 첫째 성만찬을 나눔, 둘째 교제, 셋째 서로의 삶을 나눔, 넷째 은사에 대한 가르침, 다섯째 찬양과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될 것은 그 모임에 초대받아간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의 느낌이다.[133]

“ ……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인가 물었다. 그러자 그는 나를 놀리듯이 쳐다보면서 우리가 이 집안에 들어오면서 예배는 실제로 시작되었어”

“의식적이지도 신비적이지도 않았다”

“노예도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였다”

“그 때까지 일어난 일 중에서 종교적이라는 것은 거의 없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의식적인 예식을 차치하고서라도 제사장도 한 사람 없으니 …… 종교적인 것보다 더한 진정한 어떤 것이 다가오는 것이 있었다.” 로버트 뱅크스의 또 다른 저서인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에서 그는 예배는 한 사람의 생활 전체와 말과 행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이 예배를 위한 것이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있는 예배의 의미를 설명했다.[134]

이러한 형식적이지도 않는 자발적인 예배에서는 누구나 참여 할 수가 있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상적인 여건에서는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완벽한 자유의 표현이었다. 허지만 이 자유는 교회의 신앙과 관점을 벗어난 자들이 믿음을 손상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악용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1세기 말엽에 가서는 성찬식에 관한 고정된 형태의 예식이 세워졌고 다른 종류의 예배도 그전보다 훨신 비공개적인 방향으로 성격이 변해갔다.[135]

이러한 초대교회의 예배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33]로버트 뱅크스, *1세기 교회의 예배 모습*, 장동수 옮김 (서울: 여수룬, 1989)

[134]로버트 뱅크스,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 장동수 옮김 (서울: 여수룬, 1999), 148.

[135]John Drane, loc. cit.

첫째 두려워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행2:43)

둘째 찬양과 기도를 드렸다.(행2:42; 47)

셋째 함께 떡을 떼었다.(행2:46)

넷째 그들에게는 교제가 있었다.(행2:42; 46)

결국 그들은 하나의 단체로 예배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개인주의를 초월한 일치의 정신으로 모였음을 알 수 있다. 큰 위험이 따르는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는 함께 모이기를 촉구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해 가면 갈수록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으며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의 공동체를 형성시켜 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예배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결속시켜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력을 주는 요체가 된다.

2). 양육과 제자화

사도행전 2장42절에서 47절까지는 또한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사역을 위하여 어떻게 양육되었는가를 말해준다. 그들은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즉각적인 양육을 시작하였다. 주님을 새로 영접한 자들은 그 즉시 세례를 받았고 또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떡을 떼며 같이 기도하면서 교제를 나누었다.

데이빗 왓슨(David Watson)은 주후 1세기의 소수의 연약한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이 이제까지 알았던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인 혁명을 이루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로마제국까지 3세기 내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굴복했다고 그의 저서에 기술하고 있다. 이는 소수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제자들은 교회 안에서 길러져야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는 것이다라고 하며 제자양성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136]

이러한 제자 삼는 일을 통하여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활하며 일하는 성숙한 평신도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가정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그러므로 가정교회는 교회지도자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

[136]데이빗 왓슨, *제자도*, 문동학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8), 13.

수가 있다.

이러한 제자삼기의 의미를 월드런 스콧트(Waldron Scott)이 그의 저서인 「사회정의와 세계 선교를 향한 제자도」에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찾아 기술하였다.[137]

a)회심(행2:41):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 드렸다.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최초의 결심은 제자도의 관문이다.

b)동일시(행2:41): 그들은 세례를 받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지낸바 되었다가 부활 하셨다는 공적인 확인은 필수적인 두 번째 요구이다.

c)공동체의 일원이됨(행2:41): 그들은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d)교육(행2:42): 그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로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그것을 통해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다.

e)참여(행2:42-46): 그들은 교회의 사역에 활동적으로 참여하였다.

f)전파(행2:47): 그들은 그 지역 사회 속으로 뻗어 나갔다.

g)재생산(행2:47):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제자 양육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즉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였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사랑의 마음이 증진되어 신앙의 성장을 가져왔다.

둘째로 그들은 성찬을 통하여서 그들 자신이 주님을 봄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주님의 실재를 체험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되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았다.

셋째로 그들은 서로 사귀는 일에 힘썼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연합 한 것과 서로서로 연합한 것에 기초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그들의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썼는가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개인이 가진 소유가 다른 신자들을 위해 베풀어 졌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거나 성서적인 것이거나 혹은 지적인 것이든 그리스도인 공동체

---

[137]월드런 스콧트, *사회정의와 세계선교를 향한 제자도,* 강선규 옮김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5), 213.

를 성숙하게 하여 발전 시켜준다. 론 니콜라스(Ron Nicholas)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숙을 도울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자신과 우리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교제가 가지는 양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138]

넷째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 가를 깨달았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여 믿게 하였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즉각적인 양육을 받았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양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3). 구제와 봉사

초대교회의 가정교회는 구제와 봉사에도 힘을 썼다. 오순절 성령 강림일에 예루살렘에서 구성된 초대교회는 그 특징이 이제까지는 알지 못하였던 새로운 질의 교제였다. 성령 충만해진 신자들은 서로 사랑하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지내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심지어는 서로 가진 소유들을 팔아 필요한 데로 나누어 주기까지 하였다(행2:44; 45). 사유재산의 일부는 그대로 유지되기도 하였지만(행5:4), 그들이 그들의 소유를 팔아 필요한 데로 나누어주는 것은 자발적이었다. 그들은 사유재산의 권리를 이기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결코 없었다(행4:32).

그리고 그들의 변화된 경제적 관계의 결과로서, 다시 말 하자면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되어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각 사람들이 서로 나누게 하여도 그들 중에는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구제와 봉사에 있어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구제의 불균등한 혜택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그들 즉 열두 사도들은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여 그 일에 전담하도록 하였다(행6:1-7).

이들의 구제와 봉사에 관한 구체적인 예를 신약성서에서 찾아보면, 그들은 흉년이 들었을 때에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

[138]론 니콜라스 외,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 신재구 옮김 (서울: IVP, 1999), 107.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장로들에게 전달한다(행11:27-30).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모금을 하여서 보낸다(고전16:1-4; 24:17; 롬 15:25-26).

이런 그들의 구제와 봉사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첫째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였다. 바울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데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가르쳤다(고후9:17).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사람들이 '풍성한 연보'를 '힘대로'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극히 가난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고후8:2; 3).

둘째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었다. 나눔은 '사랑하는 마음'과 '후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전13:3). 이와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지 않는다면 참으로 자신의 소유를 다 내어준다 하여도 소용이 없으며 자발적인 마음이 없이 명령에 의하여 나온 억지로 하는 행위가 되고 말 것이다(고후8:8; 9:5).

셋째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였다. 바울은 사유제산 제도 폐지를 주장하지도 않았고 공동 소유제로 바꾸자고 주장하지 않았다. 또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소유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복음의 권리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제공인 것이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후9:15)"라고 탄성 할 수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닌 것이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 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후8:9)"고 하신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고후9:12)".

이처럼 초대교회의 가정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재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 주었으며 이러한 구제와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공동체를 형성시켜 나갔던 것이다.

4).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가정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가정교회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예배, 양육, 구제와 봉사, 선교 전반에 걸쳐서 골고루 나타나는 것이다. 그들은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하였고,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그리고 서로 섬기며 대접하는 일을 통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유지하였다.

론 니콜라스(Ron Nicholas)는 그의 저서에서 가정교회 공동체내의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의식은 단순히 주관적인 소속감 같은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 가족에 대하여 갖는 마땅한 의무나 사랑의 헌신과 같은 감정에 더 가까운 것이다. 주변의 타락한 환경 속에서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켜나가는 가장 효과적인 그리스도의 모임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서로를 헌신할 때에 공동체는 출발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성도로 하여금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어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또한 서로의 부족함을 나누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서로의 짐을 져 주고, 피차 격려하며,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며, 서로 중보의 기도를 해 줄 때에 가능한 것이다.[139]

또한 가정교회의 교제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가정교회는 성서적이고도 기독교적인 접대를 실질적으로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 만일 초기 가정교회 구성원들이 사도나 그의 동료들에 대하여 아낌없는 후원과 접대를 베풀지 않았다면 과연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복음을 힘 있게 증거하고 선교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로버트 뱅크스(Robert Banks)는 공동체가 서로 교제를 나눔에 있어서 가장 가시적이고 깊은 것은 지체들이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라고 하였다. 이러한 지체들이 함께 나누는 식사는 그들과 그리스도 및 그들 서로간의 관계를 상기 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실제적으로 심화시켜준다. 마치 한 가족이나 적은 무리가 공동의 식사에 참여함으로서 그들 상호간의 유대를 보여주며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경우인 것이다.[140]

---

[139]Ibid., 29.

당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접대는 하나의 사회적 덕목으로 여겨졌다. 신약성서 가정교회에 있어서 접대를 최우선시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접대를 기독교적인 사역 원칙으로 변형할 만큼 이 덕목을 활용하였던 것이다. 접대는 초기 기독교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 중의 하나이고 기독교 성장의 궁극적인 매체이다.[141]

이러한 그들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접대는 차별이 없이 하나 됨의 교제를 하였다. 가정교회는 집과 토지를 소유한 부유한 계층으로부터 노예계층 까지를 포괄하여 혼합되어 있는 사회의 건강한 단면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인종적, 계급적, 성적 차별을 넘어서 평등으로 나갈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하였다.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사회적 범주를 넘어선 접대야말로 가정교회의 실제적인 면의 적용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 전도와 선교

가정교회는 그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 하는 교회였다.

진 케츠(Zene A. Getz)는 이와 같은 복음 전도가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가장 중요한 비결이었다고 한다.[142]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그들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었다.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기적과 표징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주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행2:43-47).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인들의 효과적인 선교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1장에서 성령 충만하여 능력을 받아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말씀 전파는 엄청난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삼천 명이나 전도되

---

[140]로버트 뱅크스,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 장동수 옮김 (서울: 여수룬, 1999), 136-140.

[141]이상명, 가정교회: 현대교회 갱신을 위한 한 모델 (미주 크리스챤 헤럴드), 1998년 8월 2일자

[142]진 케츠, *현대교회 성장학*, 임성택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41.

었었다.

4장에서는 초대교회는 서로의 필요한 물질적인 것을 나누며 공동체를 형성해 갔다.

6장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많아지므로 초기의 긴장성이 둔화되었는데 이 때에 과다한 일을 나누기 위하여 일곱 집사를 세운다. 그들의 역할로 말미암아 영적인 결실을 볼 수 있었는데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널리 퍼져서 예루살렘이 있는 제자들의 수효가 부쩍 늘어나고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을 받아 드리게 되었다”라고 쓰고 있다.

13장에서는 당시의 안디옥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선교사로 세워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 앞길을 축복하는 등 단단한 결속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지원하였다.

16,17장에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혼자가 아닌 최소한 실라, 디모데, 누가와 같은 사람을 포함한 선교 팀을 구성하였다.

24장에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더불어, 바울의 선교팀은 여러 곳에서 흩어져 있던 교회들을 권하여 물질적으로 곤경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도록 했다.[143]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의 선교가 얼마나 효과적이며 놀라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가정교회의 선교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가정교회는 초기 선교 전략 핵심이었다. 바울의 선교전략은 가족을 염두에 둔 전략이었다. 바울은 새로운 도시를 여행할 때마다 선교 활동을 위한 집회 장소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바울은 한 도시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 할 때에 주된 목적은 한 가정을 얻는 것이었다. 가정은 결속력 있는 개종자들의 그룹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과 주변 이웃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센터가 되었다. 로마를 정복했던 초창기 기독교 운동은 실제로 소규모의 가정교회 운동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서, 세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교회의 갱신과 구제 활동은 소규모 그룹과 가정교

---

[143]론 니콜라스 외,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 신재구 옮김 (서울:IVP, 1999), 144-146.

회를 통하여 전개되었으며, 그 운동에 동참한 이들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

둘째로 초기 가정교회는 개종에 있어서 통합된 결속의 개념을 강화 시켰다. 초기 가정교회에 있어서 가족 전체의 개종은 흔한 일 이었다(행10:1-2; 16:13-15; 31-34; 18:18). 한 조직으로서 가정교회는 개종과 같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현상을 명백히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신약성서에 기록된 가족 전체 개종은 현대교회가 지니고 있는 개종의 관한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완하고 교정해 준다. 다시 말해서 초기 가정교회에 있어서 개종은 가족 단위의 '복합된 경험'으로 이해되어졌다. 개종은 어떤 순간 주어지지만 지속적인 과정이며, 동시에 각 개인에게 부여된 거룩한 임무의 위임인 것이다.

개종은 사회-교회적 실체이며, 특별한 사회적 상황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셋째로 가정교회는 문화적 다양성 안에서 복음을 창조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았다. 성서가 한 나라의 언어로 잘 번역되었을 때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영적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각 지역에 분산된 가정교회는 그 교회가 속한 문화를 읽어내고 역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즉, 어떤 부분은 극복하고 어떤 부분은 수용함)으로써 역사 속에서 생명력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다.

크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틴 기독교 공동체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헬라적 기독교 공동체로, 또 보다더 세밀하게는 여러 갈래의 다양한 색깔의 기독교 공동체가 당시 공존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각 지역과 그 지역의 문화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한 가정교회에서 초기 기독교가 출발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다양성과 일치성이 어떻게 조화롭게 긴장 관계를 가지면서 교회를 성숙케 하고 끊임없이 확장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144]

3. 소그룹 가정교회 사역

[144]이상명, *가정교회*:현대교회의 갱신을 위한 한 모델 (미주 크리스챤 헤럴드), 1998년 8월2일자

1) 바울신학에서의 가정교회 특징

신약 성서에 나타난 가정교회에서도 가정교회의 성서적인 배경에 대하여 이미 언급을 하였지만 이 단원에서는 현재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면서, 특히 가정교회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뱅크스가 밝힌 바울의 교회관에 대해 살펴봄으로서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 즉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로버트 뱅크스(Robert Banks)는 신약성서 가운데 나타난 바울의 교회관 속에서 현대의 우리들의 교회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네 가지 특징들을 찾아보았는데 그 첫 번째는 교회의 가정 같은 기풍, 두 번째는 교회의 총체성에 대한 강조, 세 번째는 교회의 참여적 형태 그리고 네 번째가 교회의 외부 지향적인 성격이라고 언급하였다.[145]

A. 교회의 가정 같음

바울은 자주 교회를 하나의 가족으로 이야기했다. 교회를 인간의 몸에 비교한 것은 구성원들의 상호 연결성과, 그들에게 서로를 위해 사역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가족으로 유추하는 것은 구성원간의 관계의 질과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강조한다. 바울은 가족과 관련된 말을 교회를 표현하는 주요한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또한 다양한 단계에서 그 말을 사용했다.

*신약교회들은 주로 사람들의 집에서 만났다(행2:43; 16:40; 20:8; 롬16:5; 골4:15; 몬2절)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본래 회심한 가족들을 기본으로 하여 교회를 세웠다(행11:14; 16:15,25-34; 18:18)

*가정에 있는 교회는 큰 교회 공동체의 기본 구성 단위였다(롬16:23; 고전11:18,33)

*교회 구성원간의 결속력은 가족 구성원간의 결속력과 비슷하다(롬16:2,13; 갈

---

[145]Robert Banks, Julia Banks,,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장동수 옮김 (서울, IVP, 2000), 51-63.

1:2; 4:19; 골4:9)

*교회 공동체들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가족(권속)으로 묘사된다(갈6:10; 딤전 3:15; 엡2:19)

*이러한 교회들의 중심적인 활동은 가족적인 성격을 지녔다(살전5:26; 롬 12:9-10; 고전11:13)

*사역은 기본적으로 가족 가운데서 행하여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역의 형태를 모델로 한다(고전16:15; 딤전3:4; 5:1-2)

교회가 가정을 기반으로 하며 가정에서 만들어지고 가정과 같이 되는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교회와 가족 간의 유추를 끌어내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학대가 벌어지거나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좋은 가정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1세기의 가족 역시 의미가 모호해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 생활의 모델을 변형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이는 최선의 경우에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이상적인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강화된 가족 개념에는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물질적 영역이 포함되었다. 구성원들은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가족처럼 인사해야 했다.

그들은 서로 애정을 표현함으로서 서로를 가족으로 대해야 했다. 그들은 가족으로서 정기적으로 함께 식사를 했다. 그들은 가족이 그래야 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보살펴야 했다. 초대교회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 가족이 그들이 회심하면서 잃어버린 원래 가족의 역할을 대신하였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한 가족처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서로를 사랑하기로 진정으로 헌신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우리는 같은 지붕 밑에 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바울에 의하며 내가 당신과 함께 교회에 참여할 때 나는 당신을 돌아보고 당신은 나를 돌아다보아야 한다. 나는 당신에 대해 책임이 있고 당신은 나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갈4:6) 하심으로서 우리로 신성한 가정을 이루는 데 반드시 필요한 구성원이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

B. 교회의 총체성

로버트 뱅크스(Robert Banks)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성령의 “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분이 교회 활동에 참여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신체를 포함하여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이 교회활동에 참여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의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모여서 때로 전체로서 노래하며 화답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경우만 교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뿐 아니라 서로에게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지체가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과 행동으로 또한 참석한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마치 두 개의 분리된 활동이라도 되는 것처럼 교회를 둘로 분리할 수는 없다. 때때로 이것보다 저것을 더 강조할 수는 있어도 대부분의 겨우 우리는 두 가지를 모두 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상호 의존하는 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동체적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깨달음과 경험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 중의 하나였다.

셋째로 우리는 자신의 일부분만이 교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바울은 그의 서신 속에서 우리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이 참여해야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넷째로 우리는 교회모임을 일상적인 생활과 관심사로부터 벗어나는 행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로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물리적 재정적 필요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여섯째로 우리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편부, 편모, 실직한 사람들, 지체 부자유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부를 요구하실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회는 구성원들의 삶 전체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장소가 되어야 하며 실제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C. 교회의 참여적 형태

바울의 교회관은 또한 그 참여적 형태를 인정한다.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으로부터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받았으므로 함께 모일 때 교회에 기여할 무언가 한 가지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참여적인 형태는, 자신이 제공할 것이 거의 없다고 느끼거나 낮은 위치에 있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교회의 태도를 통하여 그 교회의 성격을 알 수가 있었다. 아무튼 교회는 모두가 가장 덜 중요한 구성원의 상태에 관심을 기울일 책임이 있었다.

바울은 교회와 사람의 몸을 비교함으로서 아주 충격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거론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고전 12:14; 18; 24-25)

바울은 각 가정교회와 더 큰 교회 공동체가 그 모임 자체의 일 들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그는 모든 구성원이 이에 참여하기를 기대하였다. 그의 서신들을 하나의 특별한 그룹이나 한 명의 지도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는 끊임없이 구성원들을 총괄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지체는 교회에 나아가야 할 합당한 방향, 교회의 지식과 행동의 질, 구성원에 대한 목회적 보살핌과 훈계를 분별하는 일을 도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허지

만 바울은 교회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수행해야 할 특별한 역할들을 간과하지는 않았다. 그는 탁월한 구성원간에 격렬한 분쟁이 있거나(빌4:2-3) 법적인 분쟁의 위험이 있을 때(고전6:1-6), 공동체내의 제 삼자가 이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 보다 더 큰 목회적인 능력과 성숙한 인품을 주셨다. 비록 이런 자들이 공동체의 나머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게 함으로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자하는 더 큰 헌신이 있게 하는 것이다.

이들의 역할은 자신들만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여 자신들의 사역을 확장시키는 것보다는 교회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은사를 개발하고 성숙하도록 돕는 것이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자신들이 세운 공동체를 섬기고 그 구성원들이 점점 더 굳건히 서도록 도와서, 마침내 그들이 외부의 사역에 의존하지 않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D. 교회의 외부 지향적 성격

바울의 교회관의 마지막 특징은 교회의 외부 지향적인 성격이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적인 삶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았다. 그들은 밖을 향한 관심이 강하였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간다는 것이다. 제대로 기능 하는 가족의 구성원들은 서로의 필요를 잘 돌아본다. 그들은 서로에게 시간을 내 주고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하며 서로 돕는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가족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다.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에 충분한 생명력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내부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족의 구성원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를 알아내고 그들을 돌보는 기술을 가족 사이에서 배워 알고 있다. 때때로 가족은 식사나 다른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며, 다른 가족들과 삶을 나누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든 간에 외부로 베푸는 것은 가족관계를 심화시키고 강하게 하고 확장시켜준다.

이것은 초대교회들이 선교에 참여했던 방법에 대한 훌륭한 유비가 된다.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누는 데 헌신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희생한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이루어진다. 때때로 이것은 아주 명백했다.

바울은 교회가 발전해 나갈 때 복음이 불신자들의 삶에 감동을 준 아주 분명한 두 가지를 보여준다. 이는 복음 설교를 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을 때(고전14:24-25) 혹은 주님의 이름으로 식사할 때(고전11:26) 일어난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외부사역은 내부사역을 할 때 일어났다는 것이다.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은 「초대교회 복음전도」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증거에서 가정의 역할을 간추려 설명하면서 이러한 예를 제시한다.[146]

초대교회 때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가정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이점이 많았다. 비교적 적은 숫자가 참여하여 참석자들은 실제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깊이 있게 토론할 수 있었다. 설교자와 청중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없었다. 공공장소나 옥외 모임처럼 연사나 야유꾼에게 '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저속하게 행동하려는' 유혹도 생기지 않았다. 가정의 완전한 비형식성, 긴장을 풀고 쉬는 분위기 그리고 또한 이와 함께 꼭 병행되는 손님접대 등 이 모든 것이 이런 형태의 복음 전파를 성공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과 선교에서 일어나는 일 사이에는 흥미로운 관련성이 있다. 선교는 가정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에서 점점 자라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원천으로 성장해 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신자들은 모임을 통하여 서로의 복지를 추구하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배운다. 서로를 돕는 좀 더 능동적인 자세는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과 기관들을 향한 자세에도 파급이 되었다.

이것이 바울과 다른 이들이 말한 "선을 행하라"는 반복되는 명령의 요점이다. 다시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당신을 두신 장소와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안 믿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복음의 관대함을 나타내라는 것이다.

[146]Michael Green, *초대교회 복음전도*, 박영호 역 (서운: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4), 382.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집과 자기 방 외에도 일터에서(엡6:5-8), 사회적 접촉을 통하여(골4:5-6),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감으로(벧전3:15-16) 신앙을 나타내고자 노력하였다. 초대교회는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일도 하였기에 교회와 현장의 연관성은 오늘날보다 훨씬 밀접하였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교 활동이 더 많았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선교를 하기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과 접촉해야한다는 가정 하에 일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들고 갔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리스도 공동체를 형성할 기회가 있었다.

2) 현대교회의 소그룹 형태들

현재 많은 전통교회 내에는 다양한 소그룹들이 존재한다. 소그룹에서 가정교회가 성장해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소그룹을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정교회와 가장 가까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가정교회의 특징에 관하여 혼돈을 하게된다. 허지만 가정교회와 다양한 소그룹들과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소그룹을 기본적으로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다. 그 첫 번째가 "관심그룹", 두 번째가 "활동그룹", 그리고 세 번째가 "지원그룹"이다. 그리고 네 번째 범주인 "책임그룹"이 있는데 이는 앞의 세 가지 그룹의 요소를 결합시킨 것이다. 다섯 번째 그룹으로는 "셀 그룹"을 들 수가 있는데 이는 셀그룹 Church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본 소고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가정교회"에 조직적인 면에서는 가장 가깝지만 그 역동적인 기능에 있어서는 다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가정교회"이다. 이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47]

A. 관심그룹

이 그룹에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참가하기 바라는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인다. 그룹의 구성원들은 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특별한 관심사에 집중하기 위하여 모인다. 이 관심사의 대부분은 성경공부이다. 그들이 공동체를 세우지만

[147]Ibid., 105.

그들의 일차적인 목적은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관심인 성경지식 습득에 있다. 비슷한 연령층들이 모이며 어린이들은 제외된다.

B. 활동그룹

이 그룹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공동활동을 중심으로 함께 모이는 그룹이다. 구성원들은 주로 하나님을 위해 교회 내부나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어떤 활동을 하는데 집중하기 위하여 모인다. 이 그룹의 활동은 주로 자선사업, 의료사역, 기타 사회활동 등이 될 수 있다. 그들의 주된 목적은 사회활동에 있다. 어린이들은 이 모임에서 제외된다.

C. 지원그룹

이 그룹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를 도우려는 공통된 바람 때문에 모인다(마약, 술, 직업, 가정문제 등). 그룹의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교제하는데 집중하기 위해 모인다.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삶을 나누지만 지속적인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일차적인 초점이 있다. 일정한 성장점에 도달한 사람은 떠날 수 있다. 어린이들은 이 모임에서 소외된다.

D. 책임그룹

이 그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헌신한다. 그러나 이 헌신은 강하지만 제한적이다. 구성원들은 상호 지원적인 자세를 넘어서 서로에게 의무와 책임을 진다. 그들에게 있어서 일차적인 목적은 서로에게의 헌신이며 공동체적 의식을 지니지만 교회서 해야 하는 것의 보충이라고 생각한다.

E. 셀 그룹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관습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구성원들을 가정 셀(Home Cell)로 조직하고 각 신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어느 정도 가정교회와 비슷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첫째로 셀교회 모델은 초대교회의 구조를 지나치게 20세기 경영적인 사고 방식을 반영하는 조직적인 구조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리더쉽의 개념은 비전문적이고 비계급적인 것으로 묘사되지만 각 그룹에는 특정 지도자가 있고 비록 종으로서의 리더쉽이라는 언어가 사용되지만 모든 책임있는 위치는 '직분'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전문가, 위원회, 조직의 위계질서를 근간으로 하여 경영적인 형태로 세워지는 대부분의 교회들의 '프로그램에 기반을 둔 설계'와는 대조적으로 셀그룹 교회는 그 자체를 '사람에게 기반을 둔 설계'로 설명한다.

둘째로 기능적인 차이점을 볼 수가 있다. 새로운 그룹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빠르게 변화하며 깊은 관계를 세울만한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때문에 그들이 개발해야하는 공동체적 유대관계는 약화된다. 어린이들은 목격자로 간주된다.

F. 가정교회 형태의 그룹

앞서 언급한 다른 그룹들처럼 가정교회 구성원들도 함께 모여 관심, 임무, 필요를 추구한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와 공동체적인 삶을 세움으로서 그리스도인 가족이 되는 것을 훨씬 더 강조한다.

가정교회에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일차적으로 하나님과 서로에게 관심을 집중하기 위하여 모인다. 다른 그룹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활동을 하지만 가정교회의 주목표는 하나님 아래에서의 수준 높은 공동체적 삶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나라에 합당한 태도, 가치관, 우선순위, 헌신 등이 공통체적으로 나타나는 삶을 의미한다.

3) 가정교회 사역의 기본 원리

어떤 한 그룹이 성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그룹의 역동성, 토론방법, 지도자의 스타일, 인간관계 기술 등 인위적인 방법들을 연상하게 된다. 이러한 사안들은 그룹에 대하여 부차적인 공헌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들이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단원에서는 가정교회를 세울 때에 기본적으로 유념해야 될 사항들을 생각해 보았다.

A. 상호이해와 신뢰

서로에 대해 잘 모를수록 사람들 사이의 장벽을 낮추는 것이 더 필요하다. 심지어 교회에서 여러 해 동안 어깨를 부딪혀온 사람들도 서로 극히 제한적으로 접촉했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임에 올 때 경계 태세를 하고 최선의 모습으로 온다. 그들이 편하게 느끼고 자신의 가면을 벗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다음의 방법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로 당분간 그룹을 작게 유지한다. 작은 그룹일수록 서로간의 마음 문을 열기가 더 쉽고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그룹에서는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다. 가정교회는 10명 이내가 적당하며 10명이 넘을 경우 두 그룹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룹의 규모가 커지기 전에 서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고하게 세우는 것이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활동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이 서로 서로를 잘 알지 못할 때에는 성경공부를 하기 전에 서로에 관해 알아야 한다. 서로를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깊은 성경공부에 들어갔을 때에 영적인 생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시 많이 돌아 가야하는 문제가 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 가는 방법은 매주 한 가족이 가정교회에 참여 할 때까지의 삶에 관하여 이야기하도록 격려한다.

그룹은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느 배경에서 왔는지, 그들의 특별한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가 알게된다.

B. 구성원이 결속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보다 사람들을 묶어주는 더 좋은 방법은 없다.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시간 낭비가 아닌 가치 있는 실천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간단한 전략적 사역에 신비한 힘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서둘러서 실천되는 사항은 아니다. 그룹의 결속에 도움이 되는 두 가지 효율적인 수단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사를 모임의 중심으로 만든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적 식사는 종교적이기도 하였지만 사교적이기도 하였다는 것은 유대 식탁문화를 통해 이미 살

펴보았다. 현대인들이 종교적인 행사와 사교적인 행사, 예배와 교제, 사랑과 진리를 분리하는 현상은 참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견해를 멀리 떠나 헤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그 자신을 완전히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사뿐 아니라 이것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는 정신을 기념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식탁을 둘러싸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일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 수 있게 한다. 식사야말로 서로간의 상호 교환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며 이런 상호 교환을 고무하기 위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주는 만족감을 차치하고라도, 식사에는 사람들을 독특한 방법으로 묶어주는 어떤 특성이 있다.

둘째 자발적으로 질문, 자원해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라.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지키는 이유중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기술과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올바른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연습으로 개발해야한다. 교회의 연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기여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C. 자유와 융통성

자유와 융통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룹의 생활에서 놀이를 정규적인 부분이 되게 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은 특별히 우리의 삶에 놀이를 다시 소개하도록 돕는데 중요하다. 그들은 우리의 자아가 의식하지 못하고 예상치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묘미를 어느 정도 회복하도록 도와준다.

D. 더 중요한 원리

가정교회를 해 나가는 경험 속에서, 그룹이 잠재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돕고

또한 이 잠재력을 성공으로 바꾸는 세 가지의 원리를 다루었다. 이러한 원리들은 실제적인 경험에서 나오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삼위 일체적인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성부의 섭리적인 활동, 성자의 구속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개발하기 위한 우리들의 시도에 상당히 구체적인 어떤 것을 가지게 하는 성령의 변화시키는 활동 등이다.

이것은 가정교회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교회의 시작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실제적인 신학적 원리들을 인식하지 못하면,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개발하려는 시도는 약화된다.

1). 기초,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정교회를 형성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 사이에 이미 형성시키신 인간 관계의 망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망들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준비의 일부분 인 것이다. 그것이 지리적 근접성이든지 상호 관심사가 같은 것이든지 혹은 영적인 친밀성에 기본을 두고 있는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이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관계들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모아 놓으신 것에서 일을 해야한다. 절대로 인위적으로, 위에서 아래의 태도로, 도시의 지도를 참조하여 이름의 목록을 만들거나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함께 붙여 그룹을 만들려고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당연한 결과로서 하나님은 각 개인의 삶에 섭리적으로 역사 하셔서 그들이 일상 생활의 과정을 통하여 가정교회에서 특별한 종류의 기여를 하도록 준비시킨다.

2). 과정, 자아 부인으로 그리스도를 따름.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교회에서도 오직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는다.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들의 태도와 구조가 어떤 변화를 거치도록 허용 할 때에 비로소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교회 운영방식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문을 열지 않는다면 새로운 형태의 교회는 일어날 수가 없다.

3). 표준, 성령의 인도.

교회는 씨앗을 심고 성장하여 성령의 물 주심으로 성장 할 때에 번성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 현대의 교회들은 그 발전이 경영적인 사고와 기술의 적용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본다. 가정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 조직을 이룰 수도 있고 좀 더 생산적인 방법들도 있다.

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할 때에 성령의 방법을 감지하는 것과 이와 반대로 주로 세속적인 조직들로부터 토출해낸 지도자 지침과 그룹의 역동성 이해에 의존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가족을 양육하거나 우정을 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교회를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창출해 낸다고 하기보다는 유기체적인 것이다.

관계개발에 필요한 지침서에 너무 많이 의존하거나 기술 등을 너무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발전 과정을 형식적이고 인위적인 것으로 만들고 만다. 이것은 그룹이 정상적으로 관계를 개발해 나가고 운영해 나가는 방법을 결정하는데 방해요소가 된다. 그러한 지침서나 그룹 역동성에 관한 연구들이 아무 것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통찰력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앞에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조명해 주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 기술한 것들은 가정교회 모임이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거나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너무 계획적이라면 사람들에게는 더 깊은 것을 나누거나 또는 가장 열매가 많이 있는 방향으로 그룹을 인도하시도록 성령님께 의지할 여지가 없게되고 만다. 이런 것들은 또한 성격상 너무 수평적이고 관계 중심적이어서 세속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수직적인 관계 또는 영적인 영역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4) 소그룹 가정교회 사역 도입의 주의 점

이미 초대교회의 가정교회 모습들과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가정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았다. 그 시대의 모습들을 그대로 현대 교회에 적용하려고 시도할 때 유념해야 될 것은 너무 그들을 즉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상화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비현실적인 기대만 생길 뿐이다. 바울 역시 그가 그들에 대해 가졌던 비전을 구현하는데 종종 실패 한 것을 볼 수가 있다.

바울은 그의 교회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인 가족의 일원으로 보기를 원했다. 그러나 한 가족 내의 관계가 항상 따뜻하고 지원적인 것만은 아니다.

가족들은 때때로 문제와 위기를 겪기도 한다. 한 가족의 구성원들은 너무도 친밀하게 함께 살기 때문에 극단적인 부조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고린도에 이러한 긴장이 존재했다. 몇몇 구성원들은 서로 사이가 나빠져서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의뢰했다(고전6:5-7). 다른 사람들은 누가 최고인가에 관해(고전1:11-13) 또는 누가 옳은가(고전11:18-19)에 관해 다투었고 공동체 내에 배타적인 하부 그룹들을 형성하고 싶어했다(고전11:20-22).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더 민감한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했다(고전8:7-9).

다른 사람들은 은사를 덜 받은 구성원들이 열등감을 느끼도록 만들면서 자랑하려는 경향이 있었다(고전14:16-19). 대체적으로 책임감과 훈련이 부족했고(고전14:23; 26-27), 나이 많고 더 성숙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전16:15-18). 바울은 이러한 가족적인 부조화에서 긍정적인 요소 한 가지를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이러한 불일치와 갈등을 통해서만 진리와 그 진리를 견지하는 사람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다(고전11:18-19).

바울은 그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성령님께 마음을 열도록 격려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가운데 바울은 사람들이 성령을, 그들의 주관적인 욕망이나 그 시대의 정신과 혼돈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였다. 고린도 교회의 몇몇 교인들은 그 시대의 사고방식(고전14:32-34)과 당대의 도덕 기준(고전6:15-16)에 아주 많이 적응되어 있었다. 어떤 이들은 고린도의 동료 시민들을 판단하였고(고전5:12-13), 반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이웃 사람들의 도덕적인 미성숙함보다도 못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고전5:1). 많은 경우 이러한 행동들은 영적 우월 의식과 함께 일어났다.

바울의 교회는 당시의 다른 어떤 종교 단체보다 더 각 개인의 참여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는 지나칠 수 있었다. 특히 전에 그러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했다. 따라서 모임은 때때로 무질서해졌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말하려 하거나(고전14:27) 혹은 너무 길게 이야기 했다(고전14:29-32). 너무 많은 사람이 질문을 해서 모임을 방해하였다(고전14:35). 어떤 이들은 공적인 종교 체험을 무시한 채 자기 개인의 종교적 체험에만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했다(고전14:23).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바울은 자유에는 형식이 있으며 자발적 행동(spontaneity)에도 리듬이 있고, 참여에는 책임이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했다.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이 염려하였던 이러한 문제점들이 오늘날 현대교회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 당시 의 문제들과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똑 같은 차원의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론 투르딩거 역시 그의 「가정 소그룹 모임」에서 가정 모임을 방해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몇몇 함정들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148]

- 파벌들: 모든 지체는 한 마음이어야 한다. 두세 명의 지체가 편견이나 치우친 생각을 가지고 함께 어울리며 자신들의 이러한 생각을 표출하는 것은 코이노니아를 몰래 침식시킨다.
- 작은 왕국들: 한 무리에서의 성공은 그 인도자를 취하게 만들어서 그가 그 무리를 자기 손에 장악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은 왕국'을 세우게 되는 위험이 있다.
- 군림하는 자세: 지체들보다 뛰어나게 능력이 많은 인도자 중에는 자신의 작은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지는 않을지라도 자신의 모임을 과도하게 주장할 수 있다.
- 반역자들: 가정모임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자들
- 외향적인 자들: 인도자가 아니면서 모임을 주관하기를 항상 원하는 사람. 종종 좋은 의도는 갖고 있으나 가정 모임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 분명한 목표가 부족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가 정체되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어디쯤 가고 있는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

[148]론 투르딩거, op.cit., 126-130.

다.

■ 단조로움: 다양성은 가정교회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소그룹 운동은 그 운동이 마치 교회를 부흥시키는 한 방편이라도 되듯이 대규모로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 전에는 교회내의 하위 그룹들이 주로 주일학교로 모였다. 여타의 성경공부, 기도모임, 선교모임 - 청년, 여성, 남성 그룹 같은 - 들도 교회내에서 모임을 가졌다.

가정에서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던 소그룹 모임들은 그 문제들로서 몰래 무리를 지어 파벌을 조성하는 것으로 의심을 받았고, 실제적인 삶을 나눔에 있어서 불건전한 외부 세력에 의한 탈선하기 쉬운 위험이 있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성경의 진리로부터 이탈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실제로 현대의 교회가 가정교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비단 위에서 열거한 운영상의 문제들 보다 제도상의 문제, 조직상의 문제에 더 많이 부딪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현대교회 는 조직만 비대하여지고 그 기능 즉 평신도들이 감당해야할 사역의 폭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의 가정교회들은 조직은 없어도 그들은 각 지체로서 사역을 감당하였다. 물론 후에 가서는 다양해진 사역들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들이 짜여 지기도 하였지만 그것도 기능을 가능케 하기 위한 즉 사역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조직이었지 사역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위에 군림하기 위한 조직은 아니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역시 조직과 관련된 문제이다. 현대 교회에서 어쩔 수 없는 일 이지만 지역교회(Local Church)를 무시할 수 없다. 지역교회(Local Church)와 가정교회는 일치성을 유지해야한다. 둘이 아닌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흔히 지역교회(Local Church)와 가정교회의 일치성을 잃어버림으로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가정교회의 독선 추구, 더 나아가서는 지역교회(Local Church)와의 의식적인 분리인데 실제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정교회 사역을 시작하는 현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보여진다.

그렇다면 지역교회(Local Church)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역교회(Local Church)는 최소한의 조직을 가지고 가정교회가 최대한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가정교회가 사역할 수 있는 무대도 마련해 주어야 하고, 평신도들을 동력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해 주어야 하고, 평신도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선교적 자료들도 제공해 주어야 하며, 그런 프로그램을 가능케 하는 지식이나 기술교육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초대교회와 다른 점은 지역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가정교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교회의 특성상 그 관계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가정교회 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교회 사역을 하는 애틀란타 한인 침례교회의 김재정 목사는 가정교회 사역을 막는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사역의 결실들을 말하였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49]

- 어려움

  첫째 전통적 교회관에 젖어있는 기존 성도들의 위기의식.

  둘째 전통적인 교회의 조직과 행정.

  셋째 평신도 사역자에 대한 불안감.

- 극복 방법

  첫째 이 사역이 성경적인가?

  둘째 이 사역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혹은 이 시대에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사용하시는 사역인가?

  셋째 이 사역이 지역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 교회에 적합한 사역인가?

  넷째 앞의 세 가지 조건이 맞는다면 함께 뛰어볼 마음이 있는가?

- 사역의 결실

  첫째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평신도 사역이 이루어졌다.

  셋째 직분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 없어졌다.

  넷째 교회의 조직이 단순화 되었다.

---

[149]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9), 236-242.

다섯째 성도들의 사역은 다양하게 세분화 되었다.

여섯째 교회의 방향과 목적이 성경적으로 세워졌다.

지금까지 열거한 가정교회의 이야기들은 결코 현대교회가 초대교회의 가정교회 모습을 그대로 회복하고자 함은 아니다. 사도 바울의 접근 방법은 부분적으로 복음 자체가 영향을 끼쳤지만 사회적 문화적 조건에 따른 변화를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초대교회의 가정교회의 모습을 연구하고 역사 속에 나타난 가정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본 것은 그들이 모였던 그 방식대로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모여야 하는가를 발견한 방식대로 우리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대 교회의 가정교회 모습들을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가정교회의 조직에 비해 현대교회의 조직은 너무 커져있으며, 초대교회 가정교회의 사역에 비하면 현대교회는 너무 작은 사역을 하고 있는 감이 든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어느 특정한자 들만이 감당하기 때문에 그 폭이 작은 것이 현실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교회의 모습은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그 방법으로서 조직은 간단하게 최소화시키고 그 기능은 최대한으로 다양하게 세분화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 기능 면에서 어느 정도 닮아가지 않나 생각한다.

점점 조직화되고 제도화되어 가는 현대교회들, 결국에는 복음의 탄력성을 상실하고 세속화되어 가는 현대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위기를 맞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며, 어떻게 보다 쇄신된 기독교가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기독교 초기의 평신도 소그룹의 한 형태인 가정교회는 나름의 해답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 고 있는데이 그들이 돌아가고 싶어 하는 초대교회는 바울의 교회관에 그 기초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교회는 다시 한 번 초대교회의 가정교회에서 나타난 바울의 교회관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교회는 가정과 같이 되어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다 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어

느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이 교회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누구나 한 가지 은사는 받았다. 그것은 공동체로 모일 때 무언가 한 가지는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다. 넷째로 초대교회는 공동체적인 삶 뿐 아니라 밖을 향한 관심이 있었다. 물론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들에게 충분한 생명력과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내부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부적인 관계가 확실할 때에 외부로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2000년이라는 시간과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 공간을 뛰어넘어 초기의 가정교회로 되돌아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기존의 교회체제를 유지하면서 초대 가정교회를 개 교회에 적용하려는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모습들을 그대로 현대 교회에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비현실적인 기대만 생길 뿐이다. 바울 역시 그가 그들에 대해 가졌던 비전을 구현하는데 종종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이 염려하였던 이러한 문제점들이 오늘날 현대교회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 당시 의 문제들과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똑 같은 차원의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가정교회 형태의 평신도 소그룹 사역을 취함에 있어서 지역교회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여 본다.

- 첫째, 지역교회와 가정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일치성을 유지해야 한다.
- 둘째, 지역교회는 가정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만을 유지한다. 그 조직은 가정교회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세워주는 조직이되어 야 한다.
- 셋째, 지역교회는 가정교회들이 감당할 사역을 다양하게 세분화하여 확대시켜 제공한다. 평신도들의 의식의 한계성을 넘어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 넷째, 지역교회는 가정교회 구성원들이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훈련을 제공한다.
- 다섯째, 지역교회는 훈련시킨 평신도들을 믿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부여

받은 소명감을 깨닫게 하여 직접 사역에 감당하도록 한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어 지듯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맛을 잃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세속 사회에서 설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가정교회가 추구했던 그 정신만큼은 점차 무기력해지고 있는 현대 교회에 분명 그러한 맛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현대교회보다 더 힘들고 악조건 속에 초기 가정교회가 처해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며, 교제를 나누며, 제자들을 양육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더 나아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힘차게 수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다.

현대교회 안에서 초대교회의 가정교회가 지녔던 복음적이고 건강한 단면들을 발굴하여 적용할 때, 교회는 초대교회의 가정교회에 잇대어 그 생명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흔히들 교회 성장을 위한 어떤 방법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를 원한다.

교회의 성장은 이차적인 문제이다. 교회가 원래 교회의 모습, 원래의 기능을 되찾는 것 즉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모습을 되찾는다면 교회는 분명히 성장하게 되어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장 자연적인 성장을 보게 될 것이다. 소그룹의 형태를 초대교회 가정교회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분명 현대교회의 갱신을 위한 한 모델임에는 분명하다.

XII. 건강한교회로의 목회전략 프로젝트의 실행

1. 연구반원 구성과 사역

이 름	성 별	나 이	직 업	역 활(사역)
김종용	남	55	목회자	개척교회 담임목사
전태수	남	54	자영업	성가대 지휘자
박한경	남	62	직장인	본교회 장로
이은화	여	45	자영업	기쁨선교회
이인아	여	42	전도사	본교회 전도사
박태권	남	43	목사	개척교회 목사

2. 의식변화을 위한 실행

1)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되었고 가정의 교회의 역할에 대한 개념을 의식화 하였다.

2) 교회는 지체들인 평신도의 활동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이해를 가지게 하였다.

3)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라는 ‘만인제사장’의 이론을 소개하였다.

4) 소그룹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교를 3개월 동안 씨리즈로 하였다.

5) 평신도 일대일 양육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6) 평신도 의식을 깨우치고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지로 조사 하였다.

3. 행동 변화를 위한 실행

1) 소그룹 공동체에 참여하게 하였다.

2) 평신도 제자 교육을 참여하게 하였다.

3) 지체로서 서로 섬기는데 참여하도록 하였다.

4) 구역에 참여하여 직접 설교를 하도록 하였다.

5) 모든 진행을 스스로 이끌어 가도록 하였다.

6) 양로병원에 정규적으로 참여하게 하였다.

4. 구조 변화를 위한 실행

1) 구역 구조로 개혁하였다.

2) 평신도가 구역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변화 시켰다.

3) 예배의 구조를 전통예배에서 열린 예배 구조로 개혁하였다.

4) 성도들의 구조를 구역 구조 행정으로 바꾸었다.

5) 구역별로 교회를 조직하여 구역 구성원 모두에게 직분을 주어 구역 행정에 다 같이 참여하게 만들었다.

6) 예배의 장소가 교회당이 아닌 개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구조와 행정을 개혁하였다.

XIII. 프로젝트 실행에 대한 분석

1. 변화에 대한 기대

1) 의식변화 실행 분석

목회적 돌봄을 통하여 변혁 하여야 한다는 의식변화를 통하여 교회 구조변혁을 위한 담임목사의 세부적인 목회계획이 세워지고,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믿음의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키며 문화 차이에서 오는 갈등 구조를 새로운 목회 현장의 문화를 창출하여 새로운 구조 변화를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었다.

의식개혁을 통해서 현재 구성원들을 목회적 돌봄을 통하여 교제하는 교회로 변혁이 교회 성장에 대한 방법임을 인식하고 함께 공유하고, 섬김과 식탁 교제, 평신도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하여 참여의식과 개혁을 위한 의식변화를 가져왔다.

2) 행동변화 실행 분석

교회내의 평신도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평신도 섬김 교육과 평신도 양육을 통하여 교인들에게 동기부여와 변화를 주었다.

(1) 각자 신앙에 맞는 성경 공부와 일대일 양육 프로그램은 교인들의 교회 활동의 섬김의 행동 변화를 주었다.

(2) 구역안에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활동적 참여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구체적인 교회활동의 행동변화를 주었다. 단계별, 체계별 평신도 제자 만들기 위한 교육의 과정과 섬김을 통한 교회활동은 교회성장의 일정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며, 교회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3) 구조변화 실행 분석

평신도 훈련인 교육을 통하여 구역 공동체인 구역 지도자를 양육하고, 구역예

배를 매주 드려서 교회본질의 섬김과 교제의 사명을 깨닫게 하며, 새신자는 반드시 구역부터 들어가서 예배하고 학습하게 하고, 기존신자는 평신도 지도자로 양육하는 체계적인 교회의 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구조 변화를 통하여, 교회본질을 되찾았다. 또한 교회를 살아 있는 유기체구조로 이해하고 접근하여, 전인성과 상호 보완성, 그리고 동질성을 갖게 되었다. 교회의 변화과정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관찰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을 극대화 시키고, 교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겪는 갈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교회로 지속시켜 나가게 되었다.

2. 연구반의 평가와 한계

1) 평가

(1) 2011년 2월 14일. 본 연구자의 목회 유능성에 대한 연구반들의 평가는 목회자, 기독교 교육가, 설교자, 신학자, 상담자 순으로 반응되었다. 연구반의 본 연구자에 대한 구체적 인 평가는 추진력, 신실성, 정확성, 솔직성, 겸허와 인내 등의 순서로, 과분할 정도 목사의 장점과 강점을 모든 항목에서 열거해 주었다.

(2) 연구자들의 바램은 성도들과의 허심탄한 대화, 친밀한 인간관계를 더 잘해 주었으면 하고 지적해 주었다. 이와 같은 평가는 자기 성찰과 과감한 변혁의 결단을 절실히 느끼게 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의 생활과 함께 더욱 진지한 개발이 필요한 분야라 생각한다.

(3) 본 연구자의 유능성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더욱 더 개발할 것임을 다짐하며 부정적인 지적은 새롭게 변혁되어야할 점이요,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도전을 받게 되어 무척 고맙게 생각이 든다.

반복된 사례들을 적극 활용하여 나타난 결과물을 가지고 본 필자가 지향하는 교회의 특성에 맞는 정체성을 찾아 계속 시행하여 남가주 명성 교회에 맞는 영적, 양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2)한계

(1) 이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인적자원의 문제의 한계

(2) 교회관의 전환문제: 예배는 교회당에서 드려야만 한다는 전통 사고 관으로 가정은 구역예배 정도 드리는 곳으로 이해하는 한계의 사고 문제

(3) 인간관계보다 이해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이민사회와 이민 교회의 문제

(4) 재정의 한계 극복 문제

(5)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

XIV. 목회 유능성에 대한 평가및 자기 평가(Personal Evaluation)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연구반의 평가 및 Feedback, 자신의 평가, 면담 등을 사용했다.

1. 상담자

1) 평가기준 :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상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 상담자의 문제를 경청하여 피 상담자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심방상담, 가정상담, 특별 상담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문 양서나 강의, 세미나 참석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2) 평가 : 본 연구자는 오랜 경험에서 목회 상담을 하면서 무척 어려운 일이 "상담"이라고 생각 해 왔다. 피상담자의 인격을 이해해 주며 수용해 줄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피상담자의 비밀을 절대 보장해 줄 수 있는 신뢰성의 바탕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점에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상담분야의 개발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상담시에는 위의 사항들을 깊이 생각하여 사례를 취급하였다. 우선 상담자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상담자의 문제를 경청하고 피상담자가 자신이 성경의 조명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적이며 성과가 있었다.

2. 설교자

1) 평가기준 : 문화의 갈등에서 오는 것에서 현 사회와 새 문화의 적응력에 맞고, 시사성이 있는 설교의 소재를 찾아 매 주마다 씨리즈로 설교를 한다. 또한 구역의 중요성과 평신도 제자 의식에 관한 설교를 한다.

2) 평가 : 평신도 지도자의 중요성에 관한 씨리즈 설교를 하였더니 성도들의 마인드가 지체의식이 강해졌고 교회의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하게 되었고 구역활동

과 지도자 양성의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다.

3. 신학자

1) 평가기준 : 건전한 신학이 바탕이 되어야 올바른 목회와 설교, 또는 성서 연구를 할 수 있다. 다원화와 복합적인 사회변천에 따라 목회적 돌봄에 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즉 여성신학, 흑인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문화신학, 해체신학, 이민 신학등 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본인은 미흡하다.

2) 평가 : 위의 다양한 양서는 신학의 새로운 시각을 넓혀주고 자신의 변화와 더불어 목회에 도움을 주었다. 이번 기회에 포괄적인 신학 서적과 다양한 현대 신학자에 대한 연구는 본 연구자의 목회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특히 이번 계기로 100여권의 다양한 신학 양서를 구입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다.

4. 자기 평가 분석

1) Evaluation 평가

구역 섬기는 공동체로 전환한 본 남가주 명성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은 교회가 형식과 제도중심에서부터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특징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구역활동은 전통교회를 갱신하고 성장시키는 교회의 본질적 요소들을 가장 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형식화되고 제도화된 건물 중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적 관계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성경적 교회 본질을 내는 교회로 바뀌게 되었다. 작은 교회로서 구역 활동과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개인이 모두 복음전파의 강력한 도구가 되는 구조가 되었다.

둘째 신앙교육이 폐쇄되고 비인격적 교실에서의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고 전인격적 관계가 일어나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삶의 변화와 말씀의 실천이

가능해졌다. 개인을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서 그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실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역 안에서의 바른 신앙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조이다.

셋째 구역활동은 그리스도인의 성장 무대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보살피는 효과적인 양육의 수단이 되었다. 오늘날 목회적 보살핌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역을 통해서이다. 어떤 목회자도 구역이 줄 수 있는 만큼의 보살핌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150]

넷째 평신도 사역자 개발이란 측면에서 리더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평신도가 또 다른 평신도를 전도하고 양육해서 리더로 세워주는 역할이 견습과정을 통해 적절히 이루어진다. 따라서 구역을 통한 리더양성은 분산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양산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151]

다섯째 구역은 모든 신자들이 자기에게 부여된 은사를 개발하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격려 받으며 또한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된다. 구역은 만인제사장으로서 평신도 지도자를 인정하는 주된 수단이다. 앞으로 교회의 진보와 부흥을 가져다 줄 열쇠는 더 많은 교역자들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를 늘리는데 달려있다고 믿는다.[152]

여섯째 구역활동을 통한 목회적 돌봄은 모든 활동을 불신자를 구원하여 그룹을 분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됨으로 자기복제 능력이 강하고 재생산 능력이 뛰어나 불신자들의 세계에 침투하여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

본 연구자는 스스로를 평가해 볼 때 위의 평가된 분야에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세 가지 능력 면을 선택하여 본인을 스스로 평가해보고 수정 혹은 개발해 보려고 한다.

1) 신학자 : 건전한 신학이 바탕이 되어야 올바른 목회와 설교, 또는 성서 연

---

[150]Carl F. George, *The Coming Church Revolution*, 179.

[151]Ibid., 46.

[152]Ibid., 53.

구를 할 수 있다. 다원화와 복합적인 사회변천에 따라 이런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즉 여성신학, 흑인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문화신학, 해체신학, 이민신학 등 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본인은 미흡하다.

2) 상담자 : 상담자는 어느 누구나 다가와서 쉽게 자신의 고민을 말할 수 있도록 다정 다감스러운 면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개방적이고 진지하고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피상담자의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피상담자의 말을 기울여 듣는 입장에서 상담을 수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이 분야에서 관심이 많이 있으면서도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히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만 할 것 이다.

3) 교육자 : 본 연구자는 지식적인 교육에만 너무 치중한 점이 있었다. 연구자가 솔선수범하여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부족한 점이다. 이제는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될 것이다.

XV. 결론 및 제언(Conclusion)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다. 21세기 1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이 살아남아 있을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미래는 교회가 만들어 가야 한다. 교회가 미래에 대한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목적도 없고 아무 계획이 없다면 분명히 미래는 되는대로 가고 말 것이고 교회 또한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길가에 버려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쓸모 없는 소금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소망은 21세기의 인류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교회의 모습으로 변모해 가야만 한다. 지금까지 본 논문은 21세기에 일어날 변화와 이에 대처하여 교회의 본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복지목회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복지목회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사회에 대한 교회의 요청이며, 그런 의미에서 교회 존립의 중요한 실천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래의 교회는 복지목회에 대하여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목회자의 의식의 변화뿐 아니라 교회 차원의 실천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예수님은 복지목회자로서 병든 사람들은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옥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방문하게 하시고 나그네들에게는 영접하게 하시며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직접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심으로 복지목회의 내용과 그에 접근하는 모형들과 방법들을 보여주셨다. 이것은 오늘과 같은 복합적인 사회에서도 복지목회의 가능성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본으로 삼게 하신 것이다.[153]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복지목회를 통해 이 땅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교회의 바깥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많은 선한 동역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건설의 전위대는 교회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제일선에서 싸우는 공동체이고 이 싸움을 위해 직접적으로 일할 일꾼을 양성하는 공동체이다.[154]

---

[153] 맹용길, *복지목회론,* Ibid., p. 124.

이를 위해 우리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끊임없는 교육으로 그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 섬김의 실천을 가르치며, 그들의 능력을 키워주고, 그들을 세상의 일터로 보내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를 향해 현재의 노력과 열심을 품고 복지목회를 실천하는 교회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 복지목회의 미래는 극히 밝은 미래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

[154]김명룡, *열린신학 바른 교회론*, Ibid.,51.

참고문헌(Bibliography)

1. 번역서적

Alvin Toffler, 김태선, 이귀남 옮김,『제3의 파도』(서울: 홍성사, 1987), Toffler, 이부행 옮김,『예견과 전제』(한국경제신문사, 1991), 18-21.

Bruce Nichols, J, A Theology of Gospel and Cultre, 한화룡역, 복음과 문화의 신학, (서울:도서출판 엠마오, 1987), 102.

C. Peter Wagner, 교회성장원리, 권달천역, 생명의 말씀사(서울:1980), 166-168.

Carl F. George, The Coming Church Revolution, 179.

Carle C. Zimmerma, Family and Civilization(New York: Harper and Bros., 1947), 761.

Gilbert Bilezikian,「공동체 101」, 출판부 역(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8), 73-74.

H. J. Clinebell 엮음, 『교회와 지역사회』오성춘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1994), 74.

Howard A. Synder, The Problem of wine skins, (Inter-Varsity Press, 1975), 140-141.

Howard Snyder,「그리스도의 공동체」(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71-72.

Hendrik Kraemer, 『교회혁신의 신학』유동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2), 145.

Howard A. Snyder, 『21세기 교회의 전망』 박이경, 김기찬 역, (서울: 1996), 189-191.

John Naisbitt, 서문호 옮김, 『제 4의 물결』(서울: 원음사, 1983), John Naisbitt and patricia Abuedene, 김홍기 옮김, 『메가트랜드 2000』(한국경제신문사, 1990), 18-21.

Letty M. Christian Education in Mission, 정웅섭 역, 기독교 교육의 새전망,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7), 138-142.

Livis J. Sherill,「만남의 기독교교육」, 김재은, 장기옥 공역(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77.

Moore, Waylon B, 새신자 양육의 원리와 방법, 98.

Bruce Reichmann, *교회의 의미와 사명,* 김득중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1), 13

Carl F. George, *The Coming Church Revolution*, 179.

David Watson, *제자도,* 문동학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8), 13.

Gerhard Lohfink,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정한교 옮김 (왜관: 분도 출판사, 1985), 162.

Henry C. Thiessen, *조직신학 강론*,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635

John Drane, *초대교회의 생활*, 이중수 역 (서울: 두란노 서원, 1992), 77.

Louis Berkhof, *조직신학 하,* 권수경 이상원 옮김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1996), 827

Millare Erickson, *교회론*, 이은수 역 (서울: CLC, 1992), 32

Michael Green, *초대교회 복음전도*,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1994), 382-384

R .Laid Harris 외, *구약원어 신학사전*, 번역 위원회 옮김 (서울: 요단출판사, 1996), 986

Robert Banks,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 장동수 옮김 (서울: 여수룬, 1999), 58-59

Robert Banks, Julia Banks,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장동수 옮김 (서울, IVP, 2000), 51-63.

Ron Torudingu, *가정소구룹모임,* 126-130.

Ron Nicholas 외,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 신재구 옮김 (서울:IVP, 1999), 144-146.

Robert Banks, *1세기 교회의 예배 모습,* 장동수 옮김 (서울: 여수룬, 1989)

Waldron Scott, *사회정의와 세계선교를 향한 제자도,* 강선규 옮김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5), 213.

Zene A. Getz, *현대교회 성장학,* 임성택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41.

Ron Nicholas, 소그룹운동과 교회성장, 신재구역, (서울: 한국기독학생 출판부, 1995), 16.

Robert E. Coleman,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홍성철역, 주님의 전도계획(서울:생명의 말씀사,1980), 31-34.

Stevens, Jim. Jenson, Ron, 생동하는 교회성장, 205.

Webster Seventh New Collegiate Dictionary, 1971년판, s. v. "comunete."

2. 국내서적

김광률. *장년부 성서학습 연구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0), 28.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3), 8

김기원. *교회의 사회적 기능*, 한국기독교사회복지회 편.『기독교와 사회복지』(서울: 예안, 1995), 13-26.

김동배, *교회 사회봉사 사업의 실태*,『교회 사회봉사 총람』(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편, 1994), 48.

김명룡, *열린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33.

김명자, *현대사회와 과학*. (서울: 동아출판사, 1992), 20.

김성철, *지역사회에서의 교회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일 고찰*, 『기독교사회복지』제2호(1992), pp. 49-50.

김영한, “변화하는 세계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교육자료 16집(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25.

김현철, 목산교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서울: 기독교한국침례회 목산교회, 1998), 38.

권수한. *새신자 목회에 관한 연구*. (장신대 신대원 석사학위논문. 1994), 62-65.

맹용길, “복지목회의 의미와 가능성 모색”,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세미나,1995), 5-7.

맹용길, 『복지목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11-12.

명성훈, 교회성장 반드시 됩니다 , (서울:국민일보사, 1995), 53.

명성훈, 당신의 교회를 진단하라, (서울:교회성장연구소, 1960), 218-219.

문석호, 「21C 한국교회와 공동체 운동」(서울: 도서출판 줄과추, 1998), 70-71.

민남기, 한국식 전도법(서울: 나침반 출판사, 1997), 211.

박영호, 『기독교와 사회사업』(서울: 예수교 문서선교회, 1979), 22-48.

박종삼, "사회사업의 시각에서 본 교회의 봉사활동",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2), 178.

보건복지부노인복지과장, "1998 노인복지시책", (보건복지부 국립사회복지연수원 노인복지시설생활지도원반교재, 1998), 4-5.

옥한흠, 사랑의 교회 현장분석, 제40기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1999. 3. 15-20.) 핸드북, 17-20.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두란노서원, 1985), 302-305.

유의웅, "지역사회봉사 목회사례", 이삼열 편,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방법: 기독교 사회봉사 목회자 훈련교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사회부, 1993), 69.

유의웅, 『현대교회와 사회봉사』(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19.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역사의식』 (서울: 지식산업사, 1981), 12.

이명선, "한국교회와 지역사회 봉사", 『제82회기 총회 사회부 신학생 사회선교훈련교재』미간행, 1998, 87-88.

이상근, 신약주석 고린도전서, (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76), 56.

이상명, *가정교회: 현대교회의 갱신을 위한 한 모델* (미주 크리스챤헤럴드), 1998년 8월 2일자.

이상용,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방향" 『총회 사회부 신학생 사회선교훈련교재』(미간행,1998), 29.

이성희, "치매노인의 특성과 보호방법",『노인복지정책연구』제1권2호(1996. 8), 205-207.

이성희, 『미래사회와 미래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271.

이원규,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한국교회 무엇이 문제인가?』(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1998), 310-311.

이원설, "21세기 목회환경 변화의 주된 특성", 『목회와 신학』(1995년1월), 50.

이장식, 『현대교회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4), 415.

이종성, *교회론 I*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2), 20

이찬영, 새신자 방문요령, 월간목회 제 47권, (1980.7), 35

이환봉, "새신자 양육을 위한 성경공부", [월간목회] 1985년 7월호, 82.

장인협, 『사회복지학개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11.

정지웅외, 『기독교와 사회복지』(서울: 도서출판예안, 1995), 185-186

정진모, "한국 천주교회 사회봉사 활동의 발전을 위한 제언", 『사목』(1996.12), 45.

조동진, 교회행정학, (서울:크리스챤 헤럴드사, 1979), 233-235.

중앙일보 미주판, Saturday, September 17, 2005. Section-A.

진희근 교수의 '전도학' 강의, 제1강 회심과 세계관의 변화 중에서.

최성재, "교회 사회봉사 사업의 계회과 실천", 『교회 사회봉사 총람』(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편, 1994), 58.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9), 236-242.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두란노: 서울, 2000), 71.

최창무, "21세기 한국사회와 교회 사회복지활동의 사목적 전망", 『카톨릭 사회복지』(1995, 가을), 64.

"춘천지역 청소년 21% '이지메' 죄의식 없어," 국민일보 1998년 12월 18일자.

크리스챤 뉴스위크, 2011. 1. 8, 1.

크리스챤 선데이 미주판. Oct. 27. Section 3.

한림과학원 편, 「21세기를 여는 한국인의 가치관」(서울: 도서출판 소화, 1997), 11-12.

한상호,"본당 사회복지 활동의 방향", 『카톨릭 사회복지』제 3호(한국천주교주교회사회복지 위원회, 1994), 14-16.

현외성.『중고등학생 자원봉사활동』(서울: 유풍출판사, 1996), 135.

"노인복지법령집",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1998), 42.

"노인복지법령집",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1998), 117-119.

"노인복지사업지침", (보건복지부, 1998), 78-79.

『동아 새국어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89), 98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1세기교단발전정책개발위원회, “하나님의 여광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생명공동체” 제83회 총회 회의안 및 보고서 별책, 1998, 9-1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사회선교 지침”, 1984. 9. 5. 제 69회 총회.

3. 인터넷 자료

국제 제자훈련원 홈페이지. www.dimi.org (accessed 16 April 2011)

사랑의 교회 홈 페이지. www.sarang.org (accessed 11 April 2011)

휴스톤 서울 침례교회 홈페이지. www.seoulbaptist.org (accessed 13 April 2011)

FCBC 홈페이지. www.fcbc.org.sg (accessed 6 February 2011)

The Small Groups Network 홈페이지. www.smallgroups.com (accessed 2 February 2011)

The Cellular Level; an e-zine for the Cell Church Movement 홈페이지. www.cellchurch.org (accessed 17 February 2011)

Touch Outreach Ministries; Cell Church Magazine 홈페이지. www.touchusa.org (accessed 23 February 2011)

http://www.khan.co.kr/ 『경향신문』 (accessed 2 July 2011)

4. 성경공부 교재

박성호. *생명으로 들어가라.* 서울: 밴드목회 연구원, 1998.

이연길. *신앙의 기초 요한복음, 말씀과 만남시리즈 1*, 서울: 쿰란 출판사, 2001.

______. *창세기, 에베소서, 말씀과 만남시리즈 2*, 서울: 쿰란 출판사, 2001.

옥한흠. *제자훈련 교재 1,2,3 / 인도자 지침서.* 서울: 사랑의 교회, 1998.

______. *사역훈련 교재 1,2,3 / 인도자 지침서.* 서울: 사랑의 교회, 1998.

______. *다락방 성경공부 교재.* 서울: 두란노, 1997.

장학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 서울: 밴드목회 연구원.